

KINU 연구총서 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 김국신 · 김영윤 · 임순희 · 박영자 · 정은미

KINU 연구총서 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 김국신 · 김영윤 · 임순희 · 박영자 · 정은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ISBN 978-89-8479-610-2 93340

가 격 ₩12,0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vii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II. 삶의 질 이론과 북한에 적용방법	13
1. ‘삶의 질’ 연구의 이론적 배경	15
2. ‘삶의 질’ 이론의 북한 적용	35
3. 삶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담론	47
III.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	73
1. 북한주민의 ‘식의주’ 실태	75
2. ‘무상’교육의 허상과 교육 질의 불균등 심화	106
3. ‘무상’치료의 허상과 의료질의 불균등 심화	124
IV.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159
1. 북한당국의 삶에 대한 공식 지향과 인식의 실제	161
2. 계층별 삶의 질: ‘핵심·동요·적대’로부터 ‘상·중·하’로	211
3. 세대별 삶의 질: 배급과도기·식량난·시장 세대	234
4. 성별 삶의 질: 급변하는 여성과 무기력한 남성	243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V. 결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	251
참고문헌	2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71



표·그림 목차

<표 I-1> 성별 면접인원	7
<표 I-2> 연령대별 면접인원	8
<표 I-3> 출신지역별 면접인원	8
<표 I-4> 직업범주별 면접인원	8
<표 I-5> 구술자 상세 인적사항	8
<표 II-1> 유로모듈(EUROMODULE)의 사회지표	27
<표 II-2> 한국 통계청의 삶의 질 측정 내용	28
<표 II-3> 인간안보의 구성 요소	32
<표 III-1> 북한주민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	81
<표 III-2> 북한 지역별 주택유형과 거주세대	92
<표 III-3> 식수 공급원천 유형과 구성비(2008년)	94
<표 III-4> 화장실 유형 현황과 구성비(2008년)	96
<표 III-5> 주택별 난방 방식 현황과 구성비(2008년)	97
<표 III-6> 취사연료 현황과 구성비(2008년)	98
<표 III-7>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 실태	103
<표 III-8> 기대수명	136
<표 IV-1> 북한의 공식적 주민성분 분포 및 분류	212
<그림 II-1> 욕구이론과 삶의 질	22
<그림 II-2> 욕구충족의 정치·경제적 조건	36
<그림 II-3> 북한주민의 ‘삶의 질’ 영향 요인	44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의 효과, 특히 분배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이론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 내 삶의 질의 분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욕구이론, 인간안보, 유로모듈의 주·객관적 지표 중 생존(존재) 욕구,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북한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 목표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식의주’, 교육과 건강으로 설정하였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이 ‘비공식적 자력갱생’에 의해 생존을 모색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계층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장사라는 매개체를 통한 계층적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친척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삶의 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삶의 질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있다. 주관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삶

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행복’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모으고 치부하는 것에 집착하는 편이다. 일반주민들은 행복을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행복을 인식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일반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다. 여전히 사회적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력과의 공생관계 형성, 인맥·연줄 형성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일반주민들은 통제와 감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후견해주는 ‘뇌물을 매개로 한 비인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인맥·연줄과 ‘부와 권력 공생 네트워크’는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교육과 의료 등의 접근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삶의 질과 관련한 북한 내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층별 분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대북지원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I. 서론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1.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right to food), 건강권 등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극히 열악한 상황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선군정치를 고수하면서 자원의 불균등배분, 차등배분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지원의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입장과 정책목표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는 지원대상으로서의 ‘북한주민’, 대북지원과 ‘삶의 질’을 연계시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 차원에서 위로부터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부터 제시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대북지원의 수행방식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대북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배의 투명성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의 효과, 특히 분배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이론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념은 어떻게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유럽 선진국을 시발로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동시에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삶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개념과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은 복지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가 붕괴된 북한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난과 이로 인해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면서 북한사회 내부에 계층 분화와 삶의 수준에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 차원에서 경제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논하는 데 있어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적용 적실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학문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북한 내 삶의 질의 분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과 ‘삶의 질’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난에 따른 삶의 분화 현상 속에서 주관적 실태 혹은 인식의 문제로서 삶의 질에 대해 북한주민들

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추세가 삶의 질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계층별 삶의 질의 실태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차원에서 삶의 질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문적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 학문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삶의 질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인권, 인간안보, 인간개발 등 유사개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삶의 질 개념을 현재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의 적실성과 시사점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삶의 질의 주·객관적 지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어떤 부문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살펴보아야 할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로 의식주, 교육과 건강의 5가지를 설정하고 이러한 삶의 지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삶에 대해 어떻게 정립하여 주민들에게 사상교양을 실시하며 경제난에 따라 이러한 삶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 담론과 북한주민의 실제 인식 사이에 어떠한 변화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객관적 실태에 대해서는 크게 ‘식의주’라는 생존의 측면과 교육과 건강의 2가지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에

I
II
III
IV
V

따라 어느 정도 삶의 질의 수준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바, 북한의 변화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계층분화와 접근의 기회를 기준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계층별 의식주, 교육 및 건강 실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삶의 질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북한주민의 주관적 인식의 경우 2가지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와 1인 승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삶’에 대해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인식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삶과 북한주민의 인식 사이에 어떠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계층별, 세대별, 성별 등 대상별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난에 따른 북한주민의 계층분화와 세대 분화에 대한 구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V장 결론에서는 경제난에 따른 계층 분화, 당/국가체제에서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에 따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북한주민의 삶의 실제 현상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계층별 삶의 질의 실태를 고려한 특화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접근 기회의 불균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차원에서 평가 기준, 모델 등에 대한 국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삶에 대한 공식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원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전에는 북한소설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주민의 계층별, 세대별, 성별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와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시간 정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식의주’, 교육·의료에 대한 객관적 실태와 삶의 질과 관련한 북한주민의 인식이라는 2개의 커다란 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내용에서 계층별, 세대별, 성별 인식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계층과 성별, 연령 등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였다. 성별의 경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면접 대상자 구성상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1 성별 면접인원

(단위: 명)

성별	남성	여성	합계
인원	15	26	41

● 표 | -2 연령대별 면접인원

(단위: 명)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	1	7	9	12	9	3	41

● 표 | -3 출신지역별 면접인원

(단위: 명)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합계
	청진시	회령시	새별군	온성군	연사군	무산군	기타	신포시	정평읍	사리원시	룡연군	남포시	순천시	북창군	강서군	원산시	종강군	혜산시	김명진군				
6	1	1	1	3	1	2	1	1	1	1	1	2	1	2	1	2	1	10	2	41			

● 표 | -4 직업범주별 면접인원

(단위: 명)

직업	노동자	무역업	인텔리 (교원 등)	상인	기능직 (미용, 도안, 도면설계 등)	관리직, 사무원 (관료 등)	학생	군인	주부	합계
인원	5	2	6	7	4	11	4	1	1	41

● 표 | -5 구술자 상세 인적사항¹⁾

사례 No.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북한에서 학력	면접일 2011년
1	여	30대	2009.9	2010.1.8	원산시	상업관리소 관리원	원산경제 전문학교	4.18

¹⁾ 본문에서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을 인용할 경우 자세한 인적사항 대신 본문에 괄호로 (사례1)의 방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사례 No.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북한에서 학력	면접일 2011년
2	남	40대	2009.11	2009.12	사리원시	교원 (사범대학)	사리원 사범대학	4.20
3	여	50대	2008.6	2009.8	평양시	노동자	석찬야간 전문학교	4.21
4	남	30대	2010.3	2010.5	신포시	도시경영	고졸	4.25
5	남	30대	2009.2	2009.7	평양시	무역업	평양컴퓨터 기술대학	4.28
6	여	30대	2010.4	2010.5	평양시	교사	금성학원	4.28
7	여	60대	2009	2009.9	함경북도	유치원 교사	고졸	4.28
8	여	10대	2009.1	2010.1	회령시	학생	회령고졸 중퇴	4.29
9	여	40대	2009.11	2010.1	해산시	미용사	고졸	5.3
10	여	20대	2010.3	2010.5	해산시	보안소 주민등록과 등록원	연흥 고등중학교	5.4
11	여	40대	2009.6	2009.10	해산시	미용사	해산경공업 전문학교	5.4
12	여	30대	2010.2	2010.3	온성군	교양원 15년 및 시장	회령교원 대학	5.6
13	여	20대	2010.1	2010.7	김형직군	상점 판매원	월탄 고등중학교	5.7
14	남	60대	2009.1	2009.2	온성군	온성농기계 작업소 자재지도원 (사무원)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보 고등중학교	5.9
15	남	20대	2010.3	2010.4	해산시	감독, 지도교원	김정숙 사범대학	5.9
16	여	60대	2009.12	2010.1	온성군	부업 및 장사, 양복사	광업기술 학교	5.11
17	남	20대	2010.3	2010.4	해산시	태권도 교원	김정숙 사범대학	5.12

사례 No.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북한에서 학력	면접일 2011년
18	여	50대	2010.1	2010.7	김형직군	식량공급소 책임자	평양시 봉화연구원 준의학교	5.12
19	여	50대	2010.3	2010.8	해산시	시장장사	춘동 고등중학교	5.13
20	남	20대	2008.12	2009.3	해산시	회사	무역회사	5.13
21	여	50대	2009.1	2009.7	남포시	노동자	남포농업 대학	5.16
22	여	40대	2010.9	2010.11	해산시	도안공 (디자인)	예술전문 학교	5.16
23	여	40대	2010.7	2010.10	무산군	기계부속품 설계 및 도면설계	무산 공업대학	5.17
24	여	40대	2010.8	2010.10	연사군	농장회계원	신북 고등중학교	5.20
25	여	50대	2010.1	2010.11	청진시	여맹위원장	대졸	5.20
26	여	50대	2009.1	2010.12	강서군	철도부양 및 장사	재정간부 전문학교 (회계전공)	6.22
27	남	20대	2009.4	2009.4	평양시	대학생	국방대학교 졸업	8.9
28	남	20대	2010.8	2010.11	북창군	군인	봉창 고등중학교	8.10
29	남	30대	2009	2009	평양시	학생	대학원 졸업	8.11
30	남	50대	2005	2006	원산시	사무원	전문대 졸업	8.17
31	여	50대	2010.11	2010.12	해산시	방직(혜명 가내생산협 동조합)/장 마당에서 원단판매	경공업 전문학교 졸업	8.17
32	여	40대	2006.2	2006.2	순천시	상인	고등학교졸업	8.23

사례 No.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북한에서 학력	면접일 2011년
33	남	30대	2010.10	2010.12	무산군	수출회사 노동자	회양고등중학교 졸업	8.24
34	남	50대	2010.8	2010.11	북창군	관리직	대평고등학교 졸업	8.25
35	남	40대	2000.6	2005.6	중강군	자강도 대외상품 검사소 검사원	자강도 강매제1사범대학 졸업	8.30
36	여	40대	1999	2005	남포시	노동자	강서구 농업기술고등학교	8.19
37	여	40대	2007	2008	룡연군	가정주부	더현고등중학교 졸업	8.23
38	여	40대	2010.4	2010.5	셋별군	화학공장 노동자	회령 경공업전문학교	9.8
39	남	30대	2009.6	2009.6	평양시	외무성 책임부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9.14
40	여	40대	2007.11	2009.6.11	정평읍	교사, 주부	함흥농업대학 졸업	9.15
41	여	30대	2007.3	2010.3	혜산시	대학생	혜산농림대학 졸업	9.15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 이외에도 일부 연구진이 중국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북한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한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공간문화, 북한사회 동향 관련 자료, 북한소설, 북한주민들의 수기 등의 문헌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실태자료의 경우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당국의 발표, 유엔 등의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II. 삶의 질 이론과 북한에 적용방법



1. ‘삶의 질’ 연구의 이론적 배경

가. ‘삶의 질’ 연구 발전과정

삶의 질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1950년대 서구 선진국들은 기술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한 산업발전을 달성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많은 구속을 받아 왔던 서구인들은 경제적 풍요 속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자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급속히 상승하였다.² 이와 같은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서구 학계는 인간개발 및 행복한 삶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모색하였다. 그 당시 지적 분위기를 대표하는 이론으로서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을 창시한 매슬로우의 동기 및 욕구이론이 지적되고 있다.³ 매슬로우 이론의 핵심은 인간 본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자아실현 욕구를 욕구위계의 가장 상층부에 놓고 이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후 개인의 행복과 좋은 삶(good life)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설정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² Ioan Marginean et al., eds., *Quality of Life in Romania* (Bucharest: Expert Publishing House, 2004), pp. 10~15.

³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4).

이론은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충족 이론을 기본 전제로 포함한 상태에서 논리를 체계화시켜 왔다.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일인당 GDP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인간의 행복 또는 복지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개발 노력을 전개하였다. 당시 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학계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미국식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칸디나비아식(Scandinavian) 접근법이다.⁴ 미국식 접근법은 행복과 만족 등 삶에 대한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 개발에 몰두하였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식 접근법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와 복지문제로서의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생활 수준, 삶의 질 또는 사회의 질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 개발에 집중하였다. 스칸디나비아식 접근법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개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주어진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삶의 수준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⁵ 하지만 주관적 사회지표와 객관적 사회지표 모두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각기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지표 개발의 일환으로 발전하여 온 삶의 질 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특히 1974년 학술

⁴-Mark Rapley, *Quality of Life Research: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2008), pp. 4~5.

⁵-Susan Galloway, "Section 1: A Literature Review,"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Measuring the Benefits of Culture and Sport: literature Review and Thinkpiece*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January 2006), p. 22.

잡지 『사회지표연구』(Social Indicators Research)가 발간된 후 여기에 게재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논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⁶ 삶의 질에 관한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수준 높은 삶이라고 간주하며, 좋은 발전이란 한 사회에 행복과 복지(well-being)를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인 삶의 질에 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개념 정의가 없다. 사실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강조하는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정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삶의 질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인 심리적 지표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를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삶의 질’의 주·객관적 요소

(1) 동기·욕구이론과 삶의 질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Hierarchy of Needs)〉

매슬로우는 건강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과 자아실현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동기이론과 욕구위계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간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동기는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욕구층주의 필요성에서 유발된다고 주장한다.⁷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행동의 동기가

⁶- Ibid., p. 7.

⁷- 욕구(need)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데 반해, 동기(motivation)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동기는 종종 욕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옥분,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8), pp. 210~221 참조.

되는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 욕구는 그 강도와 충족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낮은 차원의 욕구가 충족된 후에야 그 다음 차원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매슬로우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욕구는 다음과 같다.⁸

① 생리적 욕구

음식·물·공기·수면 등 유기체로서 생존하기 위해 꼭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하다. 만약 허기, 갈증 등과 같은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은 곧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모두 하찮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들이 만성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②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나타나는 욕구로서 생명의 위협, 심리적 위협, 또는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안정과 보호를 요구하는 안전욕구는 상대적으로 무력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은 커다란 심리적 불안은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은행에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안정된 직장을 바라는 것도 역시 안전의 욕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⁸-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Abraham H. Maslow,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서울: 교육과학사, 1992), pp. 47~62 참조.

③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생리적 욕구 및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모임에 참가하여 동료 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나타낸다. 인간은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면 자기가 가치 있다는 기분을 갖게 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허감·무가치·적대감 등을 갖게 된다.

④ 자기존중의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기존중의 욕구는 기술을 습득하고, 맡은 일은 훌륭하게 해내고, 작은 성취나 칭찬 및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음으로써 충족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중은 명성·지위·평판 등 사회적으로 표출된 성과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자기존중은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나타난다.

⑤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능과 능력을 완성하려는 욕구를 뜻하며,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와 심미적 욕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슬로우는 욕구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결핍욕구(deficiency needs)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충동과 연관된 성장욕구(growth needs)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성장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특징지어진다.⁹

동기유발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은 경영조직이론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종업원들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⁹ 서인혜·공계순,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남출판사, 2004), pp. 25~41 참조.

I
II
III
IV
V

위해서 헌신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먼저 조직원들의 하위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도 동기부여를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소속감·자존심·자아실현 욕구 등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¹⁰ 하지만 조직 내 개인의 동기유발을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알더퍼(Alderfer)의 존재·관계·성장(ERG) 욕구〉

알더퍼는 조직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는 먼저 다섯 가지로 분류된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단순화하여 존재·관계·성장욕구 세 가지로 나누었다.¹¹ 알더퍼는 매슬로우와 달리 그의 세 가지 욕구가 반드시 위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위차원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차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동기가 유발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존재·관계·성장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상위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면 하위차원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이론도 제시하였다. 즉, 상위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하위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알더퍼는 ‘좌절과 퇴행(Frustration-regression)’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매슬로우와는 달리 욕구충족을

¹⁰-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 명경사, 2002), p. 179 참조.

¹¹- Clayton P. Alderfer,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pp. 24~28.

위한 동기가 수직적 상승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알더퍼의 존재·관계·성장욕구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²

① 존재욕구(Existence needs)

존재욕구는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슬로우가 안전욕구로 분류한 내용 중 신체적 고통·위협·박해 등도 존재욕구로 취급한다. 즉, 존재욕구는 모든 물질적·생리적 욕구를 포함한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존재욕구의 결핍 상태를 대표한다. 소득·상여금·근로환경 등도 존재욕구의 한 측면이다. 존재욕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의 이득은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의 경쟁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존재욕구의 이러한 성질은 한 집단의 존재욕구의 만족이 다른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존재욕구의 해결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¹³

②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관계욕구는 매슬로우의 애정과 소속 욕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슬로우가 안전욕구로 분류한 내용 중 타인과의 애증 문제, 그리고 자기존중 욕구로 분류한 내용 중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심 문제 등도 관계욕구로 취급한다. 즉, 관계욕구는 가족과 친구는 물론 직장의 상사·동료·부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적대적 관계자까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 나오는 욕구를 모두 포함한다. 관계욕구의 기본적 특징은 그 만족도가 상호의존관계 및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존재욕구가 타인과의 경쟁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관계욕구는

¹² *Ibid.*, pp. 9~12.

¹³ 서인혜·공계순,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pp. 25~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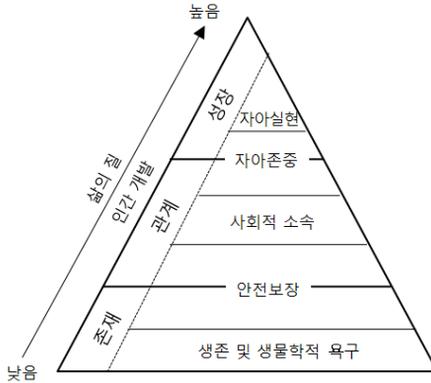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③ 성장욕구(Growth needs)

성장욕구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슬로우가 자기존중 욕구로 분류한 내용 중 자기 자신의 내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나온 자기 존경심도 성장욕구로 취급한다. 즉, 성장욕구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주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성장욕구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초월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 능력과 환경에 새로운 질서를 성취함으로써 성장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욕구이론과 삶의 질〉

●그림 II -1 욕구이론과 삶의 질



출처: M. Joseph Sirgy, "A Quality of 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5, No. 3 (July 1986), p. 332; 서인혜·공계순,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p. 4에서 수정하여 인용.

매슬로우의 인간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질의 목표는 사회에서 인간개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의 욕구이론에 비추어 보면, <그림 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 대다수 성원들의 위계적인 욕구 수준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의 수준이 결정된다.¹⁴ 사회 대다수가 상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삶의 질은 높은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 하위 수준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낮아진다. 알더퍼는 매슬로우와 달리 욕구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거부하지만 욕구충족과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이와 같은 평가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알더퍼도 존재욕구가 충족되면 관계욕구로 진전되고 관계욕구가 충족되면 성장욕구로 진전된다는 논리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구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만 욕구의 대상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존·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욕구의 대상은 물질 또는 생물로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이다. 그런데 동일한 객관적 대상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의 강도는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객관적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문제를 욕구 분류방식에 추가하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존재욕구의 물질적 대상은 알더퍼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화의 사회적 분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욕구충족과 관련된 문제는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논쟁점을 야기한다. 이는 또한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방향과 연관되어 있다.

¹⁴- M. Joseph Sirgy, "A Quality of 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pp. 329~342.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킨 경제적으로 풍요한 선진국가의 주민들은 대체로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등 상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은 생물학적 요구, 안전욕구 등 하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몰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욕구이론에 기초한 삶의 질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매슬로우와 알더퍼의 욕구이론은 욕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법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객관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즉, 이들의 욕구이론과 더불어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2) 주·객관적 사회지표

심리학 방법론에 비추어 보면 매슬로우의 인본주의적 접근은 행동보다 내부 정신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perception)적 접근과 유사하다.¹⁵ 하지만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은 인지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하는 외부자극의 지각·인지·기억 과정 등 욕구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매슬로우는 욕구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기명시적(self-evident)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기명시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치 내재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¹⁶ 욕구는 인간의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삶의 질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15- 김치동, 『심리학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고려, 1999), pp. 20~21 참조.

16- 서인혜·공계순,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pp. 25~41 참조.

개발한 주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인지능력, 정보접근 가능성, 과거 경험 등 인지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분석방법을 대폭 수용하여 욕구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삶의 질 연구는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조건들을 구체화시켜 이론적 체계를 강화하였다.

삶의 질 연구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관적 사회지표의 예를 들면 공동체 의식, 물질적 소유의식, 안전에 대한 감각, 행복,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가족 관계, 직업 만족, 성생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인식, 계급 정체성, 취미와 단체 소속감 등을 들 수 있다.¹⁷ 한편,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인지·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나타낸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열거할 수 있지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지표의 예를 들면 경제성장율, 기대수명, 범죄율, 실업률, 빈곤층 비율, 학교 출석률, 주간 근무시간, 연평균 사망자 수, 자살비율 등을 들 수 있다.¹⁸

삶의 질 연구 중에서 건강·의료 등과 관련된 학술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사실 신체적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하여 삶의 질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 건강증진·질병치료·환자간호 등 관련 삶의 질 연구는 일상생활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연령·성별·직업·주거환경 등과 관련하여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분야에서의 삶의 질 연구는 신체적 지위와 기능적 능력, 심리적 지위와 안녕,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적 지위와 요인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환자의 상

¹⁷- Mark Rapley, *Quality of Life Research: A Critical Introduction*, p. 11.

¹⁸- *Ibid.*, p. 11.

태를 평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프로그램을 모색한다.¹⁹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관심 영역으로서 신체적 건강, 심리상태, 사회관계, 환경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⁰ 그리고 ① 신체적 건강 영역은 일상생활, 보조기구 의존도, 에너지와 피로, 기동성, 공통과 불편함, 수면과 휴식, 작업능력, ② 심리상태 영역은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자기존중, 종교적 신념, 기억과 사고력, ③ 사회관계 영역은 개인적 관계, 사회적 지원, 성적 활동, ④ 환경 영역은 재정능력, 자유와 신체적 안전, 사회복지 지원, 가정환경, 새로운 정보 수집 기회, 오락 활동, 오염·기후·교통 환경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럽통합을 가속화하고 동유럽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의 삶의 질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국가 지표를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그 이행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²¹ 하지만 회원국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제시한 주·객관적 사회지표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19개 유럽국가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모든 회원국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의 표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유로모듈(EUROMODULE)이라는 삶의 질 조사에 기준이 되는 표준양식을 발표하였다.²² 다음

19. 윤현숙,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 (서울: 을유문화사, 1993), pp. 255~273 참조.

2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Geneva: WHO, December 1996).

21. OECD 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서울: 통계청, 2009), p. 57 참조.

22. Jan Delhey, Petra Bohnke, Roland Habich and Wolfgang Zapf, “Quality of Life

<표 II-1>은 유로모듈에 명시된 삶의 질 사회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

● 표 II-1 유로모듈(EUROMODULE)의 사회적 지표

객관적 생활 조건	주관적 안녕(well-be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가족 구성 ● 사회 관계 ● 참여 활동 ● 생활 수준 ● 소득 ● 건강 ● 교육과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생활조건 만족도 ● 생활 만족도 ● 행복 ● 불안과 근심 ● 주관적 사회계급 지위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무게감 ● 사회문제에 대한 낙천성/비관 ● 자신의 생활조건에 대한 평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갈등 ● 타인에 대한 신뢰 ● 자유·안전·사회정의 등 공공재의 성취 정도 ● 자기 나라와 비교한 다른 유럽국가들의 생활조건 ● 사회 통합의 전제 조건 	
배경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 성별 ● 지역사회 형태 ● 결혼 상태 ● 취업 상태 ● 직업(현직/전직) 	

출처: Jan Delhey, Petra Bohnke, Roland Habich and Wolfgang Zapf, "Quality of Life in a European-Perspective: The EUROMODULE As a New Instrument for Comparative Welfare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8 (2002), p. 173.

in a European-Perspective: The EUROMODULE As a New Instrument for Comparative Welfare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8 (2002), pp. 163~176.

I
II
III
IV
V

유로모듈의 삶의 질 조사의 특징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이는 유럽통합이 심화되어 국경을 넘어선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자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통합을 넘어선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유럽학계의 영향을 받아 사회의 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²³ 하지만 유럽국가들과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은 삶의 질 조사에 있어 주·객관적 지표의 배열을 달리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의 질이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표 II-2 한국 통계청의 삶의 질 측정 내용

영역	측정 내용
소득/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측정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파악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측정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하여 측정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을 측정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파악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를 측정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를 중심으로 측정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을 측정
문화/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을 측정

출처: OECD 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서울: 통계청, 2009), p. 71 인용.

한국 통계청의 경우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교통,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²³ 정진성 외,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참조.

등 10개의 관심 영역을 선택하고 영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²⁴ <표 II-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영역에서 사회통합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조사 영역이 국가별로 정책적 과제의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인간개발과 인간안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을 배경으로 발전한 삶의 질 이론은 1960년대 기존의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측정한 사회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사회적 생활조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려 하였다. 탈냉전 이후 지역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삶의 질 조사에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까지 추가하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낙후된 제3세계 국가들은 1950~60년대 경제성장을 사회발전의 지상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유엔과 선진국들의 개발원조도 양적 성장위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층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자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서는 개발협력의 중점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두고 의식주·교육·의료 등 기초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 개발원조를 실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²⁴ 한국도 2008년부터 정부 부처와 분야별 학자들이 참여한 민관합동팀을 구성하여 삶의 질에 관한 영역 설정 및 지표 선정 등 지수화작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pp. 70~71 참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1977년 고위급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선언’을 채택하여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개발협력의 필수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²⁵

탈냉전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발협력전략을 모색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며 여기에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발표하고 있다. 1990년 보고서는 인간개발을 ‘인간의 선택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²⁶ 많은 선택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교육을 받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개발은 건강과 지식 증진을 인간 역량 형성과 또한 형성된 역량을 작업과 오락 등에 이용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된다. 인간의 선택을 확대하는 인간개발은 결과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인간 역량의 확대와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개발을 당분간 장수·지식·생활 수준 등 인간 삶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인간개발지수는 ① 건강한 삶(평균 수명, 영유아 사망률, 의료·보건 수준), ② 지식(기초 교육률, 문자 해독률, 초·중·고·대학 등록률), ③ 생활 수준(일인당 GDP) 등 세 가지 측면을 측정하고, 세 가지 지표를 표준화해 단순 평균한 값으로 인간개발지수를 산출한다. 인간개발지수

²⁵-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pp. 58~61 참조.

²⁶-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0~16.

의 장점은 단순한 지표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건강·교육·소득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개발지수를 서열화한 자료는 각국 정부가 인간개발에 더 큰 관심을 쏟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이 제시한 인간개발지수는 매우 한정된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⁷ 사실 개발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지표를 매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방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라크·소말리아 등에 관한 인간개발지수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말 소련이 몰락한 후 강대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자본·기술·노동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하면서 개별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지만 구사회주의권 지역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고 기아·질병·국제범죄·테러리즘·마약거래 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크게 부상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정치안정·경제성장·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다양한 위협을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안보개념 변화에 상응하여 유엔개발계획은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²⁸ 인간안보와 포괄적 안보는 모두 군사영역으로 제한

27. Wikipedia, "Human Development Index" <en.wikipedia.org/wiki/Human_Development_Index>.

2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I
II
III
IV
V

된 전통적 안보개념의 범위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는 여전히 국가를 주요 행위주체로 간주한 반면, 인간안보는 인간(people-centered)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²⁹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첫째, 기아·질병·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둘째, 일상생활의 안정을 갑작스럽고 유해하게 혼란시키는 요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즉 인간안보는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적인 위협과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의 안전까지 고려한 인간안보는 다음 <표 II-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등 일곱 가지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 표 II-3 인간안보의 구성 요소

안보 영역	위협 요인
경제안보	○ 소득 부재,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한 위협
식량안보	○ 기본적인 식량 결핍, 불균등한 식량 배분 등으로 인한 위협
보건안보	○ 전염병, 기생충, 불결한 위생환경, 부실한 의료시설 등으로 인한 위협
환경안보	○ 생태환경 파괴, 공해, 식수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협
개인안보	○ 국가와 범죄자들의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위협 - 국가 기관이 행하는 육체적 고문, 다른 국가의 침략전쟁 - 다른 종족과의 인종분규 - 여성에 대한 강간과 가정 폭력 - 아동 학대

Report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22~40.

²⁹ 김우상·조성권, 『세계화와 인간안보』 (서울: 집문당, 2005), pp. 79~92 참조.

안보 영역	위협 요인
공동체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민족 박해, 인종 분규 등 문화적 다양성 보호에 대한 위협 ○ 폐쇄적 전통문화는 억압적 관습을 유지하는 폐해
정치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폭력, 인권침해, 군사개입을 초래하는 정치불안 ○ 정부의 언론통제 ○ 과도한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위협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pp. 25~33.

인간안보의 일곱 가지 영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 해당하는 관심 사항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인간안보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정치안보는 특히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더 많은 위협요인이 발견된다. 한편, 이들 인간안보 영역은 상당한 정도 연계되어 있고 일부 중첩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안보가 국가의 고문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경우 그리고 정치안보가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경우에는 모두 국가의 폭력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라는 두 가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개발에서도 강조되었으므로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인간개발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용해 온 안보개념을 개인 차원으로 확대한 인간안보는 이론적 체계화와 현실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사회적 지표를 통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 방법론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



다. 현실 적용에서의 문제점은 독재정권이 폭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쟁점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근대 국가체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은 주권의 절대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코소보 내정간섭의 합법성 문제, 르완다 내정간섭 실패, 소말리아에서의 임무 완수 전 철회, 보스니아의 약소한 시민사회 보호 실패 등 인도주의적 개입이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안보를 위한 외부개입 문제는 여전히 내정간섭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³⁰

국제사회가 인간안보를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³¹ 하지만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와 신변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의 경우 국가가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을 별도로 논의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펀드 포 피스(Fund for Peace)’는 ‘실패한 국가 지표(Failed States Index)’를 개발하여 2005년 이후 이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매년 발표하고 있다.³² 펀드 포 피스는 사회·경제·정치 부문에 관련된 12개 세부지표에 점수를 매기

³⁰- Shahrbanou Tadjibakhsh and Anuradha M.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2007); 타지박시·체노이, 박균열 등 옮김, 『인간안보』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pp. 51~52 참조.

³¹- 타지박시·체노이, 박균열 등 옮김, 『인간안보』, pp. 274~277 참조.

³²- The Fund for peace, “The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5, pp. 56~64.

고, 이에 근거하여 실패한 국가들을 분류한다.³³ 국가가 붕괴되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불안정도에 관한 사회적 세부지표로서는 ① 식량 등 생필품 자급능력에 대한 인구 증가 압력, ② 난민의 대량 이동, ③ 역사적으로 쌓인 불만세력, ④ 국민들의 만성적인 해외 도피 등 4가지; 경제적 세부지표로서는 ⑤ 불균형 경제성장, ⑥ 급격한 경제 하락 등 2가지; 그리고 정치적 세부지표로서는 ⑦ 국가의 범죄화 또는 정통성 상실, ⑧ 공공행정의 연속적 악화, ⑨ 자의적 법집행 및 광범위한 인권 침해, ⑩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보·보안기관의 권력남용, ⑪ 정치·사회적 지도층의 파벌화, ⑫ 다른 나라 또는 외부 요인의 개입 및 지원 등 6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불안정도에서 95.7점으로 13위를 기록하여 실패국가로 판정받았는데, 2011년에도 95.6점으로 22위를 기록하였다.³⁴

2. ‘삶의 질’ 이론의 북한 적용

가. 정치·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당시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생존과 안전과 관련된 존재욕구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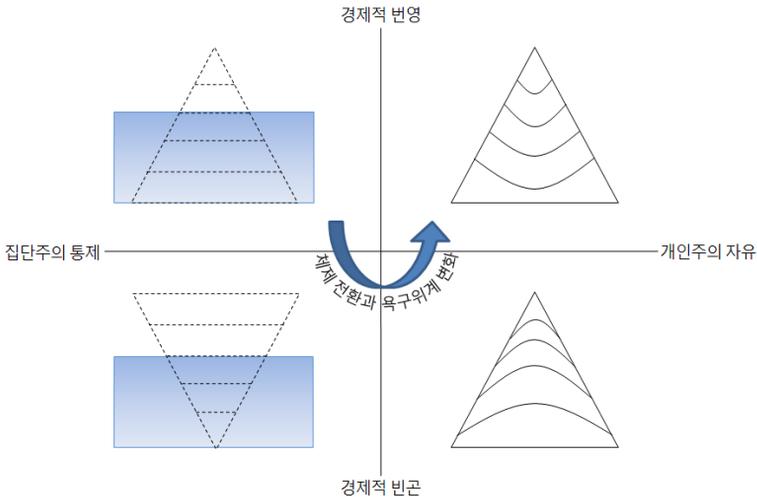
³³- 12개 지표들은 각각 0점에서 10점 사이의 범위에서 점수가 부여된다. 국가 취약성의 강도가 가장 낮은 0점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취약성의 강도가 가장 높은 10점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

³⁴- The Fund for Peace, “The 7th Annual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July/August 2011, pp. 48~49.

I
II
III
IV
V

행복한 삶과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발적인 성장동기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희망이다. 따라서 삶의 질 연구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발전된 삶의 질 연구를 다른 지역국가에 적용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 삶의 질을 연구할 경우 정치·경제적 조건이 인간의 욕구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2 욕구충족의 정치·경제적 조건



정치체제의 성격과 경제발전 수준은 다른 어떤 환경적 요소보다도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욕구충족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림 II-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4가지 각기 다른 유형을 보일 수 있다. 수직선으로 나누어진 좌·우측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정치체제의 성격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욕구를 집단목표 달성을 위해 통제하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방임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편, 수평선으로 나누어진 상·하면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개인의 욕구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주어진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기대하는 욕구 수준 및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발전 수준이 의식주 등 생활필수품 조달 및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경제력이 개인의 욕구 위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론에 비추어 논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선진국에서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면 애정·자존심·자아실현 등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생존과 안전 등 존재욕구 충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알더퍼의 욕구좌절과 퇴행이론에 비추어 보면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생존과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욕구 충족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욕구충족을 위한 동기가 수직적 상승만을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퇴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더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존재욕구의 충족문제는 경쟁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 선진자본주의체제에서도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하층계급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

I
II
III
IV
V

지만 부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더 강렬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정치적 혁명으로 비화될 수 있다. 사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사회적 착취와 불평등을 타파하겠다고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은 모두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한 후진국 현상이었다.

정치이념이 다르고 국가가 상이한 사회·경제정책을 추구할 경우 인간 욕구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시민적 자유권을 우선시하며 개인주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한편, 사회주의체제는 사회권과 생존권을 중시하며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념으로 사회화된 사람들은 개인의 성장 욕구를 희생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위해 집단주의 문화에 충성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관은 정치사상 교육에 따라 일직선으로 강화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정치이념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환경이 미래 삶의 행복을 약속하는 희망을 던져줄 경우 인간은 주어진 정치체제에 적응하여 욕구 수준 및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만약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줄 경우 인간 욕구는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정치·사회제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제도는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 문제를 개인이 책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³⁵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정치체제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를 보인다. 시장경제에 의존하여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성장 및 분배 과정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시·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더 큰 책임을 떠맡게 된다.³⁶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창출하는 데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보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발적인 성장욕구를 억압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되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획일적인 집단주의 문화와 비효율적인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후진사회주의 국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35- 김영화·이애재·손지아·공정원 공저,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서울: 학현사, 2004), pp. 33~35 참조.

36- 데이비스·스케이스 저,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0), pp. 20~23 참조.

I
II
III
IV
V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 조류에 역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삶의 객관적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하층계급 주민들은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굶어 죽을 수 있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등 사회적 일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은 좌측하단에 위치해 있다. 북한이 위치한 좌표의 그림은 개인의 욕구를 집단주의적 통제에 묶어 놓았지만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자 존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제 밖으로 솟아 나와 사회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북한정권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물리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은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동일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후 당·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구축된 상층 지배층과 중간 관료계급은 여전히 일반주민들과 다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 개인의 행복 추구를 거부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교조적 이데올로기와 낙후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나. 북한의 삶의 질 분석틀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 연계되어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³⁷

1948년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고 국가권력을 독점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개인 상공업을 폐지하고 농업 집단화를 이룩한 1958년 구축되었다. 그 후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토지와 공장 및 생산설비는 국가 내지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기초 생활필수품이나 가구 등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1958~60년 주민성분 분류작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으로 분류하고 계층적 사회제도를 확립하였다.³⁷ 또한 사회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철저히 조직하여 주민들은 여행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았으며 직장배치도 당에서 결정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고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객관적 요인은 사실상 계층별로 획일화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1960~70년대 노력동원을 통해 외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정권은 식량·의복 등을 배급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주민들로서도 존재욕구가 충족되는 상황에서 집단주의적 문화에 적응하여 나름대로 관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개인의 성장욕구는 집단주의 문화에 매몰되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경우

37. 전체주의체제는 ① 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 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통치·지시 경제체제 등의 특징을 가진 체제를 의미한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38. 정치적으로 분류된 북한사회의 핵심계층은 약 28%, 동요계층은 45%, 적대계층은 27% 정도를 차지한다.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330~331 참조.

I
II
III
IV
V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당시 체제에 순응한 주민들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나름대로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1974년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규보다 우위에 뒀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회주의 집단인식을 교육시키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을 정당화하였다.³⁹ 주체사상은 사람을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사람의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성은 개인의 창조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집단의 생명은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주성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개인의 창의성을 억압한 북한체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1980년대부터 경제가 침체되었다.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더욱 침체되었다.⁴⁰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경제난의 악화로 대내외적으로 체제존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북한당국은 배급을 중단하였다.

³⁹- 주체사상을 처음 체계화시켜 발표한 논문은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3.31)이며, 그 후 1985년 발간된 주체사상총서 10권은 주체사상·혁명이론·영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pp. 108~116 참조.

⁴⁰- 북한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 GN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 결과』 (1995.6.19), p. 6 참조.

북한의 계획경제는 이때부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육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야 했다. 배급이 중단되자 사회적 일탈현상이 확산되며 집단 의식은 점차 이완되었다. 기존의 사회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당·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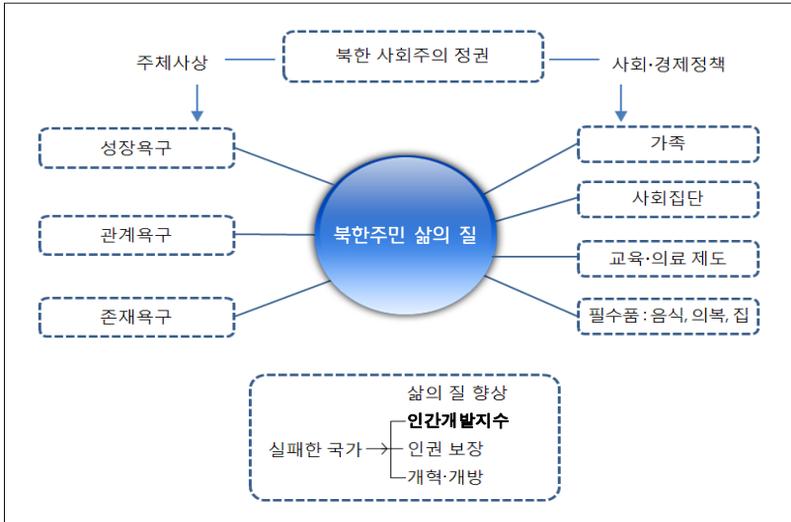
현재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계획경제는 작동하지 않아 국가의 정책이 사회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무질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장마당과 암시장에서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의 확대는 기존의 사회계층 구조를 침식하며 새로운 사회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에 대한 가치척도는 이미 체제규범을 벗어나고 있다. 사회적·심리적 변화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오히려 시장을 단속하는 등 주민들의 육구를 기존의 사회주의제도 틀 안에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II-3>은 사회주의제도와 무질서,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은 존재육구·관계육구·성장육구 등 주관적 요인과 생활필수품, 교육·의료제도, 사회집단, 가족관계 등 객관적 요인을 절충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북한정권은 이념교육과 사회·경제정책을 통하여 삶의 질의 주·객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인간개발 및 인권보호 그리고 체제 차원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향

I
II
III
IV
V

상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림 II -3 북한주민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본 과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삶의 질 이론은 민주주의 질서 아래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서구 선진국가에서 태동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극히 열악한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삶의 질 이론과 논의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삶의 질 이론과 논의를 다음과 같이 북한에 적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스칸디나비아식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다만, 스칸디나비아식 접근은 좋은 사회와 복지문제

로서의 사회적 안녕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에 적용할 경우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실태라는 관점에서 주민들 개별적 차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려는 미국식 접근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긍정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주관적 만족보다는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의식주(식의주), 교육, 건강의 5가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우선적으로 욕구이론을 고려하고자 한다. 다만, 욕구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욕구와 존재욕구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위 욕구충족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하위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 커진다는 알더퍼의 논의에 주목하여 생존과 존재욕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유로모들의 객관적 생활조건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표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별 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유로모들의 객관적 생활조건에서 경제적 지표와 개별적 환경요소로는 소득, 주택, 건강,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득의 경우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건강·의료 등과 관련된 삶의 질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

I
II
III
IV
V

근 경향을 반영하여 건강·의료를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넷째, 인간안보의 경우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본 과제에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의 7가지 안보 중 식량안보와 보건안보 중심으로 인간안보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생존욕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의식주’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의식주, 교육과 건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적 지표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주민들 개개인의 실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만족도보다는 ‘인식’ 중심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회와 접근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배급체제 붕괴 이전 북한사회는 핵심 계층을 제외하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균질한 상태였다. 그런데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생존욕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난으로 계층이 분화되면서 삶의 질에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접근의 차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알더퍼의 논의에서 보듯이 존재욕구의 기본특징은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제로섬 게임의 경쟁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쟁적 관계에 따른 배분은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과 연관된다. 북한의 경우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대한 경쟁은 체제적 특성으

로 인해 권력과 연계되어 접근권의 유무가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사 등 개별 단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인물들과의 연출관계가 접근의 차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자원의 희소에 따른 경쟁적 관계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과 선택의 기회, 연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삶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담론

일반적으로 인생관이란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 또는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를 뜻한다.⁴¹ 북한에서는 ‘인생관’을 “삶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라고 개념 정의한다.⁴² 삶에 대한 견해에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이며 삶의 보람과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등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삶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는 한 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자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며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대하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북한의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는 인생관이란 “인간의 삶(생)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⁴³이라고 개념 정의되어 있다. 인생관이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가, 참된 삶을 어떻게 누려 나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어

41-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scBtn=true&query=%EC%9D%B8%EC%83%9D%EA%B4%80>> (검색일: 2011.10.23).

42- 김창하, 『참된 삶의 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p. 11~12.

43-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 31.



면 삶을 참된 삶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은 어느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가, 어떤 생활을 참된 생활로 여기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바,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서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함께 집단의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이로써 어느 생명이 더 귀중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일본의 조총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인생관’이란 “사람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⁴⁴라고 개념 정의되어 있다. 인생관이란 “사람이 가지는 생명과 사람다운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인바, 인생관은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어떤 생활이 사람에게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이며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이라고 한다. 또한 제일 조선공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은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의 인생관’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에게 고유한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율성과 적극성, 능동성을 한껏 구현해 나간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양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취하며 능동적·적극적으로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북한주민들에게 공식화된 인생관의 개념에서는 획일주의적인 규범성과 타율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주체로서 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 개념 정의되어 있는 ‘인생관’에서는 인생관이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의 준칙으로서 규범화되어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삶의 보람과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한 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자면

44.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85), pp. 158~159.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며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가,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어떤 생활이 사람에게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이며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에서 규범성과 타율성이 배어 나온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규범적·타율적 삶’을 하나의 준칙으로서 공식화한 인생관은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이른바 ‘주체의 인생관’이다.

가. ‘주체의 인생관’: ‘규범적·타율적 삶’의 공식화

(1) 삶에서의 주체사상 구현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국가와 당의 지도원리이며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행위규범 내지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서 출발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⁴⁵하여야 한다.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이며 주민들은 각자의 삶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이 곧 ‘주체의 인생관’이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 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인류의 오랜 삶의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것으로서,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⁴⁵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44.

I
II
III
IV
V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고 한다.⁴⁶

주체의 인생관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생관, 사람중심의 인생관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며 생활의 주인도 어디까지나 사람 자신이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도 마땅히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생의 근본목적과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밝혀준 것이 바로 주체의 인생관이라고 한다. 참다운 삶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가장 행복하고 값있는 생활이란 사람의 본질적 속성(자주성·창조성·의식성)에 맞는 생활인바,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이 본질적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가치와 보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인생관의 근본문제들이 사람의 본성에 맞게 해명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⁷

(2) 수령의 영도: ‘혁명적 수령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부여되는 주체의 인생관은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한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보람 있는 삶으로 빛내려면 반드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바,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 수령을 받들어 모시는 자세와 입장, 곧 혁명적 수령관은 주체의 인생관의 최고표현

⁴⁶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6; 주체사상의 기본주제는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로 일관되어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는것”이라고 한다. 황장엽, “주체사상의 역사적 지위와 특징,” 『근로자』 (1982.1), p. 15;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참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었다고 한다.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45.

⁴⁷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44.

으로 된다는 것이다.⁴⁸ 혁명적 수령관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하는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도 강조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⁴⁹

혁명적 수령관⁵⁰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바, 인민대중은 “양심과 혁명적 의리로 수령을 받들어 모실 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서 보람 있는 삶의 길, 혁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 삶의 참된 목표를 내세우는 문제, 참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추는 문제, 인생행로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는 문제 등은 결국 수령의 영도를 받는가, 못 받는가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령을 모시는 것은 참된 삶을 위한 근본조건”이다. “가장 참된 삶의 길은 수령의 손길 아래에서만 개척”되기 때문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수령이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도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48.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p. 190.

4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9.

50.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p. 269~290 참조.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따라서 수령을 떠나서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생각할 수 없고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떠나서는 사회적 인간의 참된 삶을 생각할 수 없는 바, 이는 곧 참된 삶의 길은 수령에 의해서만 개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 창조적인 삶을 가져다 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조국은 혁명을 승리로 이끈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수령이고 수령은 곧 조국이다.⁵¹

(3) 집단 우선의 삶: ‘집단주의적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은 개인과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삶의 목적과 방도를 세우는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⁵²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운명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개척될 수 있으며 집단을 떠나서 개인은 생존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논거이다. 이와 같은 관점 및 주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구호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51- 위의 책, p. 283.

52-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pp. 167~169.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집단과 사회의 이익속에는 매 근로자들의 이익도 들어있으며 따라서 집단과 사회의 리익은 곧 근로자들 자신의 리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입니다.⁵³

북한은 주장하기를 개인주의적 인생관⁵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적인 존재로 보며 사람의 생활도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인생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목적은 개인의 이익과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두고 있다고 한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평가와 맥을 같이 하여 북한은 실존주의 인생관과 실용주의 인생관에 대한 입장 및 해석도 비판적·부정적이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람을 물질적 존재와 구별하여 말하는 ‘실존’이란 사람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립된 개별적인 ‘단독자’, 본래적인 ‘자기’를 뜻하며 실존의 중요한 속성은 불안과 공포, 절망과 염세 등이 라고 한다. 또한 실존주의자들은 오직 자기 개인의 현재 생활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순간을 즐기는 극단적인 향락주의자이며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은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극소수의 착취계급, 반동적 지배계급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실존주의는 “사람들에게 우울과 절망을 퍼뜨리며 패륜과 패덕을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현대부르조야반동철학”으로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행을 강요하기 위한 것”⁵⁵이라고 매도한다.

53.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82~583.

54. 개인주의적 인생관, 실존주의적 인생관, 실용주의적 인생관에 대한 북한의 주장 및 논리에 대해서는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pp. 171~173 참조.

I
II
III
IV
V

실존주의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제국주의멸망앞에서 공포에 떨고있는 부르주아계급의 기분을 표현하여 비관주의를 설교하는 《죽음의 철학》, 《불안의 철학》. …실존주의는 또한 극단한 비관과 절망을 고취하는 불안과 죽음의 철학이다. …(실존주의는) 사람들을 비관주의에 빠지게 하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착취사회가 빚어내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알수 없게 하며 혁명의 길이 아니라 타락과 무의미한 죽음의 길로 이끌음치게 하고있다.⁵⁶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즉 ‘효과성’을 진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는 실용주의 인생관은 “백만장자가 될 것을 꿈꾸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만을 꾀하는 자들의 생활논리이며 돈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떤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자들의 변태적인 생활태도”라고 한다. 북한에서 실용주의는 “미국식 사고방식과 생활신조”이며 “미국식생활양식을 합리화하는 현대부르주아주관관념론철학”으로 규정되어 있다.⁵⁷

요컨대 실존주의나 실용주의는 인간을 개인적 존재로 보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희생으로 하여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인생관이며, 따라서 실용주의, 실존주의는 근로대중의 참다운 삶,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는 데서 극히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근로인민대중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참다운 인생관은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만 발전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

55-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673~674.

56-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5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 468~469.

57- 위의 책, p. 485.

와 이익을 반영한 인생관은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참된 인생관을 가지는 것은 특히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 가장 보람 있는 삶의 길을 걷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사회는 누구나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갖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사회라고 한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 자체가 사람이 사회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서 발전된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하면서 행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바, 따라서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는 것이다.⁵⁸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걸어간다. 매개 사람들이 개체로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각양 각색이지만 누구도 사회적 집단을 떠나 혼자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⁵⁹

또한 북한은 주장하기를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 누구나 다 같이 잘사는 평등한 생활은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집단은 개인보다 우선하며 집단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보다 더 귀중하다.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은 집단의 행복 속에서만 꽃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회적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

58-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7.

59-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13.

할 줄 알아야 하며, 이는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적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치는 데”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사회와 집단에 이익을 주고 사회적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을 때 긍지”를 가짐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⁶⁰

나. ‘가치 있는 참된 삶’의 길

(1)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삶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집단주의적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에서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면서 사는 삶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⁶¹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⁶²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인간을 특징 짓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

60-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p. 41~42.

61-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마이니찌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96.

62-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p. 71~75.

성, 의식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이며 사람은 자주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님으로써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는 사회적 집단인바, 개개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관계는 부모의 육체적 생명과 자식의 육체적 생명의 관계와는 다른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관계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가 아닌 집단과 집단의 구성성원을 이루는 개인의 관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언제나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느바,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나도 그가 지녔던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집단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게 되며, 시대의 요구를 체현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력은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사회정치적 생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자주성을 구현하고 있는 생명이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에 비할바 없이 귀중한 제일생명이라는 것이다.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⁶³

주체의 인생관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⁶³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p. 18.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육체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과 결합될 때만 가치를 갖는다. 육체적 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위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는 데에 존재 가치가 있을 뿐이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그와 관련된 사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육체적 생명은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자연적, 생물학적 성격을 특징짓는 생명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생명은 아니다. 인간의 고유한 참된 생명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만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빛내고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값 높은 생명이며 특히 참다운 정치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녀야만 한다. 인간이 한 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되게 하려면 정치생활을 해야 하며 참다운 정치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활인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존재이며 사회적 인간으로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⁶⁴

정치적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밥만 먹고 거저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정치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일도 알고 사회의 일도 알며 그리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인민을 위하여 싸우고 낯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⁶⁵

64. 리경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기본내용과 그 확립의 근본요구,” 『철학론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p. 36.

65.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회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 된다.⁶⁶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참되게 살아나가려면 착취와 억압, 온갖 사회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 하지만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 모두가 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 일로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사업이며, 이는 곧 북한주민들의 삶의 목적(목표)으로 주어진다. 당·국가로부터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부여받고 목표달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값 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서 참된 삶의 길을 걷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 사상수양과 혁명실천을 통한 단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정치적 생명이 병들거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수양과 혁명실천으로 사상정신적 단련을 하여야 하며 사상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북한주민들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직생활과 사상교양, 노동단련 등은 이러한 논리로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생명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유지되는 생명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하고 수령이 마련한 혁명조직에 참가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고 빛나는 생명이라는 것이다.⁶⁷

사, 1981), p. 381.

66.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83.

67.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p. 175.

북한주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의 가장 높은 믿음과 사랑”인 집단의 최고대표자, 곧 수령이 안겨주는 생명이다.⁶⁸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의 전사들이 수령에 대한 헌신적 복무, 충실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빛이 난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며 집단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데서 나타나고 유지되는 생명이며, 수령은 집단의 뇌수, 최고 대표자라고 할 때, 집단의 사랑과 신임은 인민의 수령이 주는 신임과 사랑이며 집단에 대한 헌신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논리에서이다.

위에서와 같이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관점과 입장은 이른바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설명된다. 김정일이 창시했다고 하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인간의 고유한 참된 생명이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고 사회정치적 집단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견해와 관점, 입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가장 혁명적인 생명관이라고 한다.⁶⁹

(2) 행복한 삶: 자주성과 창조성 구현을 위한 투쟁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궁극목적이며 단순히 감각적인 고락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지속적인 기쁨이 가득한 삶을 가리킨다.⁷⁰ 서로 개성이 다른 만

68.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32.

69. 리경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기본내용과 그 확립의 근본요구,” pp. 41~42.

70. 김태길,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p. 51.

کم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도 다르며 마음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의 정도 역시 다를 것이다. 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행복을 의식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은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주관적 생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복과 불행이 규정된다. 행복이란 생활에 있어 어떤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욕망의 충족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삶의 요구가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⁷¹ 주체의 인생관에서는 행복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이는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⁷²

‘자주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사회적 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을 가진 사람이 그 속성에 맞는 생활, 즉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할 때에 느끼게 된다.⁷³ 이를 테면 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연의 주인으로서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보장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에서는 물질생활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사회는 물질생활 분야에서도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이는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책임지고

71.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02.

72. 김일성,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재일본조선청년 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95.

73.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92.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주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건전한 정신생활에서도 비롯된다.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식 활동을 하는 인간생활에는 정신생활이라는 영역이 있게 되는데, 따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면 정신생활의 요구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정신생활을 풍만하게 해주고 참된 행복을 안겨 주는 것은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만이 건전한 사상과 지식이며 고상한 정서이기 때문이다.⁷⁴

행복한 삶의 또 다른 의미인 ‘창조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사람이 창조적인 존재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말한다.⁷⁵ 사람은 이와 같은 창조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끊임없이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창조적 활동은 행복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적 활동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록 힘든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행복한 삶이란 위에서와 같이 자주성과 창조성 구현을 위한 투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삶의 과정은 넓은 의미

⁷⁴ 위의 책, p. 99.

⁷⁵ 위의 책, p. 99.

로 ‘투쟁의 과정’이라는 일면을 가지고 있으며 투쟁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무기를 적극 동원한다.⁷⁶ 투쟁의 대상은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극복해 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할 때, 개개인의 삶의 목표, 투쟁의 목표에 따라 투쟁의 대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 투쟁의 목표가 획일적으로 공식화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각’마저도 자유롭지 않다. 투쟁 수단, 투쟁 방법은 수령의 교시, 당 정책,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는 다음의 구호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하나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이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쟁을 독려하며 “이 구호에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량만과 희열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집약”⁷⁷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지닌 락천성의 원천”은 지도자 김정일이 지닌 숭고한 인생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영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바,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있어서 운명의 기둥, 희망의 등대였으며 자애로운 스승이었다고 한다.⁷⁸ 이는 곧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쟁은 내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도자의 인생관, 지도자의 사랑과 영도를 따르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구호이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이 구호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승리로 떠밀어 온 위력한 낙관의 구호”로 김정일이 제시한 것이며, 이로써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

76- 김태길,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 p. 48.

77-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p. 66.

78- 위의 책, p. 66.

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인민들에게 심어주었다고 한다.⁷⁹ 북한문헌에서 김정일은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며 온 겨레와 인민을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끄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행복의 창조자”이며, 인류가 알고자 했던 행복에 관한 과학적인 견해를 가장 정확하게 정립한 인물로 되어 있다.⁸⁰ 또한 북한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강성대국의 승리를 굳게 믿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에 있어 진정한 영예는 한 생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에 바치는 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노동계급의 당이 내놓은 정책과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투쟁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며, 이는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고 혁명투쟁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노동당원이 되는 것은 더 없는 영예이며 자주성과 창조성 구현을 위한 혁명 투쟁에서 당원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가장 큰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⁸¹

(3)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삶의 목표, 이상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의 요체는 ‘수령의 영도’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다.”⁸²라고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만 북한주민

79. 위의 책, p. 75.

80. 위의 책, pp. 1~3.

81.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51.

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한 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방도이기 때문에 주체의 인생관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수령의 위대성’으로 인해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에서는 ‘수령을 모시는 자세’⁸³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령은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하는 절대적 권위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한 당위성을 띤 절대 필요조건이다. “수령에게 충성을 다 할 때만이 진실로 당과 혁명,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충실히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이익을 체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수령의 사상에 집대성되고 수령의 영도 아래 실현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 아래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싸울 때만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나라와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령이 베풀어 주는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덕이고 의리로 되어 있다.

북한문헌을 통해 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⁸⁴ 첫째, 무엇보다도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이다. 이는 “수령을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을 위해서는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수령에게 운명을 맡기

⁸²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34.

⁸³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p. 291~301 참조.

⁸⁴ 위의 책, pp. 294~300.

고 수령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둘째,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고 보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때 수령에게 충실할 수 있으며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된다. 하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자손손 이어서 수령과 그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수령의 후계자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대를 이어 걸어갈 수 있으며 자신만이 아니라 후대들도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혁명운동의 실천과 사람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된 움직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삶을 위해 가져야 할 숭고한 양심과 의리가 있다. 다른 아닌 수령에 대한 혁명적 양심과 의리이다. 수령에 대한 양심과 의리는 당과 혁명에 대한 양심과 의리,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양심과 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의 문학작품인 장편실화 『삶의 좌표』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삶의 목표로 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언제 봐도 지배인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로 사는 사람이었다. 한걸음을 걸어도 하나의 생각을 해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색과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삶을 이

어가는 지배인이기에 언제나 자기들의 거울이 되고 스승이 되었다.⁸⁵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사회주의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며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역세계 굴함없이 걸어가는것은 그의 투쟁의 목표이며 삶의 전부이다.⁸⁶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람의 가치는 그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⁸⁷ 사람의 가치는 그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혁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고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되며,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할 때 가장 높고 빛나는 가치를 갖게 되는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곧 주체형의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 량만과 락관주의 등의 품성을 지닌 사람”⁸⁸을 일컫는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보람 있고 참된 삶은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며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을 통해 구현된다. “본질에 있어서 인간개조사업”⁸⁹인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의 사상적

85- 오경희, 『삶의 좌표』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9), p. 49.

86- 위의 책, pp. 1~2.

8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9.

88- 류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 (1991.1), p. 39.

개조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이름난 발명가, 과학자, 혁신자, 음악가, 체육인 등이 되는 것은 이상(理想)으로 지녀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⁹⁰ 특히 청년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의 목적과 잇닿아 있는 희망을 이상으로 지녀야 한다. 이를 테면 혁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을 꾸리고 공장을 건설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청년들이 가져야 할 훌륭한 희망이며, 이런 희망이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이상”이고,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 다하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근본목적이며 최고의 행복”인바, 김정일에게 “충성 다하는 길에 영원히 죽지 않고 빛나는 값높은 삶”이 있다는 것이다.⁹¹

청년들이 지녀야 할 참된 이상이란 우리 혁명의 목적과 잇닿아 있는 우리들의 가장 높고 훌륭한 희망이어야 하며 그것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당과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꽃 피나는 이상이어야 한다.⁹²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가치와 보람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데 있다. 우리 학생청년들은 모두가 김혁, 김책형의 충신으로 자라나 위대한 령도자 김

89-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02.

90-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38; 이상이란 인간이 희망하는 최고의 목적, 자기가 꼭 달성하려고 하는 최고목적을 뜻함. 위의 책, p. 37.

91- 위의 책, p. 39.

92- 위의 책, p. 38.

정일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값있게 바쳐야 한다.⁹³

(4) 미래에 대한 낙관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지닌 품성 가운데 하나가 혁명적 낭만과 낙관주의이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혁명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혁명가라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생의 보람을 느끼는 데 있어 중요한바,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낙천적으로 살려면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낙관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의의를 한껏 구현하기 위해 등장한 구호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높이 발휘된 인민의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이다.

우리는 혁명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배 고플 때 웃으면 배 고프줄 모르고 힘들 때 웃으면 힘들지 않으며 어려울 때 웃으면 힘과 용기가 용솟음치는 법이다. 우리는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심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⁹⁴

93. 위의 책, p. 43.

94. 위의 책, p. 46.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라는 구호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삶을 강조한다. 자기는 비록 낙을 볼 수 없어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 몸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혁명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지녀야 할 또 하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과 배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낙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배심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는 것”⁹⁵이다. 지도자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 주고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삶’의 보람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노동은 곧 직업을 뜻한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직업이란 그것이 사회를 위하여 유용한 것인 한에서는 노동이란 말로 환원할 수 있는바, 노동의 이리저리한 종류가 결국 구체적인 직업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⁶ 이와 같은 주장은 자아실현을 위한 일본위보다는 사회적 역할분담이라는 사회분위의 직업관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직업’에 대한 북한의 공식 개념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직업’이란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의 일정한 분야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의 종류”⁹⁷를 말한다. 또한 이와 같이 정의되는 직업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사회적 의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주어진다. 이는 북한의 한 소설작

95. 위의 책, p. 47.

96.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42.

97.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82.

품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 새 세대 여자 ‘혜성’의 아버지가 딸에게 직업(일)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일이라는건 재미루 하는게 아니구 사회적의무이니까. 글썄 저쪽(외국)에서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⁹⁸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의 노동, 그 구체적 표현인 직업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이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자유로운 노동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참으로 보람 있고 값있는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⁹⁹ 또한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는 착취하는 사람도 착취를 당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노동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보람 있고 값있는 삶을 위한 것으로 된다고 한다.

착취사회에서 노동은 천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어왔으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영예롭고 즐거운 일로 되고 있습니다.¹⁰⁰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노동은 법적 의무이며 권리이다. 또한 모든 주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98. 최영하, 『우리의 집』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p. 229.

99.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45.

100.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98.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사회주의헌법제70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노동에 참가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사회주의노동법제4조·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적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사회주의노동법제3조).

‘주체의 노동관’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 농민들은 노동과정을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성을 느끼게 되며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사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다”¹⁰¹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른바 ‘사회를 개조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¹⁰¹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4.

Ⅲ.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



1. 북한주민의 ‘식민주’ 실태

현재 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표현 대신 ‘식민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층면접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대다수가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식생활을 꼽고 있다. 북한이 의식주를 식민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4년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에 우선함을 지적하며 의식주 대신 ‘식민주’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출판물과 공식 문건에서 의식주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대신 ‘식민주’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한 문헌에 의하면 2002년 9월 28일 김정일이 기존의 ‘식민주’ 용어를 다시 ‘의식주’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¹⁰² 하지만 이 장에서는 심층면접의 결과 현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먹는 문제부터 다루고자 한다.

배급제를 통해 평준화되었던 북한주민의 ‘식민주’ 생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장과 장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계층적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한국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5년을 전후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다양해졌고 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주민의

¹⁰²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186.

식의주 생활 실태를 계층적 분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¹⁰³ 또한 북한 주민의 상·중·하류층의 ‘식의주’ 생활의 특징을 분류해보고, 식의주 생활의 계층적 분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잠정적 결론이지만 국내적으로 2000년 이후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은 생존 및 생물학적 욕구는 물론이고 문화 및 환경적 욕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은 이제 양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질적 만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안에는 여전히 생존적 위협 또는 양적 부족에 따른 삶의 불균형 구조가 동시에 내재한다.

가. 식생활의 계층적 분화 요인

(1) 내적 요인

전반적 배급제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배급을 통해 해결되는 집단과 시장이든 개인농이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집단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엘리트 특수층과 군수산업 및 기간산업 종사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후자에 속한다. 배급에 의한 식량공급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고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급수는 1등급(900g)~9등급(100g)까지 있으며, 1등급은 유해직종 및 중노동 종사자이고 일반노동자는 3급(700g) 배급제에 해당되며 연로보장자나 가정주부 등은 7급(300g)에 속하고 9급(100g)은 1세 이하의 유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급의 급수와 1일 식량공급량은 현

¹⁰³ 주거생활을 분석하는데서는 심층면접조사외에도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보고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재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식량부족으로 인해 정량이 지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5일마다 공급되던 시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집단에 속한 주민이라도 일부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

북한의 평균적인 가정에서의 기본 식단은 쌀과 강냉이가 섞인 잡곡밥이었다. 구성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쌀과 강냉이를 5:5 정도로 섞어 먹을 수 있는 가구는 중류층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북에서는 강냉이밥만 먹고 살아도 잘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강냉이와 입쌀을 5:5 정도로 섞어서 먹습니다. 배급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강냉이와 입쌀을 5:5로 섞어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사례37)

하지만 2003~2005년을 기점으로 소득격차에 따라 북한주민의 삶에서 다양한 식생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III-7>에서도 나타나듯 상류층 주민의 경우 주식의 구성이 강냉이밥 위주에서 쌀밥 중심으로 옮겨갔으며, 식생활에서 부식물이 중요해졌으며, 또한 기호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부 중상류층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식(웰빙식)’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건강식이라 함은 쌀밥과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 오곡밥과 같은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을 일부러 먹는 경우를 말한다.

2003년부터는 건강을 생각하여 잡곡 위주로 식사를 하였다. 먹는 문제가 어려운 평민들이야 100% 입쌀 먹기를 희망하지만 세끼 걱정하지 않을 정도 사는 사람들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잡곡 식사를 한다. 쌀보다 잡곡 가격이 더 비

싸다. 특히 오곡밥에 들어가는 수수, 조 같은 것들은 쌀보다 비싸다. 난 개인적으로 채소를 좋아해 반찬은 주로 채소를 먹었다. 못사는 사람들이나 육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줌 산다는 사람들은 육고기보다 생선을 주로 먹는다. 신선도가 좋은 것은 육고기보다 생선이 더 비싸다. 남한에 오니까 북한사람들의 사는 실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물론 고난의 행군때는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지나면서 북한도 많이 변했다.(사례1)

혜산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 김○○에 의하면, 주민들은 2005년 전까지는 잡곡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쌀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잡곡밥은 소화가 되지 않아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혜산은 중국산 쌀이 장마당(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황해도(북한의 곡창지대)보다 쌀이 더 많다.(사례17) 이것은 북한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서 식량 생산지에 대한 접근성보다 식량 유통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북한주민의 식생활 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평양에서 살았던 30대의 북한이탈주민 이○○는 아버지가 중앙당 고위급 간부여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창광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곳은 한국사회에서 강남과 같은 지역이다. 식사를 ‘건강식(웰빙)’ 음식 위주로 먹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당시 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집에서는 일년에 400~500kg의 식량을 한 번에 사놓고 먹었지만, 쌀을 씻어서 쌀뜨물을 밖에 내놓으면 못사는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15~20층 아파트에서도 돼지를 키우며 함께 살기 때문이다.(사례4) 반면, 평안남도 대안군에 살았던 정○○씨의 식생활은 매우 대조적이다.

봄에는 산나물을 먹고, 양배추는 알만 팔고 밭에 버려진 걸겹데기를 끓이고 토끼풀을 먹었습니다. 옥수수가루를 기계로 갈면

기계에 붙는 것이 많아 그게 아까워 직접 절구질을 해서 먹었습니다. 다섯 식구가 먹는데 옥수수가루를 두 세 숟가락 넣어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1999년 12월까지 그렇게 먹고 지내다 왔습니다.(사례36)

위에서 인용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장사’이다. 앞서 인용한 건강식을 추구할 정도로 풍족한 식생활을 했던 사람은 바다를 끼고 있는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수산물을 내륙으로 가져가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 전직 상업관리소 직원이었고, 후자에 인용한 옥수수죽도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은 아직 장사라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제강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직업과 시장의 연결고리에 따라 식생활에서 계층적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중상류층 주민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식생활 구조가 다변화되고 주식보다 부식물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는 두 가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맥락은 2003년도에 종합시장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지침이 나왔는데 이는 북한 사회 전역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자생적 시장에 대한 사후적 합법화 또는 제도화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만큼 시장은 북한주민의 식생활 개념을 바꾸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 맥락은 정부 정책적 차원인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먹는 문제’ 해결을 단순히 증산 차원을 넘어 식생활 구조의 전환과 연계된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식 소비를 줄이고 부식물 소비를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식생활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상징적으로 김일성 시대는 ‘흰쌀밥에 고깃국’이 지향되었다면, 김정일 시

I
II
III
IV
V

대는 ‘고깃국에 흰쌀밥’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 이르면 북한당국은 농업부문에서 닭, 오리공장, 염소목장, 돼지공장, 메기양식장 등의 신설 또는 ‘개건현대화’에 주력하였다.¹⁰⁴

북한주민의 식생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칼로리 섭취와 관련된 통계적 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식량을 통해 섭취하는 에너지는 식품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얻게 되며, 칼로리의 섭취에 있어서는 양적인 충족뿐 아니라 칼로리를 구성하는 이들 영양소의 균형있는 섭취가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칼로리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은 각각 총칼로리의 55~75%, 10~15%, 15~3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을 면접조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식생활에 적용했을 때, 대체로 탄수화물 급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연숙(2010)의 연구에서도 북한인구의 과반수가 성인의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비율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 식량문제가 표면화된 1995년 이후 탄수화물 칼로리의 비율이 3~4%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단백질은 1%, 지방은 2%가량 섭취가 감소하였다고 언급하였다.¹⁰⁵

통계청의 ‘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표 III-1>에서 나타나듯, 북한주민 1인당 1일 칼로리 공급량은 1991년 2,378kcal에서 2007년 2,087kcal로 291kcal가 줄었다. 단백질 공급량의 경우, 1991년 74.5g에서 2007년 57.4g으로 17.1g이 줄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량과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량의 불균형

104. 정은미, “대북식량지원의 사회적 분배효과와 ‘순환적’ 농업생산구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12호 (2009), p. 120.

105.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27.

이다. 1991년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량은 59.2g,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은 15.3g으로 둘 간의 격차가 43.9g이다. 반면 2007년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 공급량은 46.6g,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은 10.7g으로 둘 간의 격차가 35.9g으로 1991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성 단백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방질의 공급량 경우도 동물성 지방질 공급량보다 식물성 지방질 공급량이 더 많다. 흥미로운 점은 <표 III-1>에서 보이듯 2005년을 기점으로 칼로리, 단백질, 지방질 공급량 모두에서 동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 부식물 소비, 특히 육류 소비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생활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접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상의 통계적·경험적 증거들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북한의 농업과 시장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북한주민의 실제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일정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 III-1 북한주민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

연도	칼로리(Kcal)			단백질(g)			지방질(g)		
	총량	식물성	동물성	총량	식물성	동물성	총량	식물성	동물성
1991	2,378	2,145	233	74.5	59.2	15.3	46.0	27.9	18.2
1992	2,259	2,078	181	68.7	56.1	12.6	38.9	25.2	13.7
1993	2,225	2,063	162	65.8	53.9	11.9	38.4	26.5	11.9
1994	2,275	2,134	141	65.6	55.6	9.9	37.4	26.8	10.6
1995	2,222	2,102	120	61.2	52.9	8.4	35.6	26.6	9.1
1996	2,116	2,004	112	59.6	51.7	7.9	32.8	24.4	8.4

연도	칼로리(Kcal)			단백질(g)			지방질(g)		
	총량	식물성	동물성	총량	식물성	동물성	총량	식물성	동물성
1997	2,130	2,037	93	59.6	52.9	6.8	34.0	27.2	6.8
1998	2,105	1,997	108	57.3	50.1	7.2	32.9	24.6	8.3
1999	2,134	2,012	122	58.1	50.2	7.9	31.8	22.3	9.5
2000	2,131	1,999	132	61.0	52.2	8.8	34.8	24.6	10.2
2001	2,093	1,949	143	59.2	49.4	9.9	34.2	23.3	10.9
2002	2,125	1,966	159	61.2	50.8	10.3	36.0	23.6	12.4
2003	2,126	1,975	151	58.7	49.0	9.7	35.2	23.4	11.8
2004	2,157	2,005	152	59.7	49.9	9.7	36.3	24.5	11.8
2005	2,175	2,018	157	59.0	48.7	10.3	35.9	23.7	12.2
2006	2,177	2,019	158	58.2	47.8	10.4	35.3	23.0	12.3
2007	2,087	1,925	162	57.4	46.6	10.7	36.1	23.6	12.5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www.kosis.kr/bukhan/>>.

이상에서 살펴본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이나 시장억제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은 그 노력의 효과를 단기간 내에 상쇄시키고 있다. 심층면접을 했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과 직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화폐개혁 이후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졌음을 호소하였다. 평양에서 교사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 송○○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육고기와 물고기를 끊기지 않고 먹을 정도로 생활 수준을 누렸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잠시 강냉이죽을 먹기도 하였지만 개별과외를 하여 번 돈(일주일에 10~20달러 수준)으로 쌀밥은 먹을 수 있었다. 그에 의하면 평양시민의 50% 정도는 입쌀을 먹고 살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을 오가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쌀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사는 게 더 팍팍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화폐개혁은 장사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와 북한사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서, 못사는 사람들은 화폐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못살지만 잘살던 사람들은 화폐개혁 이후 못살게 되었다.(사례19)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었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사례24)

(2) 외적 요인

시장을 통한 차등적 기회 획득과 농업 정책이 북한주민의 식생활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이었다면, 중국의 친척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 가족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등과 같은 외적 요인도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양강도 헤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이○○는 전형적인 하층민의 식생활을 했다. 쌀밥은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날 정도에만 먹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강냉이밥을 주로 먹었다. 개인농사를 조금 짓고 고철을 팔아서 번 돈으로 강냉이를 사서 하루 세끼를 해결하였으며, 부식물의 경우 육고기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명절 때 생선을 먹고 주로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해 먹었다. 텃밭에서 나온 채소의 경우도 상품(上品)의 경우는 시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사오는 데 쓰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질 나쁜 채소만을 자가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이가 한국에 와서 돈을 보내준 덕택에 결혼 후 처음으로 장을 직접 담글 수 있었고 생활 형편도 조금 나아질 수 있게 되었다.(사례9) 온성에 살았던 60대의 유○○ 역시 가족 중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간 사람은 돈을 보내주어서 잘살게 되었다고 말했다.(사례16)

청진에 살았던 강○○은 한 달에 두세 번 돼지고기를 먹거나 고춧가루를 풍족하게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었으며 맥주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생활을 하였다. 그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사례25)

이처럼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원조를 하는 경우와 같은 새로운 현상은 탈북자 2만여명 시대에 ‘경제이민’의 성격을 가진 탈북현상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에는 뭐 나오기 직전에 저는 우리 딸이 여기 한 4년 전에 먼저 왔거든요. 와서 우리 큰아이가 돈도 한 200만원 보내고 제가 또 밀천도 좀 있는 거 가지고 저는 장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그렇게 뭐 그리운 거는 별로 없었어요. 밥도 뭐 이밥을 먹고(사례14)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주민의 현재 식생활 실태는 통일 이후의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키는 서독주민에 비하여 작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일 이후에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통일 후 10년이 지난 2002년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여전히 신장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신장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⁶ 동서독의 사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 점차 소득계층의 분화에 따라 소득 하위층의 영양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간의

¹⁰⁶- Guido Heineck, "Height and weight in Germany, evidence from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02," *Economics and Human Biology*, Vol. 4, issue 3 (December 2006), p. 375.

신체적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계층적 상징으로서 의복

(1) 구매력 차이에 따른 의복 소비의 분화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배당된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¹⁰⁷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 배급은 식량보다 먼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의복을 개인이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에 익숙하다.

먹는 수준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옷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사례20) 북한주민에게 어떤 옷을 입는가는 생필품으로서의 도구 그 이상인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동시에 드러내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먹는 것에 비해 입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잘사는 집은 새옷을 입고 못 먹는 집은 중고옷을 입는다.(사례15) 조정아 외(2008)의 연구가 상류층의 의생활의 초점이 ‘멋’이라면, 중류층의 의복 선택 기준은 ‘싼 가격’과 함께 ‘편안함’이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¹⁰⁸

또한 원산지에 따라서도 소득계층이 구별된다. 상류층은 비록 중고 옷이라도 일본산과 한국산을 주로 소비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산 의류가 일본산 의류를 대체하는 경향이 흥미로운 변화이다. 중

¹⁰⁷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31.

¹⁰⁸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80.

류층은 주로 중국산 새 옷을 소비하며, 가끔 중고 일본산과 한국산을 구매하기도 한다. 하류층은 시장에서 새 옷을 구입하지 못하고 남들이 입었던 옷을 입거나 중고 옷을 사 입는다.

199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민족전통’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조선옷(한복)’ 차림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 관련 방송 영상을 통해 북한여성들이 주요 국가 행사나 국빈 환영식이 있을 때 대체로 ‘조선옷(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또한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조선옷(한복)’을 입고 나온다. 이처럼 ‘조선옷(한복)’은 우리 남한인의 눈에는 북한여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의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층면접 결과 북한여성이라면 모두 ‘조선옷(한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일반 노동자가 ‘조선옷(한복)’을 구입하려면 1년 동안 번 돈을 써야 할 정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여성은 결혼할 때 ‘조선옷(한복)’을 장만하여 평생 입게 된다. 국빈 환영행사나 국가 명절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평양시민 경우에는 ‘조선옷(한복)’을 자주 입지만 다른 지역의 여성들은 선거 때 입는 경우 외에는 거의 입을 기회가 없다.

(2) 의생활에서의 한국산 영향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가 퍼져나가면서 의생활에서 한국산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적 세련미를 중시하는 북한주민에게 의식주 생활에서도 의생활 부분에서 한국산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 남한산 새옷과 화장품은 마치 한국사회에서 명품을 선호하는 것만큼이나 문화적 자본의 효과를 지닌다.

장마당에는 중국산, 남한산, 북한산 옷이 모두 판매되고 있다. 남한

산 옷이 제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인기가 가장 많다.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올 때도 한국산 옷을 입고 있었고 한국 상품은 일체 세관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가 모두 제거된 채 수입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상표가 제거되었어도 옷 디자인과 원단 소재만으로도 한국산 옷임을 모두 알 수 있다.

외적 과시효과로서 의복만큼이나 화장품의 기능도 크다. 화장품의 경우 북한산이나 중국산의 경우 질이 좋지 않아 북한여성들이 잘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한국산 화장품이나 옷은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를 모두 제거하거나 중국상표로 바꿔달아 세관을 들어온다. 그리고 세관을 통과하면 제거했던 상표를 다시 바꿔 달아 팔며 이렇게 북한주민들이 한국산 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일부 장사꾼들은 가짜 한국상표를 붙여 속여 파는 행태까지 발생한다.(사례25)

한국산 소비는 의류와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액세서리까지 포함된다. 중국 단둥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대상으로 무역사업도 하고 있는 안○○씨의 설명에 의하면, 고위층을 제외하고 이들은 대개 일본산이나 유럽산을 사용한다-중산층 이상이면 거의 화장품은 한국산을 소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들여가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14K, 18K의 액세서리를 한국의 단가 그대로 팔아도 한국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북한 소비자에게 매우 인기라고 한다. 특히 주재원 대표 부인들이 선물용으로 3~4개씩 사는데 개당 20만원 이상 된다고 한다. 또 안○○씨는 직접 남대문 시장에서 카달로그를 4권 정도를 얻어 들고 갔는데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 상인이 카달로그를 보고 직접 액세서리를 주문하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 소비자들은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세공 수준

I
II
III
IV
V

을 보고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인지 남한 사람이 만든 것인지 잘 구분한다고 한다.¹⁰⁹

이처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산 옷과 화장품, 액세서리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옷을 입는 사람이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남한의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면서 세련미의 기준이 한국산 옷, 화장품, 액세서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적 기호로서 한국산을 선호하는 것도 있으며 동시에, 질적 우위도 크게 작용한다. 북한산 화장품은 물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이 별로 좋지 않아 잘 쓰지 않는다.(사례17)

평양에서 연예인들도 한국산 중고 옷이라면 질이 좋기 때문이다 사요. 그리고 디자인이 한국 옷처럼 완전 유별나잖아요. 중국산 신품 새 옷보다 한국산 중고로 나오는 게 더 비싼 것도 있어요.(사례5)

(3) 밥보다 ‘옷’: 계급의 위장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면접하면서 의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북한주민들 가운데 왜 쌀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중고 옷이라도 한국산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가이다. 못사는 사람일수록 옷치장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돈 없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사례4) 일종의 계급 위장의 수단인 것이다.

남한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좀 다른데, 남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하게 의생활이 좋아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북

¹⁰⁹. 안○○(단동, 30대), 2011년 6월 29일 면접조사.

한도 역시 같아요. 높은 급의 사람들은 옷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은 열끼를 절약해서 열끼를 한순간씩 절약해서 옷을 사입겠다는게 백성들의 심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옷을 잘입는 사람, 못입는 사람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게 옷입는 차이를 가지고 크게 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옷 입는 차이에 따라 그 사람의 몸값이 많이 조절되죠.(사례34)

미국의 경제학자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Leisure Class*)에 의하면 유한계급은 자신들의 소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이 가지는 소비재로 그들과 다른 계층과 구별하려고 한다. 북한사회에는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비욕구의 다양성이 소비의 계층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사회에 생계형 소비와 과소비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을 식량난이라는 상황 인식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북한사회를 지나치게 단일적이거나 동질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 경각심을 준다.¹¹⁰

북한사회에 유한계급이 등장했다고 단언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차별적인 소비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하려는 문화자본적 욕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를 가장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의복이다.

북한에서도 옷 잘입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중국산 옷은 너무 질이 나쁘고 가끔씩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도 봤는데 디자인이 별로 세련되지 않아 나는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 옷을 입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화장품이나 가끔 한국 화장품을 썼다. 나는 중국산이나 국산은 쓰지 않았다.(사례1)

¹¹⁰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 217.

다. 주거생활

(1) 일반적인 주거생활 실태

북한에서는 주거단위 또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어, 1호는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으로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에게 배정된다. 2호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로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에게 배정된다. 3호는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에게 배정되는데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이다. 4호는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 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에 배정되는데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베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이다. 마지막으로 특호는 독립식 다층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으로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이 배정받는다.¹¹¹

일반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은 일반적으로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¹¹² 따라서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구)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일이다.

하지만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총 가구수는 약 588.7만이며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 역시 약 588.7만으로 동일해 북

¹¹¹ 북한의 주택유형과 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p. 233 참조.

¹¹² 위의 책, p. 233.

한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시도 행정구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 가구 중 원거가구는 99%에 이르고, 동거가구는 1.0%에 불과하다. 특히, 평양시는 동거가구의 비율이 1.9%로 타지역에 비해 주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또한 함경남도과 황해남도의 동거가구의 비율도 북한 전체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유형은 크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연립주택으로 약 588만 가구 중에서 약 258만 가구가 거주하여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단독주택으로 약 198만 가구가 거주하며 33.8%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약 126만 가구가 거주하며 21.4%를 차지하고 있다.¹¹⁴ <표 III-2>에서 나타나듯, 도시와 농촌의 주택유형을 비교해보면 도시의 경우는 연립주택(49.5%), 아파트(32.5%), 단독주택(17.2%) 순서로 거주 가구수가 많으며, 농촌의 경우는 단독주택(59.4%), 연립주택(35.1%), 아파트(4.2%)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보급률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파트는 도시화의 상징적 주택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별 주택유형 보급률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평양시로 54.7%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비중이 의외로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자강도가 20.6%, 강원도 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낮은 곳은 평안남도(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안북도(42.8%), 황해남도

¹¹³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p. 234.

¹¹⁴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2009), p. 230.



(42.7%) 순서로 비중이 크며 두 지역 모두 별방지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연립주택의 경우 양강도가 65.2%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함경북도 58.2%로 나타났다.

표 III -2 북한 지역별 주택유형과 거주세대

(단위: 세대수, %)

지역	총거주세대수	주택 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도시	3,579,626	616,955 (17.2)	1,773,414 (49.5)	1,164,767 (32.5)	24,490 (0.7)
농촌	2,307,845	1,371,460 (59.4)	811,021 (35.1)	96,942 (4.2)	28,422 (1.2)
양강도	183,200	41,775 (22.8)	119,483 (65.2)	20,706 (11.3)	1,236 (0.7)
함경북도	587,844	146,828 (30.0)	342,170 (58.2)	95,263 (16.2)	3,583 (0.6)
함경남도	777,207	275,922 (35.5)	354,756 (45.6)	139,654 (18.0)	6,875 (0.9)
강원도	367,938	104,844 (28.5)	186,553 (50.7)	70,000 (19.0)	6,541 (1.8)
자강도	327,412	130,695 (40.0)	127,516 (39.0)	67,366 (20.6)	1,835 (0.6)
평안북도	688,583	294,655 (42.8)	283,423 (41.2)	103,873 (15.1)	6,632 (0.9)
평안남도	1,027,727	266,166 (25.9)	554,626 (53.9)	201,742 (1.9)	5,193 (0.4)
황해북도	535,511	384,392 (71.8)	98,679 (18.4)	48,195 (9.0)	4,245 (0.8)
황해남도	578,280	247,334 (42.7)	251,035 (43.4)	70,238 (12.1)	9,673 (1.7)
평양	813,769	95,804 (11.8)	266,194 (32.7)	444,672 (54.7)	7,099 (0.8)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p. 230~236 재구성.

주택유형별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2008년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는 3.98명, 연립주택 3.89명, 아파트 3.91명, 기타 3.91명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모든 주택유형에 대하여 평균 가구원수가 도시 3.90명, 농촌 3.97명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평균 가구원수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¹¹⁵ 가구원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은 주거나 주택환경의 질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농촌과 도시를 합한 북한 전체에서 평균 2.0개의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가구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사용방수는 평균 0.06개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계산식대로라면 가구원수가 8명이라 하더라도 방은 2.49개에 불과해 북한의 주택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⁶

(2) 주거시설의 인프라 실태

주거생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난방 및 취사 등과 같은 주택의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의 주거단위별 식수 공급원천을 보면, <표 III-3>에서 보이듯 집안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비중이 85.0%이다. 이를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89.5%에 이르지만, 농촌에서의 비중은 78.0%에 불과하다. <표 III-3>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많이 진척된 시도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집안 수도를 식수 공급원천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집안의

¹¹⁵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 233.

¹¹⁶ 위의 책, p. 238.

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7%로 평양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78.4%로 황해남도였다.

● 표 III-3 식수 공급원천 유형과 구성비(2008년)

(단위: 가구수, %)

음료수 공급원천	전체	도시	농촌
합계	5,887,471(100.0)	3,579,626(100.0)	2,307,845(100.0)
집안 수도	5,003,904(85.0)	3,204,368(89.5)	1,799,536(78.0)
공동 수도	133,618(2.3)	81,425(2.3)	52,193(2.3)
펌프 우물	501,501(8.5)	202,941(5.7)	298,560(12.9)
보호막이 있는 우물	159,562(2.7)	59,273(1.7)	100,289(4.3)
보호막이 있는 샘물	56,801(1.0)	19,702(0.6)	37,099(1.6)
기타	32,085(0.5)	11,917(0.3)	20,168(0.9)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52 재구성.

이상의 통계 데이터가 보여주듯 전국의 상수도화 정책의 결과 북한의 상수도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층면접을 해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물 문제이다. 50평대의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생활 수준이 상층에 속하던 북한이탈주민 강○○의 경우도 식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깨끗한 물을 거의 먹지 못하고 제대로 정수 처리 되지 않은 오염된 물을 먹어야 했다.(사례25)

물 문제는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과 전력 부족이라는 인프라적 요인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 물은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2~3시간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시간제 식수 공급도 겨울철에는 동파로 중단되기 일쑤이며,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 우물이 있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백 미터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하기도 한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간 때마다 한 시간씩 양수기로 물을 퍼줬어요. 뭐 어떤 때는 겨울에 동파 얼어서 수도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전기가 없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공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되는 시간에는 수도물을 집에 있는 통이랑 통은 다 받아서 놔야 그거 가지고 한주일 동안을 살죠. 겨울에는 물 고생 엄청 많이 해요. 수도들이 얼고 옛날 관들로 해놔서 터지고 뭐 특히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요.(사례5)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식수 부족에 대한 다양한 대응 행태들도 등장하였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거나 개별 배터리를 이용한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 올려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¹¹⁷ 또한 돈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마시기도 한다. 특히 평양에서는 생수를 사 먹는 것이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사례1)

다음으로 화장실 시설 상태를 살펴보면,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표 III-4>에서 나타나듯 북한의 화장실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이 대단히 낮은 편이다. <표 III-4>를 보면, 개인 수세식 화장실은 58.3%, 공동 수세식 화장실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 차이는 더욱 크다. 도시에서 수세식 화장실(개인+공동)은 67.9%, 농촌에서는 46.2%만이 수세식 화장실이

¹¹⁷ 사리원에서 살았던 김○○씨는 전기부족으로 수도물이 간헐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창고에 우물을 개인적으로 파서 양수기를 달아 끌어올려 사용했다고 한다. 2011년 4월 20일 면접조사.



다. 재래식 화장실의 비중이 전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의 비중이 53.8%에 달한다. <표 III-4>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행정구역별로 보면 평양시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인프라시설이 좋아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열악한 지역은 황해남도로 55.1%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식수 공급원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해남도의 경우는 집안 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III-4 화장실 유형 현황과 구성비(2008년)

(단위: 가구수, %)

화장실 유형	전체	도시	농촌
합 계	5,887,471(100.0)	3,579,626(100.0)	2,307,845(100.0)
개인 수세식	3,434,306(58.3)	2,374,540(66.3)	1,059,766(45.9)
공동 수세식	65,579(1.1)	58,629(1.6)	6,950(0.3)
개인 재래식	2,045,134(34.7)	858,412(24.0)	1,186,722(51.4)
공동 재래식	342,452(5.8)	288,045(8.0)	54,407(2.4)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54 재구성.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난방 방식은 <표 III-5>에서 보이듯 석탄(연탄)과 목탄 난방이 각각 47.1%와 45.1%로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목탄 난방(66.8%), 연립주택은 석탄(연탄) 난방(54.1%), 아파트는 석탄(연탄) 난방(60.0%)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보면, 도시는 석탄(연탄) 난방의 비중이 64.3%로 가장 많고, 농촌은 목탄 난방의 비중이 7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5 주택별 난방 방식 현황과 구성비(2008년)

(단위: %)

난방 방식	총거주 세대수	주택 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앙/지역 난방	4.5	0.1	0.1	20.5	3.1
전기 난방	0.7	0.2	0.3	2.3	1.3
전기 난방+기타	0.9	0.1	0.2	3.9	0.3
석탄 보일러/연탄	47.1	30.2	54.1	60.0	30.0
목탄	45.1	66.8	44.2	12.5	53.3
기타	1.7	2.7	1.1	0.7	11.9
도시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앙/지방 난방	7.3	0.2	0.1	22.2	6.8
전기 난방	1.0	0.3	0.3	2.4	2.4
전기 난방+기타	1.3	0.1	0.2	3.5	0.6
석탄 보일러/연탄	64.3	57.2	68.0	62.6	53.3
목탄	25.7	41.5	31.0	9.0	33.1
기타	0.5	0.7	0.4	0.4	3.8
농촌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앙/지방 난방	0.0	0.0	0.0	0.2	0.0
전기 난방	0.2	0.1	0.3	1.7	0.4
전기 난방+기타	0.4	0.1	0.1	8.9	0.1
석탄 보일러/연탄	20.5	18.1	23.9	29.3	9.9
목탄	75.3	78.2	73.1	55.2	70.7
기타	3.5	3.6	2.6	4.7	18.9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56 재구성.

마지막으로 취사연료 현황을 보면, <표 III-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소수의 가구에서만 전기(1.3%), 가스(2.8%), 석유(1.8%)를 취사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석탄(46.1%)과 나무땃감(46.9%)을 취사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 지역을 비교해보면, 도시는 석탄을 취사연료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63.4%로 가장 많고, 농촌은 나무땃감을 취사연료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76.9%로 가장 많다. 이러한 도-농간의 취사연료 비중은 난방 방식의 비중과 동일하다. 이처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석탄과 목재를 난방과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 표 III -6 취사연료 현황과 구성비(2008년)

(단위: 가구수, %)

취사연료 유형	전체	도시	농촌
합계	5,887,471(100.0)	3,579,626(100.0)	2,307,845(100.0)
전기	79,057(1.3)	65,814(1.8)	13,243(0.6)
가스	167,462(2.8)	157,228(4.4)	10,234(0.4)
석유	103,091(1.8)	90,927(2.5)	12,164(0.5)
석탄	2,714,511(46.1)	2,271,128(63.4)	443,383(19.2)
나무땃감	2,758,400(46.9)	984,407(27.5)	1,773,993(76.9)
기타	64,950(1.1)	10,122(0.3)	54,828(2.4)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62 재구성.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북한의 대부분 가구들에서는 연탄과 목재가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상류층은 중앙온수난방이나 석유, 가스를 사용하고, 중하류층은 연탄과 나무를 사용하였다. 북한의 아파트는 평양의 일부 고급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연탄이나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아궁이와 온돌형태인 난방시설로 되어 있다.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평양의 중앙난방식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의 주거형태에서는 아궁이가 달려 난방과 취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연탄의 경우 약 2톤 정도가 소요되며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 돈으로 12~13만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는 난방 및 취사 방식에서도 계층적 분화로 나타난다. 최근 신흥부유층에게 LPG가 새로운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신포에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던 현○○는 2007년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온 LPG통 가스를 사용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아파트 한 동(20~50세대)에 LPG를 쓸 수 있는 집은 3~4가구에 불과하다.(사례5) 또 일부 잘사는 사람은 연탄형 보일러인 한국산 귀뚜라미 보일러를 놓고 살기도 한다. 여기에 쓰이는 연탄은 개성공단에서 빼들린 연탄인데 한 장에 500원으로 겨울 내 3,000장을 쓰기 때문에 수입이 높은 집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나온 연탄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개성공업단지(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월동 준비로 한국에서 들어온 탄(50~100장)을 공급받는데, 그 탄을 자기집에서 때지 않고 평양까지 가서 팔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좋았지만 양이 제한되어 있고 파손율이 많아서 나중에는 귀뚜라미 보일러 파는 사람들이 사이즈에 맞는 탄 찍는 기계를 만들어서 탄을 찍어서 함께 배달까지 해준다고 한다.(사례4) 최근에 생긴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조적 난방 기구로 전기 온풍기(선풍기 모양)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3) 전기부족의 일상화와 적응 행태

전기부족은 북한주민들에게 가전제품을 전시상품으로 만들었다. 중

I
II
III
IV
V

산층 이상의 경우 에어컨과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기소모가 매우 큰 전자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텔레비전, 녹화기, 전기밥솥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부족은 이러한 가전제품의 이용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전기부족이 문화생활 욕구마저 원천봉쇄할 수 없다. 심지어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다양한 적응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은 공식규범에서 보면 불법적 행위들이다.

예를 들어, 사리원에서 상류층 생활을 했던 북한이탈주민 김○○의 경우 국가에서 공급하는 전기량이 부족해서 집 근처에 있는 무역수출국 피복공장이 있어 그곳에 공급되는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가전제품으로는 흑백TV와 컬러TV 두 대와 녹화기가 있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컬러TV를 보고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통해 흑백TV를 본다. 왜냐하면 컬러TV는 전기소비량이 커서 배터리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사례2)

청진에서 상류층 생활을 했던 북한이탈주민 강○○의 경우 녹화기는 새벽 시간에 농촌에 탈곡을 위해 전기 공급을 할 때를 이용하여 사용하는데 전기검열단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담요로 막은 후에 녹화기를 본다. 중앙당에서 특별방송을 내보내거나 1월 1일 김정일의 새해신년사 방송 때 잠시 몇십분씩만 전기를 공급하며 전기부족으로 전자제품을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 갖추어 놓는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면 노동단련대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주민들이 녹화기를 통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다.(사례25)

전기부족은 북한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개념을 바꿔놓고 세탁기와 냉장고보다 북한주민에게 더 중요한 물건은 바로 녹화기이다. 북한에서 제일 필요한 생필품은 녹화기와 변압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들 때문에 녹화기는 필수로 있어야 한다.(사례18)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것은 전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 하지만 녹화기는 생활에 필요하니까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방송 통로(채널)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통로가 하나잖아요. 중앙 통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녹화기가 딱 있어야 되는 거지. 불이 오면 녹화기가 있어야 CDR도 넣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죠.(사례10)

남한문화에 대한 접촉은 북한주민의 의식뿐만 아니라 거주생활에서의 문화적 욕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여성들의 경우 남한 드라마를 볼 때 집안을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그렇게 따라 꾸며보기도 한다.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주민은 옷차림, 신발, 액세서리, 인테리어를 따라하고 그것이 유행되기도 한다.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고 치장하고 집꾸미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사례1)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계층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 ‘식의주’ 생활의 계층 분류

식의주 생활에서 상·중·하류층은 주식과 부식물 구성, 의복의 생산지와 새옷과 중고옷의 여부, 취사 및 난방 연료의 차이 및 가전제품의

사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⁸

상류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고기, 과일, 반찬, 아이스크림, 커피 등 부식물과 기호식품의 소비를 크게 제약받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한국산 새옷이나 일본산 옷을 계절별로 구입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즐겨 입으며, 취사 및 난방과 다양한 가전제품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주시설(특히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상류층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10% 이내에 불과하다. <표 III-7>에서 보이듯, 상류층은 쌀밥을 기본이고 건강식을 추구하며 부식으로 고기를 즐겨 먹고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도 즐긴다. 특히 식생활 면에서 “상층부는 고급요리(양고기, 구라파 음식, 중국음식 등)를 먹고 중류층은 불고기 정도를 먹는다”는 점에서 계층적 차이가 있다.(사례34) 이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표 III-7>의 직업란에서도 보이듯 고위관리직이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중류층은 “간혹 잡곡밥을 먹기도 하지만 대체로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고 부식물은 주로 채소 반찬으로 구성되지만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고기(육고기, 물고기 포함)를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며, 의복은 중국산 새옷과 한국산 중고옷을 계절별로 구입해 입으며, 취사 및 난방의 연료가 대체로 연탄이나 나무이며, 가전제품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공급 부족으로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심층면접 결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전체 인구의 30~

¹¹⁸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에서는 식생활을 기준으로 ‘상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분류했지만, 이 글에서는 각 계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식, 의, 주의 기본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40%가 해당된다. 중류층은 직업상으로는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장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속한다. 하지만 <표 III-7>에서도 나타나듯 대체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세끼의 식사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면 ‘중류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중류층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류층은 “강냉이밥이 기본 주식이되 세끼 식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식물은 주로 김치나 장류로 제한되고 고기 섭취는 명절이나 특별한 국가행사 때에만 가능하며, 의복은 중국산 중고 옷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으며, 연료부족으로 취사 및 난방을 크게 제약받고 가전제품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절대빈곤층에 해당된다.¹¹⁹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0% 정도이다.

● 표 III -7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 실태

연번	연령	북한 거주 지역	직업	식		의		주			주관적 계층
				주식	부식	구입 횟수	원산지	주거 형태	크기	방수	
1	30대	원산시	상업소 관리원, 장사	잡곡밥 (건강식)	고기, 생선, 채소	횟수제한없이 구입	일본산 (중고)	아파트	30평대	2	중류층
2	40대	사리 원시	교원	쌀밥	고기, 생선, 채소	계절별 구입	한국산	아파트		3	중류층
3	50대	평양시	노동자	나물죽 강냉이 국수, 죽	산나물, 나 무겍질		중국산 (중고)	아파트			하류층

¹¹⁹ 영국의 사회학자 벤저민 S.라운트리(Benuamain S. Rowntree)는 『빈곤-도시생활의 연구』(1901)에서 빈곤선이라는 것을 제기 했는데, 절대빈곤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임.



연번	연령	북한 거주 지역	직업	식		의		주			주관적 계층
				주식	부식	구입 횟수	원산지	주거 형태	크기	방수	
4	30대	평양시	무역업	건강식			한국산	아파트	29평	3	상류층
5	30대	신포시	사무원	쌀밥	돼지고기		한국산	아파트	30평대	2	중류층
6	30대	평양시	교사	쌀밥	고기, 수산물		일본산 (중고) 한국산	아파트		2	중류층
7	60대	함경북도	가정주부	쌀밥	돼지고기 계란, 커피	계절별 구입	중국산	아파트	40평대	4	상류층
8	10대	회령시	학생	쌀밥	고기		중국산, 한국산	아파트	50평대	2	
9	40대	혜산시	미용사	강냉이밥	야채	계절별 구입		단층집		2	하류층
10	20대	혜산시	사무원	쌀밥	야채		중국산	단층집		1	중류층
11	40대	혜산시	미용사	쌀밥		계절별 구입	일본산 (중고), 한국산	아파트	18평	2	중류층
12	30대	온성군	장사	잡곡 (쌀, 옥수수)	고기, 야채	5년에 1회					중류층
13	60대	온성군	자재지도원	쌀밥	매일 고기섭취		중국산	단층집	36평	2	중류층
14	20대	혜산시	지도원	쌀밥			중국산, 한국산	아파트		2	중류층
15	60대	온성군	장사, 양복사	잡곡 (쌀, 옥수수)	가끔 고기/생선		중국산, 한국산	단층집		2	중류층
16	20대	혜산시	교원	쌀밥	김치, 나물		한국산	아파트		1	중류층
17	50대	김형직군	식량공급소 책임자	쌀밥	고기		한국산	단층집		4	상류층
18	50대	혜산시	장사	쌀밥	고기, 아이스크림	일년 1회	중국산, 한국산				중류층

연번	연령	북한 거주 지역	직업	식		의		주			주관적 계층	
				주식	부식	구입 횟수	원산지	주거 형태	크기	방수		
19	20대	혜산시	무역업	쌀밥	야채, 두부, 고기, 생선, 과일	계절별 맞춤회	중국산 북한산 (맞춤)	단층집			2	중류층
20	50대	남포시	노동자	잡곡 (쌀, 옥수수)	국수	일년 1회	중국산	단층집			2	하류층
21	40대	혜산시	도안공	쌀밥								중류층
22	40대	무산군	설계사	쌀밥		계절별 두벌	일본산, 한국산					중류층
23	40대	연사군	농장 회계원	강냉이밥	야채							중류층
24	50대	청진시 및 온성	여맹 위원장	쌀밥	고기, 야채	자주	한국산	아파트	50평대		2	
25	20대	평양시 룡성 구역	대학생	쌀밥		계절별 두벌		단층집	30평대		3	중류층
26	20대	북창군	군인	쌀밥				아파트	14평		3	중류층
27	30대	평양시 선교 구역	학생	쌀밥				단층집			2	중류층
28	50대	혜산시	방직, 장사	쌀밥				아파트	14평		1	중류층
29	30대	무산군	수출회사 노동자	쌀밥								
30	50대	북창군	관리직	쌀밥	고기, 야채		중국산	단층집	20평			중류층
31	40대	중강군	검역소 검사원	쌀밥	고기	계절별 구입	북한산 (맞춤)	단층집	10평		1	중류층
32	40대	대안군	노동자	강냉이밥	생선		중국산	단층집			2	중류층
33	40대	룡연군	가정 주부	쌀밥	고기, 생선, 야채, 계란	일년 한벌	중국산	아파트	20평		1	중류층

I
II
III
IV
V

2. ‘무상’교육의 허상과 교육 질의 불균등 심화

가. 무상¹²⁰의무교육의 붕괴 현실

(1) 법률상 무상의무교육 제도

북한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로 선전하고 있는 제도의 하나가 무상의무교육제도이다. 북한의 보통교육은 법률상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3조)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법』에서는 “국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법』 규정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중등일반교육’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먼저 ‘중등일반의무교육’의 기간은 11년(제13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등일반교육은 “무료로서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 수 없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보상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학용품과 생활용품은 무료는 아니지만 싼 값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맹,聋아와 같은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5조)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¹²⁰ 북한의 공식 용어는 ‘무료’인데 본 과제에서는 우리말 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북한당국은 2011년 1월 19일 「보통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법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부시켜야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으로 학교 전 교육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구성된다(제10조)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전에 규정되었던 11년 의무교육제도를 반복적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에 대해 5살부터 16살까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제11조). 또한 교원과 학생에 대해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싼 값으로 보장해야 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법」 제18조에서는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교육법」에서는 2003년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후 이전의 「교육법」과 비교할 때 맹아학교, 농아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제14조),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의 국가 책임(제15조), 맹아, 농아학교의 운영(제25조) 등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장애아동이 아니라 맹아와 농아 중심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교육법」에서는 교육에 대한 행정적 책임(제52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교육법」(제52조)에서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책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보통교육법」에서는 9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 중 북한 내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I
II
III
IV
V

경우”(1항),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9항)가 주목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의 수준으로 엄중할 경우 해당 「형법」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제53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통교육법」에 규정된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205조에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가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서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교육법」에 규정된 행정적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행정처벌법」 제97조 ‘가정교사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서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 행위를 한 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국가가 이러한 무상의무교육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이러한 제도상의 무상의무교육과 북한주민의 실제 교육 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계층에 따라 물질적으로 차등하여 지원하면서 법과 현실 삶의 질 사이의 괴리와 동시에 교육 측면에서 계층별 삶의 질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제도가 붕괴되는 가운데 경제난 이후 장사 등을 통한 북한사회 내부 계층 분화에 따른 교육기회 접근권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2) ‘무상’의 허상: 학교운영에 대한 사적 부담의 증가

북한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경제난에 따라 국가가 물질적으로 무상교육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무상이라는 허울 속에 국가가 뒷받침해야 하는 재정을 학부모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중등일반교육 이전에 이미 북한주민들은 탁아소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탁아소 운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탁아소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의 사례로 수령의 연구실을 장식하는 비용과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기르는 온실운영 비용에 대한 현금부담을 들 수 있다.(사례25)

무상교육의 허상이 무너지는 현장은 소학교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의 자녀가 사용하는 학용품을 사주기에다 버거운 북한주민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부담에 응하느라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전혀 지원해주지 못하므로 학부모의 부담을 통해 학교운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 백원! 오백원! 오늘 천원!” 매일 돈을 달라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한다.(사례16)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가장 커다란 부담의 하나는 학교 꾸리기를 들 수 있다. 사실상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학교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 꾸리기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은 모래나 시멘트, 유리창 등 다양한 현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담에는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도 포함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은 많게는 이러한 학교 꾸리기를 위해 15만원까지도 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사례2)

I
II
III
IV
V

다음으로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까지 학생들의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쓰레받기까지 부모들이 사서 제공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에서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살 돈이 없어 학급당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하나씩 교육용으로 설치하는데 학부모들이 1인당 만원씩 부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교원의 교육용이지 학생들의 실습용은 되지 못한다. 그나마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사용하기 어려워 상점의 장식용품에 불과하게 된다.(사례 12, 사례16) 이러한 교육용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컴퓨터 배우는 바람이 한창 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알아야 한다.’ 정보산업 시대니까. 학교에서 소조를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모자라니까 컴퓨터 운영을 하자면 컴퓨터를 사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살 돈 주고 그랬어요.”(사례2)

무엇보다도 학교의 난방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겨울 땔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 난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난로를 떼기 위한 나무와 석탄 등 땔감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교육의 현실이다.(사례16)

학부모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사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지속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무상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면서 수시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증폭되면서 무상 대신 월정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까지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누구 말마따나 인민들이 말하는 게 야, 차라리 그럴 거면 의무 교육제라는 거 싹 없애버리고 차라리 한 달에 얼마씩 내오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버리고 말자. 이거는 매일 돈 가져 오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미치겠다고 말 하거든요. 그런 소리까지 나오요.”(사례5)

(3) 자원동원 부담과 교사에 대한 공여

학교운영과 무관하게 국가적으로 동원하는 자원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담하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수집하는 자원은 못쓰게 된 철, 구리(동), 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철 등은 인민군의 무기 만드는 데 사용되는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걷는다고 한다. ‘충성일’, ‘좋은 일 하기 운동’이라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달 학생들에게 1인당 파지 몇 킬로, 파철 몇 킬로, 못쓰는 구리(파동) 몇 킬로씩 걷고 있다고 한다. 학교운영 부담에 이어 자원동원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신 속한 조직에서 이러한 수집 작업이 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파지를 내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못쓰게 된 철, 구리(동), 납, 파지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장마당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파철과 파지도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애들한테 내준 과제를 수행하자면 집에 현물이 없으므로 돈을 내든가 아니면 장마당에서 사서 제출하게 된다.(사례12, 사례33)

그리고 북한에 나무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나무 종자를 내라는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 씨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퇴비과제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분을 활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학교에 바치기도 한다. 또한 토끼 가죽을 내라는 요구도 있다고 한다.(사례12)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더불어 경제난으로 교원(교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교원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에는 교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도 포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생일에도 돈을 걷게 된다. 학급 반장의 부모가 위원장이 되어 교원 생일에 학부모로부터 돈을 걷거나 교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사례33)

(4) 노력동원과 교육 질의 저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경제난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아이들에게 노력동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난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노력동원이 있었지만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교육 대신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높은 반 아이들에게 이삭줍기를 시킨다고 한다. 아이들이 많다보니 모으면 낱알을 10kg 정도 줍는데 절구질 하면 6kg 정도 쌀이 생기게 된다. 유치원 교양원은 3kg는 밥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먹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다고 한다. 소학교에서도 노동을 시킨다고 한다.

“아이들을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에 동원하고 있다. 북쪽에서 ‘강냉이 영양단지’라는 말이 유행하는 데, 강냉이 모를 심는 것을 의미한다. 강냉이 영양단지에 학생들을 동원하므로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고 한다.”(사례8)

이러한 노력동원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노동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휘발유를 보낸다던가, 쌀을 보낸다던가, 부식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몰래 돈을 주든가 하면 아이들을 노력동원에서 면제하여 집으로 가게 한다고 한다.(사례8, 사례30) 그리고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력에 동원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뭘을 자꾸 내라고 하니깐 열 받아서 아이를 소학교에도 보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전하고는 다르게 부담을 해야 하고 매일 모내기 등 일 시키고 청소시키고 불필요한 것만 너무 많잖아요.”(사례40)

그리고 교원들이 배급이 없어 퇴기밭을 운영하는데, 농사철에 자신의 학급 아이들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사례18)

나. ‘무상’ 붕괴로 인한 교육 불균등의 심화

(1) 사적부담: 차별과 결석, 부모와의 언쟁

고난의 행군 시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I

II

III

IV

V

생계를 해결하는 방안을 터득하면서 생계 문제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부모의 사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교육의 측면에서 하류층 등 못사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사적 부담은 학교 내에서 교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서 차별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에서 내리는 돈과 물자를 내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학부모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들이 애처로워 장마당에서 사다 학교에 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며칠 동안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사례11, 사례26) 이와 같이 학부모의 사적 부담이 늘어나고 무상교육 체계가 무너져가면서 이러한 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류층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기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이 애처로와 애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려고 한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담에 지친 부모들은 결국에는 학교 가지 말라고 안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사례12, 사례20)

“부모들은 학교 가지 말라. 그거 못 내는데 어떻게 학교 가겠니.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학교 안가는 애들이 많아요”(사례33)

이와 같이 돈이 있는 집안의 자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학생들에게 ‘결석’이라는 형태로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0대인 북한이탈주민 김○○은 학교에서 난로를 피

우기 위해 석탄이나 나무를 가져오게 하는데 한 학급의 학생인원이 사십명 내외인데 많을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 50%에 육박하였고 증언하였다. 그 50% 중 10%는 자신처럼 공부하기 싫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지만 40% 정도는 학교에 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사례8) 이와 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되는 부담으로 학교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결석을 자주 하면서 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대충 시험을 쳐서 졸업장을 받고 나면 바로 농장일이나 탄광일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13)

이러한 사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이 많은 중하류층 가정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예들 들어 자식이 세 명인 어머니는 거의 매일 울상이 된다. 학교에서 내라는 것을 3명 모두를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세 명이 학교서 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학교에 보내고 두 명은 학교 보내지 않는 가정도 생겨난다는 것이다.(사례12) 파지나 고철, 구리 등 학교에서 걷는 자원을 내지 못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의 혹은 소학교의 경우 소년단 회의에서 낙오분자로 왕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의복, 특히 점심에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이것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부모 형편에 따라 도시락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 극단적으로 유치원 높은 반과 소학교 낮은 반의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애들도 다 눈치 있지 않나. 남들은 이밥을 먹는데 자기는 강냉이밥을 먹고 또 어떤 애들은 밀에다 강냉이쌀 싸고 위에다 이밥 뿌린다. 기본으로 없으니까 맨 이밥을 못 보내니까. 그러면 턱

I
II
III
IV
V

펼치는 순간에는 ‘아’ 친구들이랑 보는 느낌이 ‘재도 입쌀 싸왔구나’ 이런 생각에 애가 위축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냉이밥 싸 보냈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못 보냈는데, 학교는 안 되겠더라. 아홉 살 때 학교를 보냈다.”(사례9)

셋째, 교원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가정 형편에 따라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배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교원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있다. 「보통교육법」에서 교원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생존 문제에 직면하면서 학부모들이 교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교원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의 형편에 따라 자식들이 학교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도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므로 학부모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바라게 된다. 그런데 교원이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선생이 아이를 미워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별대우는 선생의 아이에 대한 차별의 형태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 식구도 솔직히 힘들고, 먹지 못하고, 그걸 텃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식량을 사서 보태는데 선생한테 매번 주지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이 자연히 미워한다. 경제적으로 뒷받침 못 되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애들은 잘 봐준다.”
(사례9)

넷째, 가정 형편에 따라 부담 분담 여부는 다음으로 학생들 사이에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쌀, 돈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급장(반장)을 위주로 잘사는 가정이 주가 되어서 선

생님에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하는 자녀들은 반장한테 맞기도 하고 들짐승(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취급을 받습니다.”(사례4)

이러한 수집 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와 교원 사이에서 괴로운 상황을 겪게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라는 것을 부모의 형편 때문에 내지 못하면 교원은 널 때까지 아이들을 닦달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내라고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달라고 말하면 어머니들도 안타깝지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지 못하면 애가 학교에 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엄마를 보면서 애는 집에 가서 말도 못한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교원과 학부모 중간에서 근심 속에 시집살이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사례12)

다섯째, 사적 부담은 결석이라는 형태로 하류층 자녀의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언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학교에서 가져 오라고 하지만 하류층 가정의 경우 너무 부담이 되어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아이들과 언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사례33)

여섯째, 가정형편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와 학용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과서가 50%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교원들도 분배에 골머리를 앓는데, 학부모들이 미리 찾아가 부탁하게 된다. 심한 경우 현금을 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수학, 물리, 화학 등 기본과목 교과서는 구하기가 힘들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사야 하는데 비싸서 못 사주는 가정도 있다. 이런 경우 엄마들이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교과서를 베껴 써주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사례12)

일곱째, 자녀들의 운동회나 등산 등 학교에서 행하는 과외활동이 경

I
II
III
IV
V

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번씩 운동회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럴 때에는 부모들이 계속 안 먹고 모아놓고 있다가 그때 그걸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례32)

(2) 생계 지원: 결석, 문맹률, 불법행위 가담 증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애들이 부모를 대신해 산에 올라가 산열매 따고, 산나물을 캐 장마당에 나가 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그리고 중학교 5~6학년 여자 아이들의 경우 대체로 공부해 크게 써먹지 못할 바에는 일찌감치 학교를 중퇴하고 나와서 엄마를 돕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있다.(사례12)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학교 안보내는 애들이 많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안 가는게 아니고 집에서 여자애들은 어머니가 장사하는 것을 돕는다.”(사례19)

구체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엄마를 따라 장사를 다니느라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이다. 엄마들이 장사를 하러 떠나는데 무거운 짐을 아이들로 하여금 나누어 들게 하기도 한다. 장사하기 위해 엄마와 같이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사례25) 또한 부모들 농사짓는데 따라 가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사례5)

부모님 한 분이 안계시거나 부모가 아픈 경우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 오지 않으면 교원

들이 학교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호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사례7)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면 교사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80% 이상은 출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교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학교에 오도록 하는데 가정 형편을 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전에만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가도록 교원들이 사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사례12)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가정에 가보지만 실제로 집 안에 가보면 집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모가 없다든지, 부모가 아프다든지 해서 그 옆에서 거들어 줘야 하니까, 그걸 보고도 ‘무조건 나오라’고 이런 말 못하죠.”(사례2)

이렇게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 강○○은 태국 이민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오는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본 아이들 열 명 중 서너 명은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사례25)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면서 철자나 받침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사례5)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사례7)

이와 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 가정의 생계를 아이들이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 등 불법적인 행위에 아이들이 동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사례19)

(3) 증상류층의 사교육 확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류층 가정의 자녀가 사적 부담으로 인해

결석, 차별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상류층 가정의 경우 자식을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시키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상교육이 무너지면서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처벌법』에 사교육을 처벌하는 조항(제97조)을 두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적 교육행위가 확산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사적 교육을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등일반 무상의무 교육이라는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석·차별 대 사교육이라는 계층별 교육 질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돈 있는 집안에서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사적인 부담도 지려 한다. 학교 교육 이외 북한의 상류층들이 사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은 분야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예능, 수학, 영어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돈 있는 집 자녀들은 개별교사(개인과외)를 합니다. 한달에 피아노는 20달러, 바이올린은 17~18달러, 수학은 30달러, 영어는 15달러입니다. 교과서는 컴퓨터로 쳐서(타이핑)하여 프린터를 해서 씁니다.”(사례4)

그런데 북한에서도 유명한 선생은 사교육 비용에서 많이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도 잘사는 집은 영어, 중국어, 한문 등 사교육을 시키는데, 보안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한다. 사교육을 하다 발각되는 교원들은 노동단련대로 보낸다고 한다.(사례5, 사례25)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 중에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한 달에 100달러를 준다고 한다. 피아노는 그보다

적은 50달러라고 한다.(사례7) 특히 해외에 가서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당 간부들은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등 좋은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사례7)

그리고 예능 분야에서 아이들의 장래를 설정하는 경우 사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상류층은 피아노 등 악기를 구입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사례12) 이와 같이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능력있고 유명한 교원들은 이러한 사교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안○○은 자신의 며느리가 수학교원이었는데, 수재반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머리가 좋아 몰래 사교육을 한 대가로 한 달에 200달러, 많게는 500달러까지 벌었다고 한다.(사례7)

(4) 교육 질의 차등 심화: 학습태도, 진학 및 진로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가정 형편은 장래 진로라는 기준에서 볼 때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 상류층의 아이들은 교육에 더 열정을 갖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돈 없는 애들은 공부에 관심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고 돈 있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공부를 더 배우려 한다.”
(사례20)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는 데도 가정 형편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수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점수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돈을 바쳐 들어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잘사는 가정의 아이의 경우 머리가 나빠도 입학이 가능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류층 가정은 수재학교를 가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사례5)

이와 같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돈이 있는 상류층은 아들이나 딸이나 차원을 떠나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노동당 간부라면 내 자식이 앞으로 내 뒤를 잇게 하자면 여자보다는 먼저 아들을 대학공부 시키려고 노력한다. 만약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돈이 좀 있다면 딸에게 피아노, 아코디언 등을 배우게 하면 애가 자라서 피아노 강사 등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애가 자라서 피아노 수업 받으러 오는 애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계와 연계시켜서 딸의 교육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자들은 주로 예술인이나 의사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사례14, 사례40)

이상에서 보듯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확산은 아이들의 장래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가정교사를 통해 사교육을 받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사례19) 또한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을 통한 장래의 목표에 대해서도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간사람들은 잘살지도 않고 못살지도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거만 살 수 있는 정도라 피아노나 악기 과외를 시키지 못한다. 왜 배우다 안 배우냐면 내가 그걸로 발전해서 이름 떨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나 내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배우자. 목표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

까지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으니깐.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라는 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 하니깐. 그리고 아무리 목표를 높게 정한다 해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10)

그런데 중상류 계층은 점차 조금 힘을 써서라도 교대, 의대, 예술대 학에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김○○은 막내 아들을 의사가 되도록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의대는 경쟁률이 높아 돈을 들여야 하고 입학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족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사례14)

사교육은 주로 예능과 외국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상류층 부모들은 자녀의 취미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예능에는 피아노, 기타 등 악기를 배우는 경우와 성악을 배우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북한에서도 영어를 잘 해야 앞으로 외국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어 영어공부를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미국을 욕하면서 영어를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만을 보아서 안되고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므로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한다.(사례11) 외국어의 경우 영어와 함께 중국어도 사교육의 열기가 불고 있다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과 외화벌이가 활성화된 영향때문이라고 한다.(사례 12, 사례21)

I

II

III

IV

V

3. ‘무상’치료의 허상과 의료질의 불균등 심화

가. ‘무상’치료제의 허상

(1) 전반적 의료 서비스 저하 실태

국제적으로 삶의 질 문제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혜로 중심이 이동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와 역행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공중위생법」(1998), 「국경위생검역법」(1996, 1998, 2007), 「식품위생법」(1998, 2005), 「의료법」(1997, 1998, 2000), 「의약품관리법」(1997, 1998), 「인민보건법」(1980, 1999, 2001), 「전염병예방법」(1997, 1998, 2005), 「장애자보호법」(2003), 「적십자회법」(2007), 「체육법」(1997, 1998)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의료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상으로 잘 구비되어 있고 경제난 이전에 제대로 작동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무상치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비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요한 전략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진료소,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종합병원 등 의료전달 체계를 운영하여 왔다. 중앙 및 도 단위의 병원 133곳, 군 단위에는 601곳(2차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리 단위에는 클리닉(필수의료서비스 및 왕진 제공)과 진료소(전문의료서비스, 전통 고려 의약품,

치과 및 외과 처치) 6,263곳이 존재한다.¹²¹ 그러나 경제난으로 사실상 보건의료 시스템, 즉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의료 전달체계는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째, 병원시설의 낙후와 의료자원의 고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담당구역 의사 시스템은 일차적인 통합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보건 시스템의 기반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의 60% 이상이 감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초를 사용한 의료가 강조되는 실정이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필요한 필수 의약품 중 절반 이하만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 기구 및 약물 처방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X선 기기와 같은 진단 기구 및 결핵 도말검사를 위한 시약 등의 부재로 의료인력이 진단법 등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염성 질환’과 ‘영양부족’으로 주민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독과 방재 등 위생활동과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병원 내의 열악한 위생상황도 북한주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인프라와 전력 사정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난방, 수도, 열악한 도로 및 통신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의약 물류와 환자이송의 병

¹²¹ 최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주최 발제문, 2010).

I
II
III
IV
V

목 현상, 기뿔과 흉수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도로 및 통신, 전기, 난방, 수도,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환자 치료, 환자 후송, 보건인력 출장, 백신 이동, 병원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¹²² 북한의 일반주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맹장염에 걸려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나도 앰블런스 같은 의료 시설이 없으므로 큰 병원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든 차를 붙잡아 타고 가야 한다. 그냥 자기가 아는 앞에 보면 차로 있잖아요. 그런데서 손 흔들어 가지고 담배라도 한 갑 주면서 데리고 가요. 병원에서 오는 차도 없고 응급차도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사례11)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실은 운영된다고 한다. 배전부와 수술실은 항상 밀접한 연계 하에 운영되어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기는 들어 온다는 것이다.(사례4)

(2) 사례를 통해 본 시기별 의료의 질 저하 상황

북한의 무상의료서비스 체계가 시기별로 와해되는 과정을 적절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이○○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이하 사례30)

이○○은 1975년 10월에 편도가 부어 수술하려고 처음으로 병원에

¹²² 이일학, “북한의료 현황과 지원방향,” 한반도평화연구원, 『KPI리포트』, 제4호 (2010.1); 최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2010).

입원하였다. 당시 북한의 병원 상황에 대해 이○○은 환자복도 새것으로 주고 수술 이후 시간에 맞추어 항생제도 투입하여 주었으며, 아프다고 하면 모르핀도 투입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입원하여 있는 동안 식사도 미음과 밥을 제대로 제공하여 주었다고 한다. 특히 반찬도 5~6가지가 나와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이○○은 1991년도 다리 동상 문제로 다시 입원하였다. 이○○은 1976년 1월 군에서 복무할 때 강도를 만드는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상에 걸렸다고 한다. 그 이후 다리 때문에 계속 고생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러다 1991년 함흥시 의학과학원에 입원하여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다. 함흥 의학과학원은 동독에서 지원하여 건립되었는데, 시설이 좋았고 처음에 결핵연구소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70년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결핵이 줄어들면서 의학과학원은 혈액을 연구하는 시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이○○이 입원할 당시 혈관질환 전문 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자신을 진찰하였다. 그 결과 의사가 “수술하면 3년 동안 관찰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후에 다시 병이 재발하면 그 때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본인은 죽어도 다리는 절단하기 싫다고 하여 혈관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1년도 수술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5년도와 비교하여 몇가지 사항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첫째, 입원실의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한다. 1975년 입원실은 1방에 침대가 6개 놓여 있었는데, 1991년에 입원했을 때 1방에 12개가 놓여 있어 지나치게 협소해졌다고 한다. 둘째, 간병인의 서비스도 저하되었다. 1975년에는 병실 바닥 청소도 하고, 환자들 옷도 갈아입혀 주었는데, 1991년에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



지 않았다. 셋째,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질이 저하되었다. 1991년에도 병원에서 식사는 제공되었지만 반찬이 5~6가지 제공되었던 1975년과 비교하여 국과 반찬 두 가지 정도가 제공되어 먹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넷째, 1975년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했다고 한다. 이○○은 자신의 수술날짜가 잡혔을 때 “월요일에 너의 식사 대접차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당시 이○○은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면 수술을 정성껏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의사, 마취과,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12~15명의 병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그런데 먼 곳에서 병원에 온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은 1994년 다리가 아파 세 번째로 입원하였다고 한다. 입원 당시 김일성 사망 직후였으므로 병원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병원에서 밥은 제공하여 주었지만 반찬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식사량도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한다. 원래 병원에서 백미 300g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끼에 40~50g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독일식으로 지어진 병원의 구조상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베란다 있었는데, 벽돌을 쌓고 베란다에서 불을 지피 스스로 끓여 먹어야 했다고 한다. 둘째, 1991년까지는 병원에서 난방을 해 주었는데, 1994년에는 환자 스스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한다. 1991년에는 전기난방으로 22도까지 온도를 유지해주었고 개인적으로 전기 매트도 사용할 수 있었다. 환자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장작을 가지고 오는 환자만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도 어쩔 수 없이 기업소에서 나무를 실어와 2달 정도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기 매

트를 사용하여 난방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정전 등으로 수술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1991년과 비교하여 병원에서의약품 공급도 열악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출고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아 몰핀을 놓아 달라고 하면 1대는 그냥 놓아 주었다. 그런데 본인이 사서 놓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1994년 당시 병원에서 60% 정도 의약품은 환자에게 제공하였지만 40% 정도는 환자 자신이 장마당 등에서 구입해 와야 했다.

이○○은 1999년에도 혈액관련 주사를 맞기 위해 함흥의학과학원에 갔는데, 전혀 약이 없었다. UN에서 지원하는 약도 모두 떨어지고 병원에 약이 없어서 본인이 장마당에서 사다 썼다고 한다. 이○○은 2004년 네 번째로 입원하였다. 당시 병원에서 수술복, 수술장갑, 항생제 등 수술에 필요한 것을 일러 주고 직접 구해 오라고 하였다. 심지어 의사가 수술할 때 입는 수술복까지 환자가 대라고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식물을 포함해 먹을 것을 모두 가져 오라고 하였다. 본인은 다행히 자신이 다니던 기업소에서 해결해주어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함흥의학과학원은 독일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건립하였는데, 비상발전기가 2대 있었다. 그래서 다행히 정전이 되면 1분도 안되어 자체발전기가 가동되어 수술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3) 무상의 붕괴와 환자의 사적 부담 일상화

환자의 사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무상은 허울이 되고 있다. 무상치료는 구호에 불과할 정도로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현재 무상서비스는 진단과 수술, 입원에 따른 병실 비용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는 어머

니가 뇌혈전이었는데, 집까지 팔아서 치료비로 썼다고 한다. 말만 무상 치료지 약값 등 모두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례17)

첫째, 환자의 사적 부담은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들 수 있다. 무상의료 제도가 붕괴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의약품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약품 공급의 절대적 부족 속에 약이 빼돌려지면서 약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사액도 본인이 사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사례6)

둘째,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식사와 난방을 들 수 있다. 입원하는 환자들은 하루 세끼 다 집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입원은 할 수 있지만 의약품, 식사와 난방 등 일체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원에도 해당되고 있다. 예전 산원은 국가가 출산관련 비용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모 미역을 포함하여 산모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사례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인민병원 정도의 수준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단 등은 무료이지만 식사, 난방, 의약품 등은 환자 본인이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북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주민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단에 따라 처방전을 받거나 주사를 맞고 수술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셋째, 환자들은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식사 제공 등을 부담해야 한다.

(4) 비공식 약품 판매의 성행과 의도하지 않은 의약분업(?)

북한의 「의약품관리법」 제38조에는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 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

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시·군 단위로 2~3개, 평양시의 경우 구역단위로 1개씩 약국이 있으며,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고려약공장, 순천제약공장 등 전국 각지에 중소규모의 제약공장들이 있다.¹²³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의 의사들이 은퇴 혹은 퇴직 후 불법적으로 가정집에 약국을 차려서 약을 파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파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의약품과 수술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의약품들은 병원에서 빼돌려지는 것들이 일정 정도 차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약품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족한 의약품마저 병원에서 빼돌려지면서 하류층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의사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의사들이 병원의 약을 빼돌려 생활하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무상의료제도에 따라 의약품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사적으로 의약품을 빼돌려 장마당으로 유통시키거나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투약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의 의사와 약사가 병원에 배분된 약을 빼돌리는 경우 2가지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병원의 환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과 장마당에 비공식적으로 공급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몰래 약을 파는 방식이다. 우선 병원에서 의사들이 돈을 받고 환

¹²³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의료실태』 (서울: 통일교육원, 2006), p. 25.

자들에게 약을 파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를 맑게 하는 디크말이라는 약이 필요한데, 의사들이 약을 빼돌려 자기네 집에 다 갖다놓았다. 그래서 의사 집을 찾아가 돈을 주면 그 다음날 병원에 그 약 10봉지 정도를 머리맡에 놓고 가곤 했다.”(사례30)

그리고 의사들이 약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몰래 집에서 팔기도 한다고 한다.(사례26) 이로 인해 돈이 없는 하류층 주민들은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 약을 투여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직 의사나 퇴직 의사들이 가정집에 약국을 차려 놓고 불법적으로 약을 팔고 있다. 이 경우 단속을 하지만 대부분 돈을 주면서 무마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다.(사례25) 장마당이나 가정약국에서 불법적으로 파는 약은 주로 중국의 약품과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많다고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품의 경우 도매상들이 들여와 장마당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리고 화교들이 중국에서 약을 들여오기도 하는데 개인들이 화교를 찾아가 약을 사서 장마당에서 유통시킨다고 한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은 병원 등에 배분되지만 빼돌려져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마당에서 개인들이 약을 파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사례16)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약을 파는 곳과 의사가 결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이○○은 2009년 어머니가 다리 수술 때문에 함흥 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항생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시병원 앞 아파트 단지에는 환자들에게 약 파는 장사들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집에서 약을 사라고 지정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판매하는 집은 의사선생님과 결탁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사례33)

이렇게 사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의사가 결탁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한테 말하면 의사선생들이 어디 가서 약을 사오라고 얘기해준다고 한다.(사례26)

이러한 사적인 의약품 판매에 대해 단속을 하지만 비밀리에 파는 것을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병원에 의약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마당을 단속하여도 사적인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도 일정량의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사례16)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의 경우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무상치료서비스는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주거나 주사를 놓아주는 역할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의약분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약의 판매는 국가에서 공인한 약국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특히 주사의 경우 시장에서 주사약을 구입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정도의 서비스만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의료체계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북한주민들은 집에 약을 사두고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상황이 위급하면 시장에서 약을 구입하고 주사는 시장에서 주사약을 사서 병원에 가서 반응검사만 하고 집에서 주사기를 소독해서 맞고 있다.(사례4)

사적 통로를 통해 약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병원의 약국에서 장마당 보다 싼 값으로 약을 판다는 증언도 있다.

I
II
III
IV
V

“원래는 ‘사회주의다’하면 약국에서 약을 공짜로 줘야 하는데 약을 판다. 시장에서 6,000원이면 거기서 한 4,500원 이렇게 시장보다는 싸게 주기는 한다.”(사례8)

(5) 사설 의료 행위의 확대

북한의 『의료법』에서는 무상치료제에 따라 국가에서 경영하는 병원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의사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은 본인이 아플 때 “개인의사(전문의를 하다가 먹고살기 힘들어 의사직을 그만두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았다”고 증언하였다.(사례 20) 특히 진료소나 인민병원에서 환자가 주는 것에 따라 진료를 다르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차라리 개인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려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병원에서 생김새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대충 진료를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나. 그러면 다시 개인의사를 찾는다. 개인의원들 있지 않나. 집에서 몰래몰래 하는 그 의원들을 찾아간다.”(사례9)

병원의 시설도 형편없고 어차피 환자가 링거를 사다가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링거 같은 것을 병원에서 맞기 보다는 자기 집에서 개인의사를 불러 맞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병원 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맞나. 자기 집에 편안히 누워서 맞나. 대개 은퇴한 의사한테 부탁한다. 이 사람이 계속 병원에 다니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보고 링거 좀 사 달라. 그래서 맞춰 달라고 한다. 그래서 집에

서 링거를 맞히는데 병원처럼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고무줄로 해서 맞고 있다.”(사례32)

또한 낙태도 개인의사를 찾아가게 된다고 한다. 어떤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려고 해도 병원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돈을 갖고 개인집으로 의사한테 찾아 가면 드러나지 않게 해준다고 한다.(사례30)

(6) 기대수명

가장 최근 북한주민의 보건의로 관련 지표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10월 『중앙통계국』 주관 하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유엔이 권장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각 문항의 질문범위와 분류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시한 북한 최초 센서스이다.

먼저,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이다.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의 하나이다.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은 2001년 4월 5일 ‘북한 보건절’ 보도자료에 의하면 74.5세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평균 기대수명을 74.5세라고 밝힌바 있다.

북한당국은 2002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기대수명을 <표 III-8>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6년 전인 1995년에도 평균 기대수명을 74.5세로 밝힌바 있으며, 1996년 발간된 북한의 『인구학 개론』 책자에도 74.5세로 제시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사회주의 체제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던 북한당국

I
II
III
IV
V

은 1999~2002년의 평균 기대수명을 67.1세로 정정하여(WHO, 2003) 그간 활용했던 74.5세보다 7.4년 낮게 발표하였다. 2008년 북한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69.3세(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15년 전인 1993년 72.7세(남성 68.4세, 여성 76.0세)보다 평균 3.4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까지 발표하였던 기대수명 74.5세보다는 5.2세 낮은 수준이다.

● 표 III -8 기대수명

(단위: 세)

연도	평균	남성	여성
1986	74.3	70.9	77.3
1991	74.5	71.0	77.6
1993	72.7	68.4	76.0
1996	70.1	67.3	75.0
1999	66.8	62.8	70.7

2000년 6월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수명을 ‘기간’이 아니라 ‘건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21세기 새로운 삶의 건강지표로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을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주민의 건강수명은 59세, 남한은 71세이었다. 그간 북한 영아사망률은 북한당국 발표자료와 국제기구에서 대북 지원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존하여 왔다. 즉, 북한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42~47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인구센서스 분석결과, 예상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다. 즉, 북한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19.3명(남: 20.4, 여: 18.3)으로, 1993년 센서스결과(14.1명)보다는 5명 정도

많아 보건의료 수준이 다소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 알려진 수준보다는 덜 심각한 상태였다. 북한당국은 「세계보건기구」에 출생 1천 명당 2002년 23.5명, 2005년 22명으로 보고한바 있는데, 이번 센서스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다.¹²⁴

나. 의료체계의 붕괴와 계층별 의료 수혜의 불균등 심화

이상에서 살펴본 전반적 의료체계의 붕괴에 따른 의료 질의 저하는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체계의 붕괴에 따른 의료 질의 불균등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계층별 의료전달체계 접근권의 불균형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무상의료제도가 힘 있는 간부와 돈이 많은 상류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진료소,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고급 종합병원 등 각 전달체계별로 의료체계의 서비스 붕괴 정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진료소는 사실상 의로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종합병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의료체계의 붕괴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의 기회는 계층별로 차등화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접근기회가 높은 1차,

¹²⁴ 황나미, “2008 북한인구센서스를 통해본 북한보건지표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169호 (2010.11).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다. 그런데 증상류층, 간부급의 접근기회가 높은 3, 4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소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다. 진료소에는 대체로 약이 없는 편이다. 진료소에서 약을 주더라도 약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받지는 않지만 풀을 돌돌 말아 만든 한약 같은 것을 주는데 열 봉지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한다.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진료소 차원에서 의사들이 풀뿌리 같은 것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용약을 만들어 주지만 그것은 약으로서의 효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을 사먹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진료소에서 제대로 된 약을 주더라도 의사들에게 담배라도 갖다 주어야 하므로 진료소에 갈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장마당 가서 약을 사먹게 된다는 것이다.(사례30, 사례32, 사례33) 이와 같이 진료소의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그 사실 자체가 일반주민들의 의료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큰 병이 나면 일반서민들은 아프면 시, 도병원에 가지만 잘사는 사람들은 평양종합병원에 갑니다.”(사례20)

북한이탈주민 송○○은 언니의 시집의 토대가 좋아 평양의 좋은 병원에 입원하여 약도 쓰고 링거도 제대로 맞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봉화진료소, 남산병원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 없다.(사례6) 북한이탈주민 연○○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과학자로서 인텔리이므로 적십자병원에 친구가 많아 적십자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

한 연줄이 없는 일반주민들은 적십자병원에 가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사례7)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양호한 3, 4차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주민의 접근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권력과 돈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병원 절차도 까다롭고, 뺨(인맥)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 받기도 힘듭니다.”(사례4)

큰 병원의 경우 하류층 일반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게 된다는 증언도 있다. 무상치료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차림세도 허술한데 큰 병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주눅이 든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이○○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옛날로 말하면 짚신 신고 왕궁에 들어가려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정도로 자신감이 없어서 일반주민들은 큰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게 된다는 것이다.(사례33) 반면, 돈이 있는 상류층의 경우 무상의료체계가 붕괴 되었어도 돈을 사용하여 의료혜택을 상대적으로 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의료체계 내에서도 권력에 따른 의약품 접근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병원에 절대적으로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에게는 제공되지 못하지만 상류층 간부들이 병원에 가면 약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류층 간부들은 하류층 주민에 비해 무상의료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사례12) 이와 같이 병원의 좋은 약은 소위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차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은 자신이 근무하던 온성탄광의 병원에 페니실린이 배분되면 탄광 당비사, 지배원, 보안부장과 이들의

I
II
III
IV
V

친척이 먼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사례14)

(2) 수술에 따른 하류층 주민의 생명 위협

북한에서 현재 병원은 진단과 수술, 치료, 입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술과 치료에 부수되는 약품과 입원비용은 거의 모든 부분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은 수술과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친척 등 연줄을 통해 수술을 주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큰 병에 대한 수술은 군과 도병원보다는 평양의 큰 병원에 가야 한다. 간부들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돈과 연줄이 없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줄을 대서 뇌물을 주거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의사보다 좀 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연줄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김○○은 수술하겠다고 한 달 동안 평양에 가 있다가 끝내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증언하였다.(사례5, 사례10)

대부분 의약품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도 진료와 일부 의약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거의 전부 개인이 구입하여 충당해야 한다.(사례1) 예를 들어 복막염 수술은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지만 수술하면 항생제도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 없으니까 개인이 사오면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게 된다.(사례29)

특히 수술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일반주민들은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수술에 필요한 페니실린 등은 병원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병이 더 심할 때 진료소나 시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도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은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같은 직장 다니던 사람의 남편이 시병원에서 수술하면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증언하였다.(사례21)

“지금은 수술 한번 하자고 해도 개인이 일체 수술에 필요한 마취약까지 다 사오라고 해요. 병원에서 기껏 해준다는 것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약하게 생산하는 링겔 조금 뇌주는 정도예요.”(사례5)

수술에 따른 비용 이외에 사실상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 한다. 의사는 수술을 해서 돈을 번다. 담배나 옷 등을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받아 팔아 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수술을 하지 못해 살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암에 걸리면 평양 적십자병원이나 김만유병원 등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그런 병원에 가지도 못하지만 설령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지 못한다. 돈이 없는 일반주민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먹고 싶은 걸 다 먹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사례18)

I

II

III

IV

V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수술하러 못 오죠. 왔다가도 돈 내라고 하면 그냥 아픈데도 참고 가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병이어도 고치지 못해 지꾸 병이 악화되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죠.”
(사례33)

또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식사 대접 등은 하류층 주민의 경우 수술비용과 함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등 다른과 의사선생도 함께 대접해야 한다.(사례7)

(3) 사실상의 진료(치료)비와 의약품의 차등 적용

경제난으로 보건·의료 일꾼들이 생활난을 겪으면서 환자들에게 물질적 요구를 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치료과정이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환자 수에 비해 약제가 매우 부족하여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권력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이 돈을 매개로 차등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계층별 의료 수혜의 불균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들이 국가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다. 환자들한테 받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사례33)

원래 무상이지만 침과 주사를 맞고 나서 회복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인사를 해야 한다. 의사들은 좋은 약은 간부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일반 환자에게는 대체약을 처방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좋은 약, 진료를 잘해달라고 담당의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가정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하던 식품과 공산품을 은밀하게 구입해 선물

로 주고 있다.¹²⁵ 북한이탈주민 한○○은 자신의 경우 아플 때 시병원에 가서 침 한번 맞을 때마다 담배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사례20) 이렇게 받은 담배, 공산품 등을 팔아 의사들은 돈을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 전문직 의사들은 뇌물을 받은 환자들에게 UN에서 지원하여 병원에 들어온 약을 자기 권한으로 몰래 환자에게 준다.(사례18)

진료를 받는 순서도 뇌물 여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돈의 제공 유무에 따라 진료 순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접수 순서와 상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진료 순서가 결정된다고 한다. 시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접수하여 순서대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현금과 담배를 찢러 주면 늦게 왔어도 바로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음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순서를 가로채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 평성에 있는 도병원에 갔는데 진료 안내해주는 선생한테 돈 만 원 주고 ‘나 좀 빨리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진료 순서에 관계 없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사례 32) 북한이탈주민 이○○은 2009년 어머니 다리 수술 때문에 함흥 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을 빨리 받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다.

“10만원을 주면서 어머니를 아프지 않게 완쾌 좀 시켜 달라. 그렇게 돈을 안주면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자면 아마 다리 다 썩어서 자를 때까지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먼저 아픔을 1차 해소시키고 그렇게 한다. 나 같아도 돈을 먼저 주는 사람을 먼저 봐주고 빨리 아프지 않게 모르핀도 뇌주고 그

¹²⁵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의료실태』, p. 15.

렇게 해주는데 돈 하나도 없이 온 사람은 죽어도 상관안합니다.”
(사례33)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도 초음파를 받기 위해 진료소, 시병원을 거쳐 도병원까지 갔었는데 돈을 주고 접수와 상관 없이 먼저 초음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병원일꾼의 친인척 등 안면이 있으면 접수와 상관없이 먼저 초음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의사에게 현금이나 물질을 제공하면 접수와 상관 없이 먼저 초음파를 받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초음파를 받을 수 있었다.”(사례9)

또한 의사들이 환자들의 차림새를 보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을 판단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을 다르게 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무상이지만 의료체계가 무너지면서 돈을 안가지고 가면 진찰을 해주기는 하지만 성심껏 진료하지 않아 진료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사례10)

“의사선생님들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다.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주는 것 없지 않다. 환자한테 뭘 받아야만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깐. 환자 상태를 검진하는 것보다도 차림새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돈이 어는 정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진실하게 봐준다. ‘아니다’ 생각하면 대충 봐주고 보낸다.”(사례9)

해산할 때 군병원까지 가기에는 멀기 때문에 진료소 소장이 왕진와서 해산을 도와주게 되는데, 쌀이나 물품을 감사표시로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료소 의사들은 좀 더 잘사는 집으로 왕진을 나가려고 한다. 그런 집에서는 천원 정도 수고비로 준다고 한

다.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도 달걀이라도 주면서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고 한다.(사례14)

(4) 비전문가의 약품 판매, 병원 불신과 자가 진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약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주민들은 아플 때 자신들이 판단하여 비슷한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을 장마당과 가정 약국에서 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부터 사먹는다. 어차피 병원에 간다고 하여도 약은 사먹어야 하니까 이렇게 장마당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어도 낫지 않아야 병원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사례19) 그리고 사실상 북한당국도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는 장마당의 약에 건강을 의지하는 일반주민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약통을 들고 약을 몰래 파는 경향이 많다.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중국 등에서 약을 들여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약인지 설명을 듣고 증상을 말하고 약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게 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장마당에서 약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파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들이 너무 많은데, 못 팔게 하니까

I

II

III

IV

V

막 숨겨놓고 팔거든요. 밀수해서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 이진 감 기약이다.’ ‘이진 간에 먹는 약이다.’ 이런 거 알려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해준대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서 약을 사먹어야 한다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의식을 안하고 장마당 가서 약 사먹어요. 보편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격증 있는 약사나 이런 사람한테 가 보겠다는 의식이 없어요.”(사례32)

그런데 개인집의 약과 장마당에서 파는 약의 효능도 차이가 난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효능 등 건강에 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은 약장사하는 개인집에서 샀다고 한다.

“가정집에서 약 파는 것은 비법(불법)이지만 큰 장사가 아니면 먹고 살게 눈감아 줍니다. 장마당에서 파는 약은 가짜가 많아서 개인집에 가서 삽니다.”(사례20)

이와 같이 많은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파는 약의 효능을 의심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약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장마당과 개인집의 약은 2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장마당의 약은 가짜가 많은 반면 개인집의 경우 효능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한다.(사례17) 그리고 장마당에서는 할머니 등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파는 반면, 개인집에서는 대부분 의사들이 팔아 전문지식이 있다. 따라서 돈이 좀 더 있으면 장마당 보다는 개인집에서 약을 사먹으려 한다고 한다.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약을 사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비록 없지만 북한주민들은 그래도 의사를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개인 약국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의

사하다 살기 어려우니까 의사를 그만두고 약장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들은 어느 병에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전문지식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의사가 파는 약을 더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약장사를 하면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사례21)

“의사했던 사람한테 약을 사면 가짜 약 아닌 약을 사니까 사실은 의사한테 약을 사려고 하죠. 의사들은 의사로서 양심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 약을 분석하여 임상적으로 알고 있어 의사들한테 사면 좀 믿음이 가요.”(사례14)

특히 병원에 가도 진단만 해주고 약은 개인적으로 병원 바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병원을 그만두거나 은퇴한 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약을 파는 의사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의사들은 약을 팔면서 진단도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병원가도 돈을 줄 바에야 병원보다는 병을 진단해주면서 약도 파는 가정 의사를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사례8)

이렇게 병원의 처방전이 없어도 장마당과 개인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일반적으로 장마당에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구입하여 먹는다. 병원에 자기가 입원하면 돈이 들어가므로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싫어한다. 일단 약 집에 가서 약부터 사 먹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고 진단해서 장마당에서 약을 사먹는다.(사례10, 사례25) 예를 들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소화제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가서 소화제를 사먹게 된다.

“내가 아프지 않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진단을 내려 약 파는 집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달라고 하여 먹는다.”(사례9)

I

II

III

IV

V

이러한 자가 진단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진료소와 시·군병원의 의료서비스가 대부분 와해되면서 일반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진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일반주민들 사이에 병원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돈이 들고 오진이 많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치료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진단하여 약을 사먹으려 한다는 것이다.(사례17) 또한 병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가 높은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에는 자가 진단 이후에도 낫지 않으면 진단서를 받기 위해 가지 아프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선 장마당에서 약을 사서 쓴다. 이 과정에서 약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가 진단에 따라 주민들은 필요 없는 약을 사서 먹기 때문에 약을 남용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사례18, 사례32)

하류층 주민들의 경우 자가 진단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과정에서 아편, 마약 등을 치료에 활용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빙두는 마약의 의미도 있지만 치료제로 인식되는 경향도 강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허○○은 자신도 아편을 먹고 진통을 멈추게 만든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사례12)

“아무 병에나 아편이 만병통치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몰래몰래 심어가지고 그걸 조금씩 가지고 있지요. 감기나 무슨 전염병 같은 거 돌잖아요. 그럴 때도 양귀비가 아편이 최고예요. 다른 약 필요 없어요. 그거 먹으면 바로 낫거든요. 치매랑 왔을 때에 스물 몇 시간 전에 그 아편을 먹으면 바로바로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지요.”(사례13)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아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도저히 안 되면 양귀비 같은 마약류에 손을 댄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하면 당장의 통증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조금만 아파도 마약을 찾게 되고 중독된 후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야 병원을 찾아서 손도 못 쓰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한다.¹²⁶

“빙두(마약의 일종)도 많이 쓰면 사람한테 역작용이 와요. 자기 몸에 맞게 써야 약이 되는데 속이 타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제되면 또 하고 또 해제되면 또 하고 이러다 나니까 이것은 대체로 중독이 안 된다고 북한에서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식량이 어렵고 이러니까 여기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독은 아편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사례22)

(5) 참고 견디는 하류층 주민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 2차 병원의 무상의료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돈이 없는 하류층 주민들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진료소와 시·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면서 하류층 주민들은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한다. 장마당과 개인 약국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약을 사먹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참고 견디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류층 주민들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비싸 살 형편이 되지

¹²⁶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419호 (2011.9.7).

않아 우선 집에서 스스로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렇게 참고 견디어도 차도가 없으면 다음으로 장마당에서 약을 사먹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마지막에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시·군병원과 도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술이나 병을 장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견디려 한다는 것이다.(사례10)

“너무 고통스러워야지 장마당 가서 약을 사먹지 웬만하면 자기 의지로 이겨내는 거예요. 약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않아요. 삼일, 이틀 누워서 뜨거우면 찬물 수건 짤질하고. 나도 특하면 감기 걸려 열이 38도, 39도 올라가고… 겨울엔 수없이 않죠. 그러면 그걸 찬물 대고 열을 식히고 본인 의지로 낫게 되면 낫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한심하면 그때 가서 약을 사먹는 거예요.”(사례32)

북한이탈주민 이○○도 감기 걸리면 참고 넘기는 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일상적이라고 증언하였다. 약을 먹지 않고 견디면서 낫는 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경우에도 열이 나면 이불 쓰고 자고 나면 괜찮아졌다는 것이다.(사례33)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루층 주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지금도 한국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라는 것이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야 병원에 가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봐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냥 개인의사한테 진단 받고,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먹는 게 전부예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익숙하지 않아요.”(사례40)

일반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진료소에 대한 불

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소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민간요법을 비롯해 주민들이 집에서 대처해보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감기나 대장염은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에 가려하지 않는다고 한다.(사례32)

“대개 보면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집에서 민간요법도 해보고 해보다가 막판에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가요. 한 70~80%는 다 그렇게 산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면 늦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사례32)

(6) 생활 수준과 계층별 질병의 차이

경제난에 따른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라 상류층과 하류층 주민들의 질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류층 엘리트 계층의 경우 암이나 당뇨병 등에 많이 걸리는데, 하류층 주민들의 경우 암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먹고 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례15) 한편, 상대적으로 상류층은 생활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도 많다고 한다.

“상류층은 아무래도 특별한 병이 많죠 암도 있고 하류층 사람들은 크게 암이 없습니다. 하류층 사람들은 암에 걸릴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죠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상류층은 보면 암도 많고 당뇨병도 많고 당뇨나 이런 병들이 많고 하류층은 일반적인 병 감기라던가 무슨 급성 충수염이라던가하는 병들이 많아요”(사례17)

특히 하류층 주민들은 굶주림, 비위생적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많다. 여성들은 주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부인병이 많다고 한다.(사례

I
II
III
IV
V

40) 특히 하류층 주민들의 경우 먹는 문제로 인하여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음식 섭취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며칠간 음식 구경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배가 부르도록 먹기 마련이다. 많이 먹고 난 후에는 3~4일간 소화불량으로 인해 배가 아프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빈곤층은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비전통적인 산나물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식량들이 영양소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먹는다고 한다. 자주 풀 또는 풀뿌리를 기존 식량과 섞어 양을 늘리는 방안이 사용된다. 공통적인 증상은 위통·위경련, 구토, 설사, 속쓰림 등 소화기 계통 문제라고 한다.

또한 결핵이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배탈, 장염, 위장 등에 탈이 많이 난다.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염에 많이 걸린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전○○은 본인의 집안에도 간염,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사례13, 사례40)

“못사는 사람들은 병이 대개 결핵이나, 북조선에 결핵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많아서 간염이 많아요. 늑막도 많고요. 그렇게 세 가지 병이 최근에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례13)

이와 같이 최근 북한에 간염과 결핵, 위장 질환자들이 증가고 있는데, 북한 의사들에 의하면 한 마디로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한다. 잘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병들인데도,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들로서 안타깝다고 한다.

환자들을 진단해보면, 다 못 먹어서 생긴 병이다. 그 중에서도 결핵이나 간염 환자가 제일 많다. 짐승들도 안 먹을 음식을 억지

로 씹어 넘기다보니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¹²⁷

북한의 소아과 의사들은 어머니 젖을 못 먹고 바싹 아위어 온 신생아들부터 3살 이상으로는 안 보이는 10살 아이까지 영양실조에 발육부진이 심각한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영양실조도 문제지만 만성 소화장애도 심각하다고 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모유에서 부드러운 이유식을 거쳐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먹을 것이다 싶은 것들을 가리지 않고 구해 먹이다보니 영양상태도 엉망이고, 각종 소화장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¹²⁸

(7) 열악한 위생과 건강권의 위협

북한의 「공중위생법」 제1조에서는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물은 용도에 따라 먹는 물, 생활용물 같은 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무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경제난으로 인해 이러한 「공중위생법」의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센서스결과에서 북한 가정 내 상수도 공급비율은 85%이며 공동수도 이용가정이 2.3%, 펌프식 우물은 8.5%로 대부분 지역 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음용수 수질문제와 위생관리 상태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로, 영유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¹²⁷-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419호 (2011.9.7).

¹²⁸-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85호 (2011.1.12).

있다. 전력부족과 안전한 식수공급에 필요한 정수 시스템의 미비 및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원 노출로 수인성 질환이 만연되어 있다. 2000년 국제기구(UNICEF)의 조사에서 지난 2주간 설사를 경험했던 어린이가 32.4%이었고, 5세 미만 영유아는 20.2%이었다. 설사가 지속되면 영양섭취가 제대로 안되어 영양결핍에 이르고, 이는 곧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질병발생과 사망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나마 공급되는 수돗물은 전력난으로 농촌지역의 공급시간이 평균 1시간 이어서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국제적 기준에 의해 조사한 식수 공급원의 시설만으로는 의미가 적다.

화장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다. 2008년 센서스에서 개인 수세식 시설이 있는 경우가 58%로 파악되었지만 시설만 있을 뿐, 사후 정화처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하수구나 하천에 방류하게 됨에 따라 재래식 변소보다 더 심각한 수질오염과 전염성 질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여부보다는 안전한 식수 공급유무와 오물처리방식에 따른 분류 등에 대한 조사항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센서스 결과, 공동 수세식시설 이용가구는 1.1%, 개인 재래식 변소 34.7%, 공동 재래식 변소 5.8%로 파악되었다.¹²⁹

위생에 대해서도 계층과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달리 북한이탈주민 한○○은 공동화장실인데 엄청 지저분하고 여름에는 파리 구더기가 많아서 이용하기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많지 않다고 한다. 공동목욕탕에 돈을 내고 가는데 겨울에도 찬물이 나온다고 증언하였다. 사우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서 물을 덥혀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

¹²⁹ 황나미, “2008 북한인구센서스를 통해 본 북한보건지표 평가.”

다. 북한이탈주민 송○○은 거울에 물을 연탄불에 데워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사례20, 사례26)

상수도 시설 등이 열악한 곳에서 주민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한다. 물을 힘들게 길어 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 번에 걸쳐 똑같은 물로 씻는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손 씻자면 한 사람이 씻고 나면 다섯여섯 명이 손 씻어야 하지 않나. 물 길러 먹기 힘들지 않나. 한 20~30분 동안에 물 20리터 푸는데 물이 어디서 나나. 그러니까 솔 같은데 물 퍼가지고 신랑이 씻지 않나. 씻고 나면 괜찮지 않나. 거기다 내가 씻는다. 내가 씻고 나면 또 애들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린다.”(사례9)

아파트 생활을 한 북한이탈주민 문○○은 하루에 한 번 2시간 물을 주는데 그 때 물을 받아 놓지 않으면 물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물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물이 부족하여 물을 아껴 쓰다 보니 손을 씻을 물도 없을 때가 제법 있다고 한다.(사례32)

“저 같은 경우는 시장 나가서 장사했는데 하루 종일 손 한 번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마당 옆에 별 오물들 다 갖다 버리고... 변소 보는 데가 옆에 있는데 막 똥물 튀는 재래식 변기예요. 그러니까 파리고 모기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름에 모기 물려서 병 걸린 사람 많아요.”(사례32)

(8) 중하류층 여성의 생리 위생과 건강 위협

위생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생리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도 균을 중심으로 생리대가 보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군들도 생리대 지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I

II

III

IV

V

여군에게 지급되는 생리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장마당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생리대라고 해서 여군들한테 주는 생리대 있어요. 그게 조금
흘러나와서 장마당에 판매하는 게 있었어요.”(사례32)

평양지역과 중상류층 여성들은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생리대는 사용했어요. 중국 것도 나오고 평양에서 나오는 대동
강 위생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쓰더라고요.”(사례11)

“나는 일본에서 수입한 생리대를 썼는데 다른 여성들은 군대
서 여성군인을 위해 나온 일회용 생리대를 시장에서 구입해 쓴
다. 김정일이 여성군인들을 우대해 여성군인들에게는 일회용 생
리대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의 경우 국산 일회용 생리
대를 구할 수 없다 만들지 않으니깐. 대부분 여성들은 중국산 일
회용 생리대를 쓴다. 물론 어렸을 때는 천을 썼다.”(사례1)

“중국에서 들여오는 일회용 생리대를 시장에서 팔거든요. 그러
니까 돈 있는 여자들은 그런 것을 쓰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는 계속 그것을 사다 썼어요. 돈 없는 집에서는 이렇게 가제천으
로 사용하는 여자들도 많죠. 장마당에서 파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서 쓴다는 정도면 정말 그 여자는 잘사는 여자죠. 그게 몇 프
로가 안 돼요.”(사례5)

반면, 중하류층 일반 여성들의 경우 생리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한다. 장마당에 생리대가 있어도 일반 여성들은 생리대를 사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여성들은 ‘가제천’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다고 한다. 조금 형편이 나은 여성들은 그나마 가제천을 자주 갈아주
고 어디 갈 때는 1회용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가제천 알죠. 가제천도 그전에 것보다 지금 중국에서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완전히 깨끗하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제 천에 생리대 모양처럼. 그거 쓰거든요. 그거 쓰다가 또 버리고 또 새 거 쓰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그런 생리대는 여행가거나 어디 집을 떠나서 갈 때, 그 때 샀어요. 그것도 중국 거예요. 시장에 가면 1회용 생리대도 팔아요.”(사례10)

하류층 여성들의 경우 런닝 셔츠 등을 사용하거나 가제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빨아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나는 생리대 같은 것 쓰지 않았다. 가제천 소독해서 빨고 써봤다.”(사례6)

“북쪽에는 가제천으로 썼죠. 별로 생리대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최근에는 휴지 그거 나오는데 여기는 새하얗잖아요. 북한에는 까만 거. 그거나 봤지. 위생대 나오는 건 못 봤어요.”(사례21)

I

II

III

IV

V

IV.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심태와 인식

1. 북한당국의 삶에 대한 공식 지향과 인식의 실제

사람은 태어나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노여워하며,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며 말 그대로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간다. 한 사람의 삶은 온전히 그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삶은 아주 소중하며 소중한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해야 한다. 또한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행복, 곧 충족된 삶이며, 충족된 삶의 표현은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삶에 헌신해야 한다.¹³⁰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개인은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보다 나은 삶,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름 아닌 자아에 대한 의식이다.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삶의 주체, 곧 인식 및 행위의 주체인 자아에 대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도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 이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지향이 있으며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삶의 주체로서의 독립적·자율적인 인격체보다는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를 의식한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자아형성 및 자아확립이 자율적·능동적이기보다는 타율적·수동적인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주민들은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 거의 평생에 걸쳐 의무화된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획일적·반복적인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북한주민들에게

¹³⁰ 안셀름 그린, 이온화 율김, 『삶의 기술』 (서울: 분도출판사, 2009), p. 317.

있어 조직생활은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수용, 습득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당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아의식(인식)의 대상인 자신의 성격과 의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 주변인물과 사회 환경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식(인식)하도록 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북한주민들의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편이었다. 주민들은 배급제·공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해 하는 편이었으며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수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등 체제에 대한 자긍심도 낮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은 모든 인민이 수령(‘장군님’)의 은덕과 배려 속에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며, 아버지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 심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자아의식은 점차 부정적인 것으로 달라졌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공식 배급·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가부장적 국가관에 바탕을 둔 통치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주민들 사이에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지도자의 허상과 ‘어머니 품’이라는 노동당의 허상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확산, 증대되어 갔다. 또한 지속, 심화되어 가는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환경,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더해감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하는 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은 자아에 대해 새롭게 의식하게 되면서 주체사상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진정한 자아의 눈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의식(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 사

이에 의식변화가 확산, 심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의식은 집단 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에서 자아 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은 국가와 사회, 집단을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지향하며 정치·사상보다는 돈과 물질을 위주로 하는 삶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틀에 박힌 규범적·타율적인 삶보다는 자의적·자율적인 삶이 생활고를 덜어주고 생계유지에 적합한 방식임을 체득하였다.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애써 ‘투쟁’하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래일을 위한 오늘’이 아닌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이들에게 있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이들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정치 구호이다. 북한당국의 공식 지향과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의 실재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심화·확산’, ‘자의적·자율적 삶의 방식 체득’, ‘미래에 대한 불안, 비판’ 등으로 집약된다.

가.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심화·확산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공식화된 인생관은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해주는 참다운 인생관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개인보다 우선하여 집단의 삶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국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것이 큰 영예로 된다. 또한 주체의 인생관에

I

II

III

IV

V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참된 행복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창조적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 속에 있다.¹³¹ 참된 행복은 오직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 오늘의 생활보다도 내일의 보람찬 생활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체의 인생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일상화된 조직생활과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주입된다. 한편 북한은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온갖 불행과 사회악의 근원으로 인식케 한다.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사람에게서 제일 귀중한 것이 개인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부패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¹³²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로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반영하는 북한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의 삶의 목표 및 지향은 오로지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관철하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에 헌신, 희생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아가는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 인물들에게 있어 참다운 삶은 ‘위대한 지도자(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을 삶의 요구로, 가장 숭고한 이상으로 삼고 그 길에 자기 한 몸을 바치는 것이며, 이는 고상한 미덕이고 고결한 의무이다. 이들은 당과 수령(장군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재능, 꿈과 포부를 미련 없이 포기하며 개인적인 이상 실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세찬 비판을 가한다. 또한 이들은 인생의 주체로서 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집단 속에 매몰된 자아만을 의식

131-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pp. 183~185.

132-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32.

할 뿐 인간의 존재 의의와 가치, 삶의 목표, 행복의 의미 등을 오로지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서만 추구하려 하며, 이는 결국 당과 수령의 뜻을 충실하게 관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에게 있어 당과 수령의 의지 관철은 그들의 최상의 삶의 목표이며 삶의 전 과정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은심은 자기를 오늘까지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공부시켜 주고 행복동으로 키워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앞에 지닌 인간의 의무이기전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량심이고 도리이기도 하였다. 더우기 그것은 풀뿌리를 씹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¹³³

조국과 인민의 사랑, 마을탄부들의 사랑, 위순길의 사랑까지도 그 태양의 빛발로 이루어지는것이리라. 나는 여전히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사이다. 여기서 한삼의 석탄이라도 보태는것이 내나름으로 선군령도를 받드는것이고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내 만일 사랑을 따라 여기를 떠난 생활은 무의미해지고 서글퍼질것이다.¹³⁴

북한의 ‘고등중학교(현 중학교) 6학년’ 교과서 『공산주의 도덕』에는 한 여성 과학자를 ‘보석 같은 인간’으로 소개한 대목이 있다. “《한생을 당과 조국, 로동계급을 위해 바치리!》를 생의 신조이며 삶의 목표로 살아 온 그는 다름 아닌 김일성과 관련된 연구 성과 때문에 ‘보석 같은 인간’으로 칭송된다.

133. 장선홍, “강반의 달밤,” 『조선문학』 (2003.10), p. 73.

134. 류정옥, “금대봉마루,” 『조선문학』 (2005.4), p. 59.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육성록음문헌영구보존을 위한 금속레코트판을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만들어 낸 것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우리 식으로 이룩한 그의 연구성과들을 새겨보며 사람들은 그를 보석 같은 인간이라고 말한다. 대원수님의 육성록음문헌영구보존을 위한 과학적 담보가 마련된 그의 연구성과는 위대한 원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였으며 우리 인민모두의 크나큰 기쁨으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의 삶의 가치이며 영예이고 보람이다.¹³⁵

심층면접을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내용도 한결같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오로지 당과 수령, 집단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당위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구술내용들은 북한주민들이 독립적·자율적 존재이기보다는 당에 예속되고 집단에 매몰된 존재임을 시사한다.

“거기는 뭐, 당과 수령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도 ‘아! 장군님, 이런 것만 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기보다도,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사례8)

“우리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에는 당이 부르는 곳에 가야 된다. …당을 위해서, 국가는 아닙니다, 당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위해서….”(사례6)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이 지속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사정이 보다 악화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날이 더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유지에 급급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인생관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북한주민들은 자아·가족중심의 개인지향

¹³⁵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44.

적인 인생관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심화·확산되어 가고 있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실체는 ‘집단·사회보다 자아·가족 중심의 삶’과 ‘정치·사상보다 돈·물질 위주의 삶’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집단·사회보다 자아·가족 중심의 삶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궁극목적이다. 삶의 과정은 넓은 의미로 ‘투쟁의 과정’이라는 일면을 가지고 있으며 투쟁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¹³⁶ 북한주민들도 행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평탄치 않은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가느라 ‘투쟁’하고 있음이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생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은 자율적·능동적이기보다는 타율적·수동적인 ‘생각’에 익숙하도록 교양·교육을 받았으며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 북한의 공식 가치지향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행복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희생성과 헌신성에 있다. 또한 행복은 정신적인 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투쟁 과정이 곧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행복의 원천은 ‘수령’이다. 따라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희생성과 헌신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수령의 뜻을 관철함을 의미한다.

행복은 곧 투쟁이다. 참다운 행복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희생성과 헌신성에 있다.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 있다.¹³⁷

¹³⁶- 김태길,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 p. 51.

“삶이란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일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 하죠.”(사례27)

“우리가 교육을 몽땅 다 장군님의 사상으로, 장군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식으로 받는다. 이런 것이 머리에 박히게 공부했다.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 내 삶에 대한 생각보다 내 삶의 시작도 끝도(장군님을 위해서)….”(사례31)

“오직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라는 게 삶이죠. …삶의 목표를 그걸로 정해요.”(사례11)

북한은 주장하기를 행복이란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가 실현되어 만족을 느끼는 생활을 뜻하며 수많은 복 중에서 첫째는 사람복, 인복이며, 이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수령복’이다. ‘수령복’은 “이 세상 복중에서 가장 큰 복, 우리 인민만이 누리는 민족의 최대행복”¹³⁸이라고 한다. 훌륭한 스승, 은인, 친구 등 개인을 잘 만난 복이 있지만 개인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 주지 못하며, 탁월한 수령을 모심으로써만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바, 따라서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다.¹³⁹ 또한 북한은 “참으로 탁월한 수령을 모시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염원”이었으며, 이는 수령 김일성과 영도자 김정일을 “모심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한다.¹⁴⁰ 북한주민들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137. 김삼복, 『세대』 (평양: 문예출판사, 1985), pp. 6~7.

138. 강철국, “시대의 울림에 화답하는 주인공은…,”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p. 32.

139.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p. 53.

140. 위의 책, p. 54.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단편소설 『《박복》한 녀인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선경’의 자녀들을 김정일이 ‘혁명학원’에 보내주고, 남편이 못 다한 연구를 마저 완성하기 위해 평양에서의 대학교원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 간 선경을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데 대해 선경은 크게 감동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정녕 내 삶의 은인이시고 보호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박복한 여인이 아니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자신은 이른바 ‘수령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이다.

순금아, 난 복없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 인민이 자애로운 아버이 이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내세워주고 살피주고 사랑을 주 시는데 세상에 복치고 이런 크나큰 복이 어디 또 있겠니? 글썄 이게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복인가 말이야.¹⁴¹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가 수여되고 후계 세습이 공식화되면서 주민들에 대해 ‘수령복’, ‘장군복’과 함께 ‘대장복’도 행복의 원천임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구성원들(근로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생존경쟁이 없는바, 전 사회의 행복과 매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낳는 현상이 없기 때문이라

¹⁴¹ 김은희, “《박복》한 녀인의 이야기,” 『조선문학』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p. 60.

고 한다.¹⁴² 그러나 1990년대 이래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은 국가, 사회 전체의 불행이 개인의 불행과 일치함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함을 더해 가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북한 소설에서도 드물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1991년 10월에 발표된 단편소설 『내 고향의 처녀들』에서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한 새 세대 여자는 1980년대 말 이래 조짐을 보여 왔던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아이 속상해라. 어머니 이게 바로 지금 추세라지 않아요. … 어머니 지금은 남을 위해 바치고 희생하고 하는걸 다 우습게 생각한단지 않아요. 그래야 저만 못살았지. …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저부터 잘살고 보자는거야.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야.》¹⁴³

최근 작품인 단편소설 『다시 찾은 모습』에서는 긍정 인물로 등장하는 ‘철성’이 혁신자였던 자신의 어머니 ‘영옥’이 공장 노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집과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로 지내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또한 ‘영옥’이 다녔던 공장 지배인도 ‘영옥’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에 있음을 역설한다.

인간의 행복이란 한가정에만 있는게 아니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땀땀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수 있소.¹⁴⁴

142.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118.

143. 리춘구, “내 고향의 처녀들,” 『조선영화 10호』 (1991.10), p. 54.

144. 김순철, “다시 찾은 모습,”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pp. 51~52.

구술자들에 따르면 국가의 배급·공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된 때에는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집단주의가 강한 편이었으며 주민들은 직장 생활과 근로단체 조직생활에도 충실했다고 한다. 이는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국가와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노동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충실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겠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집단과 사회보다는 자아·가족의 삶이 우선하게 된 계기 내지 근원은 식량난, 경제난의 심화, 지속이다. 국가의 배급·공급체계가 무너지고 가족단위로 생계유지 부담을 떠맡게 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더 이상 집단과 사회에 희생, 헌신할 여유도,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행복은 어쨌든 간에 가족이 돈이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사는 것, 그게 행복이죠.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해도 못먹고 못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되요? …사람들은 잘먹고 잘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가족과 함께 잘먹고 잘사는 것…”(사례31)

“(공식지향하는 ‘참된 삶’) 그렇게 살자고 하면 목숨부지가 안 되거든요. 목숨부지가 안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제처럼 생활조건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잖아요.”(사례29)

“김정일, 김일성 그 사람들을 위해 살자고 하면 자기가, 무슨 자기 것을 위해 바라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지 않나.”(사례17)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재산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 …식량난이 어렵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기본, (직장)일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런데 지금은 직장의 일보다 자기 개인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사례28)

I

II

III

IV

V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가족이 한데 모여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북한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이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불편함 없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오순도순 살던 때에 행복감을 느꼈다.

“저희 가족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사례29)

“결혼하니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아이들이 똑똑하고, 정말로 나가서 아이들 때문에 칭찬받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행복했었을 때가 90년도 때라고 할까요. 90년대 초…”(사례31)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한가정이, 이렇게 강냉이밥에 소금을 먹어도, 가족이 있는 게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사례3)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 역시 단란한 가족생활, 선망하는 직업·직장생활, 권력, 돈 등 자아·가족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충족과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역설하는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별다른 의미가 없다.

(2) 정치·사상보다 돈·물질 위주의 삶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활은 ‘정치사상생활’이다. 정치사상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경제생활방식과 문화생활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사상생활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생활과 사상생활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이다.¹⁴⁵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생활 방식은 조직생활이며, 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방식이라고 한다. 인민대중이 자체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며, 이것이 곧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인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방식이 바로 조직생활이라는 것이다.¹⁴⁶

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근로자들의 근로단체조직생활은 그들의 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상생활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정치사상생활방식이다.¹⁴⁷

¹⁴⁵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990, 북한의 ‘조선말사전’에서 ‘정치생활’은 “당, 근로단체와 같은 정치조직에 속하여 사회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사상생활”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조선문화어사전』에는 “당, 근로단체와 같은 정치조직에 속하여 사회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생활”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640.

¹⁴⁶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409.

¹⁴⁷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6.

당과 근로단체 조직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사업은 사상교양이다. 사상교양(정치사상교양)은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이며,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서 기본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¹⁴⁸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며, 북한은 특히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를 역설한다. 사상교양사업은 당이 제시한 사상교양 방침에 따라 방향과 과업이 규정되며 학교 교육기관과 사회교양기관, 당 및 근로단체의 교양체계와 교양망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¹⁴⁹

주체의 인생관이 지향하는 참다운 삶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북한당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의무화된 조직생활을 통해 구현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당원이 아닌 모든 주민들은 11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나면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또는 근로단체 조직생활은 학습, 강연, 생활총화, 노력동원 등으로 진행되며 조직생활에 태만하거나 소극적이면 비판, 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북한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조직생활에 충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강연, 동원 등에 잘 참여하였으며 특히 주민통제의 주요 사상적 기제인 생활총화에 비교적 적극성을 보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직생활에 권태와 피로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뇌물 상납 등 편법을 통한 조직 이탈 행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권』, p. 408.

149. 위의 책, p. 408.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나 집단에 얽매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못 가진다는 것이 원래 힘든 일이잖아요. …한 주일 동안 자기 결함이 없는데, 저번 주에 했던 결함은 또 지적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재미없죠. 그러니까 좀 짜증만 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죠. …기업소에 이름을 걸고, 자기 외화벌이 하는, 자기 수익금을 한 달에 얼마씩, 몇 프로(%)씩 내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 적만 걸고 있지, 뭐 생활충화라던가 이런 거 안 참가하거든요.”(사례28)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권태와 일탈 행위는 주로 2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5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들에게서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이는 젊은층의 사람들은 비교적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편이지만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중국 왕래가 드물기도 하고, 젊은층의 사람들보다 고지식한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조직 일탈 행위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는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장사를 하면서 지역 이동이 잦고 장마당 등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이라 하겠다.

“(50대 60대는 중국에) 드물게 다니지, 그렇게 못 다녀요. 그리고 고정적인 관념이 있어 가지고, …학습도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생활에 매여가지고, 나쁘다는 건 생각은 해도,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남자가 더 그래요. 여자들은 장사하느라고 사방 다니잖아요. 공업품 장사도 하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니깐 들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직장에) 출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깐…”(사례11)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권력(힘)을 꼽는다. 권력이 있으면 금전적·물질적인 풍요와 특혜

I
II
III
IV
V

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권력을 갖기 위한 주요 선행조건이 당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은 여전히 입당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저절로 생겨요. …권력이 좋으려면 가정바탕, 출신성분이 좋아야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분이 좋아지고 우선 대학 다니고, …권력을 가질래야 저 같은 사람에게는 권력이 찾아지지 않잖아요. 바닥(토대)이 없으니…”(사례31)

“행복 하다는 게, 집안이 우선 잘살아야지. …당원 돼야지 토대가 잡히지 않습니까? 당원 돼야지 간부도 할 수 있고, 어디 뽐혀도 먼저 당원을 보니까…”(사례6)

“북한에서는 무조건 입당을 해야, …시집갈 때도, 처녀가 총각을 고를 때도 ‘입당을 했니? 군대는 갔다 왔니?’, 지금도 입당을 본다.”(사례8)

“북한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거든요. 권력 있으면 돈이 생기는데, …당권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초적으로 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대학을 졸업해도…”(사례29)

그러나 ‘돈이 저절로’ 생기는 권력은 “낮은 권력”이 아니라 “높은 권력”이며 주로 당기관과 법기관의 간부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른바 “높은 권력”을 갖기 어려운 일반주민들은 “낮은 권력”을 갖기 보다는 ‘돈’을 더 선호한다. 사실상 당원이 되면 조직생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신분상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상행위, 사경제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거나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간부들에게 뇌물을 상납함으로써 묵인 내지 무마될 수 있

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돈이 많기를 바란다.

“낮은 권력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일반적으로 조그만 공장의 지배인이라고 하면, 초급당 비서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더 낫다)… 조그마한 직종의 권력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사례31)

“돈 많은 사람이면 작은 간부들 같은 것은 이긴다, 작은 간부들 같은 것은 돈 많은 사람이면 와서 말을 못 한다.”(사례8)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가치지향에 있어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주로 나이든 세대들이다. 나이든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보다도 돈을 더 선호하며 특히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대학공부까지 시키는 것이 삶의 주요 목표가 된다. 또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간부로 출세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도 돈을 가장 중요시한다. ‘토대(출신성분)’가 나빠 정치적·사회적으로 홀대 당하는 이들로서는 돈의 위력으로 권력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이든 세대는) 명예보다 돈을 바라지, 명예를 바라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자기 한계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한계점을 아니까 돈 버는데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사례29)

“저는 미용 있잖아요, 미용을 남보다 잘해가지고 소문나서, 사람들 끌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아들을 대학 보내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잘사는 게 목표였죠.”(사례11)

“저희는 (성분이 나빠) ‘간부가 다 못 되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런 목표도 있었다. 저쪽은 돈이 곧 권력이니까, …우리처럼 토대 나쁜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한다.

I

II

III

IV

V

…불법(행위) 하다가 걸리면 우리같이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다. 토대가 좋은 것들은 단속되어도 또 무마가 되지 않나. 계속해서 마음 놓고 장사질 하고, 권력도 있지 않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들고 간부도 못 되고 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못 산다. 거의 돈이 목표다.”(사례17)

사실상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나이든 세대뿐만 아니라 10대의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에서도 돈은 아주 큰 가치를 지니며 이른바 특권층, 상류층의 사람들도 돈을 가장 선호한다.

“주변사람들의 삶의 목표라는 게, ‘1년에 돈을 얼마 벌어야 된다’, ‘1년 동안 쌀을 얼마나 장만해야 1년 동안 먹는다’, 그런 거 같아요.”(사례11)

한 예로 10대 후반의 한 구술자에 따르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돈만 있으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테면 대학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역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도 뇌물(돈)로 묵인, 또는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을 지시하고 싶지, 지시 받고 싶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너 이쪽으로 와’ 막 이러면서… 법도 돈이 많으면, …(불법으로) 중국 갔다 오면 무조건 감옥 들어가야 하는데 돈

내면 안 들어간다. 거기서 보면 그것도 범죄인데 범죄 저지르고
도 돈 내면 괜찮은데… ‘야 이렇게 치면은 살인치고도 돈 내면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사례8)

사실상 식량난, 경제난 이후에 북한주민들 사이에 돈의 가치가 높아
집에 따라 그 위력도 보다 강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대로이다. 특히
불법행위(비사회주의행위)와 관련하여 돈은 법보다 우선한다. 돈의 위
력에 법이 무력화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불법 도강, 밀거래,
불법 의료행위 등의 범법행위를 비롯하여 학습·생활총화 불참 등의 조
직 이탈 행위, 한국드라마·영화 CD 시청, 매춘 등의 비사회주의행위,
그리고 선거 불참 행위도 돈으로 묵인 내지 무마되며 노동당 입당까지
도 돈으로 가능하다.

“입당을 하는 거, 돈을 주고 한다. 전에는 군대를 갔다 오고, 큰
일을 하면은 입당을 시켰는데 지금은 돈 내면 입당을 한다. 그러
니까 좀 간부한테 돈을 갖다 고이고 입당을…”(사례8)

“돈 있으면 입당한단 말입니다. 돈만주면(돈있으면) 입당부터
합니다. 생활력도 되고…”(사례6)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준 높은
삶은 금전적·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이다.

“(수준높은 생활은) 돈도 있어야 되고, 아이도 유학도 척척 보내
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볼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구경 다하
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건강하고, 그게 수준 높은 삶인 거 같
아요.”(사례11)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요건들 가운데

I

II

III

IV

V

데 하나이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전에도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생계유지와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특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식량난, 경제난의 심화, 지속에 따른 공식 배급·공급체계의 붕괴와 장마당의 활성화이다. 이를 테면 북한주민들은 “배급을 줄 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으나 장마당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¹⁵⁰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과 분배는 국가주도의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제이므로 경제난 이전에는 북한주민들이 사유재산이나 돈의 가치에 대해 별다르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사유재산과 돈의 가치, 의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유재산 및 돈의 중요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텃밭이 허용되고 개인 간 매매를 통한 집과 가전제품 등의 구입 및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며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¹⁵¹ 장마당에서 식량을 비롯해 다양한 생필품들을 팔고 있으나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으며, 이로써 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달라진 돈에 대한 의식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후 보다 더 강화되었다. 7·1조치에 따라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됨으로써 매달 받는 노동에 대한 금

¹⁵⁰ 북한이탈주민 ○○○, 2009년 4월 2일 면접,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96에서 재인용.

¹⁵¹ 위의 책, p. 124.

전적 대가가 명실상부하게 ‘생활비’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7·1조치 이후의 물가 급등 및 생물품 부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이다.¹⁵²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유재산과 돈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2009년의 화폐개혁을 “돈이 없는”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끌어내기 위해 단행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으며,¹⁵³ 따라서 재산 소유의 중요성과 돈, 특히 외화의 가치를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행복’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모으고 치부하는 것에 집착하는 편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술자들은 답하기를 북한주민들은 ‘행복’을 운운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형편에 행복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행복보다는, …‘나는 돈만 많으면 돼’, (이렇게) 행복보다는 돈을 좀 위주로, …행복은 크게 생각 안 한다. 여기서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괜찮으니까 행복을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언제 행복을 말하냐,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당장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쓰는 것….’”(사례8)

¹⁵² 위의 책, pp. 124~125.

¹⁵³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화폐개혁 이후 1년: 북한주민인터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0), p. 35, p. 76, p. 95.

I
II
III
IV
V

나. 자의적·자율적 삶의 방식 체득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뜻한다.¹⁵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수령 중심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은 사회 전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 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¹⁵⁵

북한이 주장하는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특징은 혁명성, 조직성, 규율성 등에 있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혁명의 요구에 맞게 건전하게 살며 일하는 혁명적인 생활양식이며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생활해 나가는 조직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것이다.¹⁵⁶ 또한 북한은 모든 생활을 깨끗하고 알뜰하게 하며 문화적으로 살아나가는 생활양식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부르쥬아적 생활양식’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부르쥬아

154.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 168~169.

15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91.

156.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권』, p. 169.

적 생활양식은 퇴폐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생활방식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입장과 생활처지를 반영한 것이며 반동철학인 실용주의, 실존주의 등에 의하여 사상이론적으로 미화분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쥬아 생활양식은 남을 등쳐먹는 승냥이법칙과 남이 굶어죽든 말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부르쥬아생활양식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것은 황금만능주의와 야수성, 인간증오와 살인, 강탈과 사기협잡 등이다.¹⁵⁷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부르쥬아생활양식은 낡은 잔재로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데 저해를 주는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내부에서 나타나는 부르쥬아 생활양식의 작은 요소에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그것이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실천방도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국가적·사회적 통제사업 강화 등이다.¹⁵⁸

‘규범적·타율적’ 삶을 지향하는 주체의 인생관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참된 삶은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으로, 능동적·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소극적으로 사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구현하는 방식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주민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리 자의적·자율적이며 능동적·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주요인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157.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285.

15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권』, p. 169.

생활필품의 품귀, 그리고 물가상승이다. 공식적인 배급·공급체계의 비정상화로 인해 가족단위로 식량과 생활필수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북한주민들은 사회규범이나 조직규율을 따르기보다는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 추구해 나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삶에 있어 자의성·자율성은 주민들 사이에 가장 보편화된 생활 수단인 장사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 상행위들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북한주민들의 자의성·자율성과 능동성·적극성을 보다 더 확대,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전에는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크게 의식해야 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개인 상행위가 허용되는 등 자율성이 공식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경제활동에 있어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일에 대한 의욕 등이 한층 더 적극화된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삶에 있어 자의성·자율성은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사회·조직일탈행위로도 구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민들 사이에 보다 더 심화·확산되어 가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저항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자의적·자율적 삶의 방식 체득은 ‘비공식 자력갱생의 삶’과 ‘사회주의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 저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비공식 ‘자력갱생’의 삶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자주성과 창조성 구현을 위한 투쟁의 실천논리는 ‘자력갱생’이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력갱생이란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살아 나감”,¹⁵⁹ 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립장과

정신”¹⁶⁰을 말한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¹⁶¹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혁명적 입장과 정신은 혁명투쟁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에 의거하여 수행해 나갈 때, 그리고 자기 나라의 건설은 자기 나라 인민의 노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사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에도 충실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져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며 자체의 힘을 믿어야 한다.¹⁶²

159.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말사전』, p. 2579.

160.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4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 160.

161.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459.

I
II
III
IV
V

자력갱생은 김일성주석이 창시한 혁명적 원칙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이며, “자기 나라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이론 실천적 무기”¹⁶³라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혁명적 인민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며 혁명적 신조라고 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혁명적 낙관주의, 백절불굴의 강의한 의지, 불타는 혁명적 창발성”이다.¹⁶⁴

자력갱생의 원칙이 주장하는바,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의 당과 인민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주체적 힘이기 때문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다른 나라 노동계급의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¹⁶⁵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자력갱생은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이론 실천적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주지하듯이 1995년 이래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조를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 노동계급’의 원조를 받기도 하지만 종래 북한이 적대시해 온 ‘다른 나라 자본계급’의 원조도 북한의 체제 유지에 적지 않은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체제 차원에서 ‘자력갱생’의 원칙 및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의의 내지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은 역설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16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4권』, pp. 160~161.

163.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460.

164.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6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216.

165.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460.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력갱생은 북한당국이 공식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비공식적인 자력갱생이다.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비공식 자력갱생의 삶은 북한당국의 공식 지향을 거스르는 자의적·자율적인 삶의 방식이며 태도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비공식 자력갱생의 삶이란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삶의 행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있어서도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은 비공식적인 자력갱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아닌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가족이 자체로, 누가 쌀 주지 않아도, 돈 주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죠. 아무것도 안 줘도…. 그러니까, 보편은 (북한) 안에는 자본주의하고도 같아요.”(사례31)

식량난,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은 ‘내 힘으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감을 가지고 자력갱생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산다. 북한주민들이 자의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력갱생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수단)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것은 장사이다. 이 외에도 북한주민들은 불법 벌목 및 거래, 골동품 밀매, 매춘, 국가소유 물자유용 및 거래, 불법 의료행위, 주택 압거래, 국경 밀거래, 마약 밀매매, 절도, 강도 등 불법적인 방법(수단)으로도 자력갱생하기 위해 애를 쓴다. 특히 비공식 자력갱생을 위해 주민들 사이에 보편화·일상화된 주요 수단은 뇌물이다. 일반주민들은 당 간부, 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간부에게 뇌물 상납 등의 편법을 써서 장사, 외화벌이, 또는 밀거래·매매 등의 개인상행위 내지 사경제활동을 하며 간부들은 일반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무마해 주는 대가로 받는 뇌물수수료 치부를 한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장사가 위주인 것 같아요. …생활을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날 안 돌봐주거든요. (개인주의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사회 자체가 나쁜 거죠.”(사례29)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한 끼 벌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 같아요. 근데 시장에 나가서 그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거나 국경으로, 다 중국으로 도망갔고, 이젠 북한 땅에 남은 사람은 이룰테면 자력갱생해서 살아남은 사람만 살아 남은 거죠.”(사례27)

뇌물을 수단으로 하여 북한주민들이 자력갱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른바 ‘개별수강(개별교수)’이다. 이는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며 주로 외국어와 음악, 무용 등 예능분야에 능한 사람들이 한다. 북한주민들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상류층과 중류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특히 영어와 피아노 개별수강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개별수강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도 한다. 북한주민들이 자녀들의 예능교육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향은 김정일 위원장의 예술적 성향에서 근원을 찾을 수도 있다. 사실상 김정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 과정에서 당의 선전선동 및 문예부문을 장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 위원장의 예술적 성향과 우상화 및 정권 장악, 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문예 활용 가치의 극대화 등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자녀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학 등 외국을 가려면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알아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 사이에 영어 개별수강의 수요가 많다고도 한다.

“북한은 우선 아이들에게 예술을 세계 시키려 해요. 피아노라던가 외국어 학원, 영어를… 또, 잘사는 집들은 ‘그런 거 좀 발전시켜 볼까’, 그런데 신경 돌려가지고 그런 학원에 보내는 집들이 많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는지’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이 원래 김정일이 세계 시키니깐… 그 공화국(북한) 아가씨들은 다 예술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다 호강했으니깐, 그걸로 해가지고 아버지도 출세해 데려가고 이러니깐 그걸 봐서 다 시키는 거 같아요. …영어를 해야 이젠 앞으로 외국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가잖아요. 북한(당국)이 그래도 공부도 괜찮고 잘하는 학생들은 유학도 보내요. …‘왜 미국을 욕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나?’, (그러면) 말하는 게 모두 그래요. ‘영어는 미국나라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아무데 가서도 말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운다’ 그렇게 얘기해요.”(사례11)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식량난, 경제난 이래 북한여성들이 자력갱생에 있어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는 생계유지와 같은 가정생활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가족의 생계유지를 여성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해 있는 북한에서 남자들은 특히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바, 이로 인해 여성들의 부담이 컸다고도 하겠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 부담이 더해진 또 다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로 인한 기업소, 공장 등의 가동 중단이다. 기업소 및 공장에서 작업이 중단, 또는 지연됨에 따라 일거리가 없거나 노임도 제대로 받을 수 없지만 무단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¹⁶⁶을 준수해야 하므로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

166.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18조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며, 따라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생계유지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보편화된 비공식 자력갱생의 방법(수단)은 장사이다. 또한 자력갱생을 위해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환전이다. 중국의 ‘위안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북한 돈과 바꾸어 주는 환전상은 결혼을 한 여성들 사이에 많은 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도 개인에 의한 환전은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다른 일에 비해 수입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여성들은 환전상을 한다.

“개인들 다 자력갱생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해서 일해도 남편이 (월급으로) 가져오는 게 쌀 2kg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부인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는 온 식구 다 굶어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력갱생이라고 할까요, …(여자가) 가만히 놀면 못살죠.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가족부양이) 내 의무라고 하면…. 거기는 여자들이 주로 모든 것을, 다 장사해서 집을 운영하죠. …(환전상) 불법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산다)…, 여자가 많죠. 아주머니들이 많죠. 다 부인들이 하죠. (걸리면) 돈 빼앗기죠. 몰래 집에서 하죠.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뺏기면, 돈(뇌물) 바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사례31)

구술자들에 따르면 경제난 이래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편이라고 한다. 이를 테면 비공식적인 자력갱생의 방법(수단), 곧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국영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곧 북한주민들 사이에 빈부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서 극소수 착취계급들이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빈궁해지는 현상”¹⁶⁷을 말하며 북한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일컬어 “암담한 생지옥”이라고 단정짓는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으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¹⁶⁸

북한은 주장하기를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짜낸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켜 그 규모를 확대하며 자본의 축적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결과인 동시에 착취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바, 이에 따라 자본축적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가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에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이라는 것이다.¹⁶⁹ 그러나 ‘자본주의적 축적’과는 무관하고 오직 ‘우리식 사회주의’에 자긍심이 높은 북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비공식 자력갱생의 삶이 초래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라 하겠다.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생활은 이른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되었다. 상류층은 권력도 있고 신분도 높지만 특히 돈이 많아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¹⁶⁷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 488.

¹⁶⁸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01.

¹⁶⁹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1권』, p. 488.

상류층의 사람들은 텔레비전, 녹화기,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에어컨, 머리 말리개(헤어드라이어) 등의 가전제품과 컴퓨터, 가스레인지 등도 갖추어 놓고 살며 이전에는 일본제품을 좋아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제품을 보다 더 선호한다. 이들은 전기도 돈을 내고 특선(‘6만선’)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들은 언제나 주식과 부식을 부족함 없이 먹고 주로 한국산 옷과 화장품을 애용한다. 또한 이들은 세관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우유를 마시며 밥하기가 싫으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생수를 구매하여 마신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이들 가운데는 명의를 공장·기업소로 해놓고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별(끌어쓸) 수 있다. 국가에서… 국가 전기는 그래도 켜 있지 않나, 6만선이라고 한다. 6만선이 지나간 것은 24시간 켜져 있지 않나, 그 6만선을, 돈을 내면 그 전기를 별 수 있다. …개인이 발전기도 놓고, …개인차도 가질 수도 있다. 개인 명의로 가질 수는 없지만 공장이다 이름을 적고 그 차를 가질 수 있다.”(사례8)

“(남한상품은) 좀 부유층들이 써요. 화장품이라던가 전자제품 밥가마, 밥가마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드라이기 같은 것도 있어요. 중고가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인데, (상류층) 거기사람들은 보면 티비(TV) 자체를 일반사람들은, 일반 조그마한 거 봤는데 (상류층) 거기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삼성 텔레비전, 벽에다 거는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고 그 다음에 밥 가마 자체도 보온 밥 가마 쓰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하기 싫으면 식당에다가 전화해요, 그럼 식당에서 배식해 와요. 밥해먹기 싫으면 식당 거 먹고 우유도 정상적으로 먹지, …자가용은 많지 않아요 직장 걸고 타고 다니는 거, …아파트에 살죠. 땅집은 도적질 맞으니깐. …수도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압록강 물도 길어 먹고, 그리고 물 파는 것도 있어요. 잘사는 사람들은 압록강 물 안 먹어요. 생물

(생수) 있잖아요. …하나면 북한 돈으로 2천 원씩 팔아요. 잘사는 사람들이 생물 먹고, …옷도 한국 옷, 일본 옷. 그리고 중국 것도 비싼 거…”(사례11)

구술자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의, 식, 주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이며, 이에 따라 먹는 음식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이 구분된다고도 한다. 이를 테면 상류층의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하류층의 사람들은 ‘너무 못 먹는다’는 것이며, 아주 못 먹고 못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고 한다.

“못 사는 사람들은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으니까…: ‘먹는 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진짜 (상류층) 애네는 고기, 먹기 싫어서 버리고, (하류층) 애네는 진짜 옥수수도 없어서 못 먹고 이러니까.”(사례8)

“잘사는 집들은 지금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먹어요. 저도 오기 전에는 바나나도 사먹고 꿀도 먹고, 위생학적으로 좀 더러워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다 사먹거든요. …하류층들은 삶의 질이란 거 생각도 못하고 그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죠.”(사례11)

(2) 사회주의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 저항

북한문헌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¹⁷⁰이다.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자기에게 복무시키며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 활동으로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

170-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권』, p. 151.

리를 가지고 국가 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있으며 누구나 다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주장하기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에 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고,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민적 정책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해 준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¹⁷¹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¹⁷²라는 말로 귀결된다.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우월한 사회제도라는 것이다.¹⁷³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주민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참다운 조국”¹⁷⁴이며, “참다운 어머니 품이고 행복의 요람”¹⁷⁵이다. 또한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

171-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96.

172-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권』, p. 151.

173-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pp. 595~597.

17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10.

175-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돛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4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19.

장하는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다.¹⁷⁶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상적인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체제에 대한 자긍심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와 ‘수령’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각인시킨다. 실제로 있어서도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해하는 편이었으며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수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등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한다.¹⁷⁷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주의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 대해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지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심화·확산되는 등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경제난의 심화, 지속으로 인해 배급·공급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주의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게 꺾였으며 주민들 사이에 ‘인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 내지 저항 의식이 형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이완과 함께 개인 상행위, 절도, 뇌물 수수, 조직일탈, 직장일탈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확산·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다.

17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p. 432~471.

177. 북한문헌에 따르면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은 인류 역사에서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뿐이라고 한다.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 2호 (1997.2), p. 63.

I
II
III
IV
V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오직 인민을 위한 삶을 생활신조, 인생관으로 하고 살아왔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이다. 또한 북한이 공식 지향하는 바,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신념’¹⁷⁸ 가운데 기본은 수령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 받드는 숭고한 정신이며,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유일한 삶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오직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당국은 사상 교양을 통해 김정일을 김일성과 다름없는 ‘위대한 지도자’, ‘자애로운 아버지’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며 문학예술작품을 통해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술자들에 따르면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김일성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다.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가계우상화에 집착하는 인물이며, 김일성과는 달리 ‘인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이며, 나라 살림을 잘 못해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통치자로 인식하고 있다.¹⁷⁹ 경제난이 악화, 지속되고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심화·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한층 더 고조시킨 사건은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으로 모아 둔 돈의 가치를 상실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돈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보다 더 심화된 것이다.

17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권』, p. 412.

179.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143~144 참조.

“2009년도 11월에 화폐개혁 했죠. …개인이 망한 게 정말 많았고, 엄청 많았죠. 조금 있던 돈 다 없어져서 정말 힘들게, …김정일이 다 빼앗아 갔는데, …진짜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김정일에게 돈 다 도둑맞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화폐교환하면서 사람들 머리가 완전, 이제는 국기를 믿지 않아요. …저 화폐교환 때문에 빼돌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아침에 김정일에게 돈 다 도둑맞았다고 말하는데….(사례31)”

김정일에 대한 반감과 관련하여 한 구술자는 젊은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정일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 ‘종신석기’라고 놀린다고도 한다. ‘종신석기’란, 이를 테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이해가 늦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젊은사람들은 무슨 ‘21세기 태양 김정일 동지’ 하면 그 말 자체를 무시한다. 구호자체를 외치라고 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서 못 외친다. …이제는 조금 친한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이 김정일에 대해 좀 좋게 이야기 하면 ‘종신석기’라고 많이 말한다. 종신석기라는 게 말하자면, 종신, 영원하게… 석기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모자라는 사람들을 석기라고 한다.(사례17)”

그러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처벌을 우려하여 주로 당·국가기관과 법기관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탓하며, 이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토로한다. 실제에 있어 북한주민들은 생활고의 근원이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있다고 생각하여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를 묻는데 대해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정치’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단적으로 말하여 북한의 정치는 ‘평민’들을 ‘뜯어 먹는’ 간부들의 삶을 위한 정치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간부들의 삶을 위한 것이고 북한은 간부들을 위한 나라이다. 저기 자체가 아마 60%는 간부일 것이다. 저 나라가 일하는 사람은 작고, 뜯어 먹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사례17)

“보안원들도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들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돈을 빼내게 할까’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죠. …‘무엇을 단속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거의 머릿속에 차 있어요.”(사례31)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심화됨에 따라 당과 국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졌으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및 평가도 더 부정적이라고 한다. 주지하듯이 경제난 이래 주민들 사이에 심화,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의제도 및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외부 정보의 유입·침투로 인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된 남한 드라마·영화 CD·DVD를 구입하여 몰래 보며, 최근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USB를 이용하여 외부정보를 입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합법·불법적인 중국방문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다른 사회·체제에 대해 새롭게 파악, 인식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 나간다.

“몰래 본다. …중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더 단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하고, …한국 것을 보고 엄청 좋아하고….”(사례8)

“USB 가지고 남쪽이야기 많이 봤어요. 보다가 들키면 퇴학이거든요. 가차 없이 퇴학이거든요. 최대한 주의하거든요. …한 사람이 잡히면 줄줄이 붙어서 끝이 없죠.”(사례29)

“혜산이라는 게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경이니까, 20대, 30대 때에는 중국에 자주 다녀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세상물정도 아니까,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니까 다 알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사례11)

북한주민들은 중국 영화와 남한 드라마·영화 등을 보면서 중국과 남한 국민들의 사는 모습에 비추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중국과 남한 사람들의 잘사는 모습을 부러워한다. 이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선망에는 당·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서려 있다. 이를 테면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원망,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당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찬양, 숭배하라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반감 등이다.

“중국영화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야 중국 꽃제비는 남자들이 개털 슈바에 얼마나 좋은 바지만 입고 그러고 사는지 아니? 중국 꽃제비는 그런데 (북한) 여기서는 잘사는 사람만 이거 입잖아, 여기서 잘 살아야 중국 꽃제비만 해’, 이러면서...”(사례8)

사회주의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신 및 반감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남한 등 다른 사회·체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 대한 불만, 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주민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어 간 것이다. 구술자들은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라고 한다. 당국이 힘들게 생계유지를 해나가는 주민들의 자율적 사고와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단속, 통제한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나라에서 해주지 못하지 않나? …(직장)이런 데서 일을 안 하면 나라 공장이 안 돌아가고, 나라에서 공장이 돌아가도 뭐 돈을 나눠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수입을 하던 뭐 하든, 뭐 사람들이 제 머리로 자기가 살고 싶다는 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렇다. 통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좀 그 (북한) 안에서 시민들도, 평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거 너무 메웠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이면 누구나, 할머니들도, ‘조금만 요거 풀어주면 좋지 않아’ 그러면서…”(사례8)

“주민들을 이 안(북한)에다 넣어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게 딱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지겹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흔히 보면은 깡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혜산에서 살 때 보면은 제 동무들 70%는 그렇게 생각해요.”(사례31)

“거기(북한)는 말도 딱 막고, 못 말하게 하고, 김정일이 책에 딱 나와 있는 거, 그 한도내에서만 말하게 하지, 그 외에 어디 가서 본 거, …하나도 못 말하게 해요. 그런 거 말하면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자유 없고,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추위도 치마를 입어야 하고, 치마도 또 정해진 길이가 있어요. …허리선도 없는 통자 바지 입어야 하고, …귀걸이도 못 걸게 해요.”(사례11)

한 구술자는 대학생할을 하면서 이상화 관련 교과목과 조직생활 등에서 국가와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으며 졸업 후 자신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직장배치를 받게 되면서 권력과 뇌물로 통하는 국가·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또한 구술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국의 주민 통제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모든 게 뇌물로 되고, 어떤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무튼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체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니까, 일단은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초보적인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길 통제하니까….”(사례27)

북한주민들은 휴일, 또는 여가에 가까운 친구 등 친지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는 일이 드물다. 특히 여럿이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금기시 한다. 이는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의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술자리에서 취중에 무의식적으로 ‘내뺨은’ 정치적·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몇 명씩 모여 함께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가만가만’ 진행된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제도 및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발전상에 관한 말들은 ‘절대 신뢰하는 한 사람’과 하거나 아예 화제로 삼지 않는다.

“술자리 하는 걸 못하게 하죠.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속에 있는 소리 다 하게 되잖아요. 술은 일체 두 명 이상 앉아서 마시지 말라고 해요. 밥 먹는 건, 뭐 모여 먹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술자리만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가만가만 술도 마시고 놀아요. 춤도 추고, 자기 노래도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사례11)

“불만 표출을 조심해서 했죠. 아무렇게나 막 안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좀 통하거든요. …이야기 하다보면 그런 불만 꺼리가 나오는 거죠. …몇 명씩은 아니고 둘이서, 집에서 술 마시다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세 명에서 이야기 해 본적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나중에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사례27)

“다른 나라에 관한 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딱 입을 닫아 놔야 하니까, …사람들이 딱 입을 닫아 놓고 일체 말 못해요. 속으론 알고 생각하는데…”(사례11)

I

II

III

IV

V

그러나 북한에서 미용업을 하였다는 한 구술자에 따르면 북한여성들은 모이면 남한 드라마를 화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남한 여성들의 화장, 옷차림, 장신구 착용 등을 본뜨기도 하고 남한 여성들의 말을 따라 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여성들의 외모 치장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음은¹⁸⁰ 이와 같은 여성들의 ‘자의적·자율적’ 삶의 태도를 크게 우려한 때문이라 하겠다.

“여자들끼리는 한국드라마에서, ‘그 여자 머리 이쁘더라, 피부 좋더라, 화장품 뭐 썼지’, 이런 것들 말하고…. 가만가만히, 이런 또래 아가씨들이 내보고 연예인 CD 하나 가져오겠는데 요거 고대로 머리 해달라고….”(사례11)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침투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확산되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개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며, 생계유지에 급급한 어려운 사람들은 북한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당의 공식지향을 따르는 편이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녹화물 구입, 시청이 어려우며 중국 방문도 할 수 없고,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기회도 거의 없으므로 외부 사회·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당국의 사상 통제에 순응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녹화물 시청을 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¹⁸⁰ 『중앙일보』, 2011년 9월 30일 참조.

“학생들 사이에 ‘야, 우리 앞으로 특색 있는 사회주의로 나간대’ 이러면서…, 그런 애들 뜨문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집안 경제가 따라가는, 북한에서 그래도 좀 산다는 집은 그런 말을 한다. …잘사는 사람들은 중국도 좀 알고, 남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렇지 않나,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당국의 선전 및 공식지향) 그 틀밖에 모른다, …(못사는 사람들도 국가를) 원망은 하지만 ‘야, 특색 있는 사회주의가 그게 자본주의지 그게 사회주의냐?’ (하면서), …엄청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느낀다. …(녹화물을) 보려고 안 한다. ‘야, 저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사례8)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본 거 많아요. 외부소리도 많이 듣고 본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지만 하류층 사람들은 본 게 없어요. 딱 달아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로 중국이나 가본다던가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본다던가(하면), 벌써 정신 각이 떠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김정일이 아무리 통제해도 ‘나리는 죽던 말던 돈벌어야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지. 모험 하면서 돈 벌어요. (바깥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못살아요.”(사례11)

북한의 공식지향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행복에 있어 조국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조국은 일컬어 ‘어머니 품’이며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조국은 사회주의조국인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됨으로써 나라의 주인이 되며, 이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사회주의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이며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창조적 생활의 보호자인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창조적 능력

I
II
III
IV
V

을 마음껏 키울 수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¹⁸¹

인간의 참된 보람은 우리 삶의 원천이며 행복의 요람인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길에 자기의 심장을 깡그리 바쳐나가는데 있다.¹⁸²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룡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¹⁸³

그러나 경제난 이래 어렵게 살아가며 생활고에 지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사회주의 조국’은 더 이상 ‘어머니 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느바, 사회주의제도과 수령이 있어 자긍심이 높았던 사회주의 조국은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원망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비판: ‘래일을 위한 오늘’보다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

북한의 공식지향에 따르면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래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

181- 김창하, 『참된 삶의 길』, p. 258.

182- 오경희, 『삶의 좌표』, p. 164.

183-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95.

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만들어 낸 구호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이다. 이는 곧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조국의 앞날과 후손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에 헌신하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바, 주민들이 미래를 낙관하는 데에는 ‘장군님(김정일)’이라는 존재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지도자 김정일이 주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 주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낙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은 ‘래일을 위한 오늘’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음이 주지하는대로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신과 가족이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기에 급급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조국의 앞날과 후손의 행복을 위한 헌신’은 엄두도 못 낼 아주 비현실적인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또한 당국이 종용하는바, 북한주민들이 혁명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지녀야 한다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신념과 배짱은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사선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게 까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관과 불안 속에서 사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은 최근 급증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약 밀매 및 복용 실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경제난 이래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편이며, 최근에는 특히 마약을 밀매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밀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마약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마약 밀매자와 그 주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밀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유층과 젊은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 복용사례가 많다고 한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마약 복용이 확산되어

I
II
III
IV
V

가고 있다고 한다.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심심풀이’로 마약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편 같은 것, 마약 같은 것, 얼음 같은 것, 빙두, 빙두 하는 사람들도 괜찮게 살고, …빙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빙두 팔겠다는, …마약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집은 대개 그 친구들까지 조금씩 하게 하겠죠.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주로, …잘사는 계층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밀수하는 사람들도, …(여성들도) 많이 해요. 그냥 밤새고, …모여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여서 냄새 맡는 거예요. 코로 맡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 금방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아요.”(사례31)

“마약 많이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함남도 함흥에서, 그러니까 빙두를 만들어 가지고, 얼음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 국경지대에서 날라가는 사람도 있고, 날라다가 팔아 먹고….”(사례28)

“함흥에서 대학교 다니던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졸업하고 오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놀고 하는데 애네들이, 북한에서 필로폰 한 번 하자는 것을 ‘한 방 하자.’ 라고 하거든요, …애네들한테 술 마시자고 하니까 촌스럽게 무슨 술을 마시냐는 거예요. ‘그럼 술 안마시면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네들은 진짜 자주 하더라고요.”(사례27)

북한주민들 역시 건강을 해치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복용한다.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손에 넣기가 어렵지 않고 ‘사는 게 무료해서’이기도 하다.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무료하다는 것이다. 구

술자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무료함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
로 인한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의 제약, 전기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텔
레비전 시청, 독서 등 귀가 후 여가 활용의 불편함, 그리고 여행 등 자
유로운 지역 이동의 제한 등에서 비롯된다.

“그 세상(북한)에는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즐겨봐야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즐
기면 즐기는 거지. 그리고 앉아서, 못 보게 하는 드라마들 그런
거 보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니면 포커하거나… 그러니까 이젠 뭔가를 희열을 못 느껴 보다
가 마약을 통해서 그런 기분을 느낀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마약이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하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하
는 거 같아요.”(사례27)

“저는 생각한 게, 북한이라는 게 너무 자유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필요 없고…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전기 없어가지
고… 생활이라는 게 재미없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한 7시부터
어두워지면 새까만 한 데 누워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노는 데도 없고 오락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생활이란 게 재미도 없고 하니깐, …북한이라는 데는 생각할 필
요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앞을 내다볼 생각도 없어요. 오늘오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만 해요.”(사례11)

북한주민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
동하는 삶’이다. 이는 특히 공장, 기업소 등의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에
게서 많은 편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데다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생활
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해진, 주어진 일만을 하는 직장생활이 지
루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퇴근 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른 ‘돈 벌
이’를 해야만 하는 기계적·반복적인 하루일과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
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북한) 거기서는, …그저 일하지 않나, 남자는 무조건 일해야 하니까 국가일을… 아침부터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퇴근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돈 조금 벌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런다.”(사례17)

북한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극단적인 사례는 ‘자살’이다. 북한에서는 자살을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라 하여 엄중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살기 힘들니까 자포자기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다 죽는 것이…”(사례28)

“화폐교환 하고서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 …압록강 물에 겨울이니까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아이를 업고 썩썩 오더니 거기에 풍덩 빠져 들어가요. 자살하는 거예요. 애기를 업은 채로 물구멍에 쏙, 물구멍에 들어가면 키가 높으니까 그냥 죽죠. (자살하면 반역죄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지 못 하니까 죽는 편이 낫다, 죽자’고 결심한 여자들이겠죠.”(사례31)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삶’, 또는 ‘인생관’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의·식·주 생활에 있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삶의 목표, 삶의 방식, 행복 등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연명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뿐이다. 이를 보면 이들은 “우선 입에 들어갈 쌀부터 구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별어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오늘 하루 벌어먹을 생각만 하니깐, ‘우선 입에 들어갈 쌀부터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지. (삶, 인생) 그런 생각 아예 못하죠. …(식량난) 전에도 삶의 목표라는 게 크게 없었어요.”(사례11)

“삶의 목표를 논하기에는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명부지도 하기 힘든데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하루 살기가 힘든데…”(사례29)

“(삶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을 안 한다.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새도 없다.”(사례17)

극단적인 사례로 10대 초반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27년 동안 생활하고 나온 북한이탈주민 여성 구술자에게 북한에서 살 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자,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생활을 할 때에는 수용소 생활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삶 자체가 싫었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말하였다.(사례3)

북한에서 살 때 ‘아! 사는 게 참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때가 있었는가를 묻은 데 대해서도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하였다. 북한주민들은 행복, 또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잘 말하지 않으며, 그 개념에 대한 의식이 없는 편이라고 한다. 이들은 친구, 직장동료, 또는 이웃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삶’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 ‘삶’이라는 화제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삶을 주제로 하는) 그런 형태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를 테면 어떻게 살아야 보람이 있는지 생각

I

II

III

IV

V

못한다. 북쪽에 사람들은 아직 깨지 못했다.”(사례17)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고 다른 사회·체제에 관한 정보가 유입, 침투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삶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각인되었던 삶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집단 속에 매몰된 자아가 아닌 개성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된 것이며, 이로써 자신의 삶을 의식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모색,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여성 구술자는 중국을 왕래하고 남한 드라마·영화를 보면서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10여 년 동안 탈북 및 남한으로의 입국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고 한다.

“(영향을) 주죠. (외부 관련 정보) 그게 크게 영향 끼쳐요. 그 정보를 다 봐서 탈북해 왔지,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올 생각도 못해요. 나는 그거 안 다음부터, 10년 전부터 탈북하자고 애를 썼어요. 그거 안 다음 ‘내가 한국에서 살아야겠구나’...”(사례11)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한 의식 및 인식은 눈에 띄게 달라져 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삶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이라는 ‘주체의 인생관’,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개의치 않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치 있는 참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수령으로부터 ‘받아 안는 고귀한 정치적 생명’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의의 및 중대성을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영생’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보다는 먹지 못해 굶어 죽어 잃고 마는 육체적 생명을 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생명 유지에 집착한다. 영생을 기대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집단에 매몰되어 살기

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 유지를 더 바라며 이를 위해 사회·체제 일탈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한 성직자는 말하기를, “삶은 어두운 계곡을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픔 속에도 삶은 흐르고 있다”¹⁸⁴라고 한다. 이 말 속에는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무하고 격려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북한주민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게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적지 않은 북한주민들은 삶이 흐르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 계층별 삶의 질: ‘핵심·동요·적대’로부터 ‘상·중·하’로

가. 계층구조 변화와 삶의 질

북한은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했다는 1958년 12월부터 1년간 중앙당집중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1966년 4월 이후 주민재등록 사업을 통해 주민성분 분류를 한 이후, 1967년 3계층 51개 부류구분사업, 1972년 주민요해사업, 1980년 주민증 검열사업 및 외국귀화인·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3년 주민증 갱신사업, 1989년 주민재등록사업을 하였다. 이어 1997년 「공민등록법」 채택을 통한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한 후, 1998년 공민증 갱신사업과 2004년 공민증교체 발급을 통해 북한 정치사회의 주요 변화시기를 전후로 하여 주민 성분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¹⁸⁵ 또한

¹⁸⁴ 안셀름 그린, 이온화 옮김, 『삶의 기술』, p. 317.

¹⁸⁵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32.

본 연구과정에서 면접한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6월 이후 공민증 재발급사업을 통해 주민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중 1970년 3계층 51개 주민 부류구분사업을 통해 분류된 북한체제의 공식적 주민성분 분류는 아래 <표 IV-1>과 같다.

● 표 IV-1 북한의 공식적 주민성분 분포 및 분류

계 층	분포	분 류
핵심계층 (핵심군중)	28%	당·군·국가기구 주요 간부, 각 기업소 지배인 및 당비서, 지역 고위간부 등 최상위 1% 포함.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 열사 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테리, 6·25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동요계층 (기본군중)	45%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집객업자, 월남자 가족(제 2, 3 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 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화·방탕한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적대계층 (복잡군중)	27%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 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등 21개 부류

출처: 통일부, 『2010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10), p. 215; 한영진, “식량난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핵심계층 변화,” 『北韓』 (서울: 북한연구소, 2007), pp. 93~96. 두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핵심계층 중 북한인구의 약 1%인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한 20여만 명의 최고집단들은 항일빨치산 가족 및 그 연고자들, 건국 및 6·25 전쟁 공로자들, 고위지도층들로 대부분 수도의 중앙기관과 당·군·정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최우선적 특혜를 받으며 세습 귀족집단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최고집단 주위에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

는 핵심계층(핵심군중)이 있다. 이들이 북한체제의 기득권 및 수호 세력들이다.

기본군중으로 표현되는 동요계층은 주로 핵심계층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형성하는 이들로,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각종 사회조직 성원이며 전체 북한주민의 약 4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복잡군중으로 표현되는 적대계층은 북한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북한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정권의 감시 및 통제의 주요 대상이다.

북한당국이 유엔인구기금과 1993년 이후 15년 만에 2008년 10월 1~15일 동안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 결과 유엔에 제출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지역별 기준 총 인구수는 23,349,859명이다.¹⁸⁶ 이에 기초하여 북한의 공식적 주민성분 분포 및 분류에 따른 인구수를 추론하면, 핵심계층은 최고위층 간부집단 1%인 233,498명과 그 외 27%에 해당하는 6,304,461명을 합친 총 6,537,959명, 동요계층은 45%에 해당하는 10,507,436명, 적대계층은 27%에 해당하는 6,304,461명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별 인구규모를 보면, 1993년 북한의 노동력 규모는 공업 및 건축업에 해당하는 제2차 산업이 41.6%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업 30.7%와 1, 2차 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18.2%의 노동 인구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8년 2차 산업 노동력 비중이 32.6%로 감소한 반면, 1차 산업이 36.0%, 3차 산업이 33.6%로 훨씬 높은 구조로 전환되었다.¹⁸⁷ 이는 심각한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발전을 거치며 공장

¹⁸⁶-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허소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인구 변화추이,” 『북한 해양수산 리뷰』, 제13호 (2010.4), p. 1에서 재인용.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인 2차 산업이 후퇴하고, 시장발전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생존양식을 터득하면서, 일용·서비스직 중심의 3차 산업이 월등히 높은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함께, 과거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류되던 북한주민의 계층이 부의 규모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재구성되었다. 무엇보다, 권력소유와의 연계성 정도에 따른 ‘부-권력 공생네트워크’에 의해 신흥 부유계층들이 생겨났다. 1990년대 식량난 이전 시대까지의 ‘정치-사회적 계층구조’가 식량난 이후 ‘정치-경제적 계층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주요 계기는 무엇보다 배급제도의 기능마비와 시장 경제활동에 따른 부의 재생산이다. 북한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 칭해지는 식량난 이전에는 대개 국가에서 공급하는 배급과 보수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1%의 최고위층을 제외한 일반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존에 절대적인 식량 배급제도가 마비되면서, 동요계층과 적대계층 뿐 아니라 핵심계층의 상당수 인구들도 시장에 생존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장 및 시장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사회경제적 균열을 야기하는 주민들 간의 소득차이 역시 높아졌다. 아직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000년대 북한에서도 자본주의사회와 유사하게 부의 규모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사회계층을 ‘상류층’-‘중류층’-‘하류층’ 3부류로 범주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식생활을 기준으로, 둘째, 의생활에 따라, 셋째, 주생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¹⁸⁷ 식생활을 기준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¹⁸⁷-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허소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인구 변화추이,” p. 2에서 재인용.

보면, 상류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며, 중류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 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하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¹⁸⁹ 그 구성비는 지역과 도시/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화폐개혁 이전에는 상류층이 대략 10~30%, 중류층이 30~50%, 하류층이 50~70% 수준이었다.¹⁹⁰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를 기준으로, 화폐개혁 이후 2010년 탈북한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류층은 10~20%, 중류층이 15~30%, 하류층이 50~70% 수준이라고 증언한다.

(1) 화폐개혁 이후 계층구성비

북한 내 계층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접대상자들에게 첫째, “선생님이 북한에서 떠나기 전에 북에서 사시면서, 생활 수준에 따라 주민들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

¹⁸⁸ 2008년 통일연구원이 2006년 이후 탈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4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계층 분화가 드러난다.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심층면접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도 다양한 소득분포를 보였다. 그 중 소득수준이 적은 경우는 북한 돈 몇 천원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월 1백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던 사람도 존재한다. 배급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득수준의 차이는 바로 주민들의 계층화와 균열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¹⁸⁹ 이들을 소득 수준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위의 기준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가격이 계속 크게 변동하고, 비공식 달러 환율도 시기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증언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¹⁹⁰ 위의 책.

I
II
III
IV
V

까?”라고 질문하였고, 모든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2010년 기준(탈북직전 기준) 선생님의 경험과 사시던 동네에서 볼 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식의주 상황 및 권력 상황) 구별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화폐개혁 이후 2010년 기준 북한주민을 부의 규모 및 생활 수준에 따라 구분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상류층은 10% 이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난 이전에는 중류층이 많지 않았는데 경제난에 따라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력갱생 과정에서 살 터전도 장만해나가면서 40~50%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중류층이란 세끼를 굶지 않고 먹고 쓰고 살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에서 돈이 부족하므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중류층이라고 본다는 것이다.(사례 16)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상류층은 20% 정도, 중류층은 30% 정도, 하류층은 50% 정도라고 평가하였다.(사례19)

이러한 계층의 비율 차이는 우선 지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 하류층은 지방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생존하는 사람은 아주 못살지도 않고 잘살지도 않는 삶의 수준을 중류층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들은 국경지역에서 중국과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간부들의 생활 수준은 높다고 한다. 보안부서의 감찰과, 수사과와 같이 북한에서 말하는 ‘법관’들은 생활형편이 좋다는 것이다.(사례19)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상류층은 100명에 많아야 8명 정도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상류층은 중국과의 교역, 특히 밀수 등에 종사하는데, 가족이 함께 돈을 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류층은 교역에 종사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류층은 보안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남편이 벌어오지만 부인은 집에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류층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있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위 간부가 아닌 중간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속한다고 한다. 지역단위에서 권력을 가진 보위부, 보안서, 당 일꾼 등의 사람들이 중류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과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중류층인데, 북한이탈주민 박○○은 자신의 동네 보안소에 보안원이 10명 정도인데, 이들이 중류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소나 공장의 지배인, 당비서 등이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한다.(사례13)

그리고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100명 중 상류층은 10명, 중류층은 30명, 나머지 60명 정도는 하류층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 15명은 최하류층이라고 증언하였다.(사례17)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상류층 15%, 중류층이 15%, 중하층이 약 70%로 정도인데, 그 중 20%가 정말 힘들게 생활하는 극빈층이라고 평가하였다.(사례12)

이상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류층 10~20%, 중류층은 15~30%, 하류층은 50~70%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최하류층(극빈층)은 15~2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층 구분도 남한주민 삶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 내 생활 수준에서 상, 중, 하를 구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화폐개혁과 계층구조의 변화

그렇다면 화폐개혁 이후 계층구조에는 변화가 있는가? 전반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주목할 점은 부의 수준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고 권력의 영향력이 화폐개혁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권력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밀수하는 밀수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위예요. 그 사람들이 상류층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류라고 하면 보위지도, 보안소, 당 일꾼들, 행정일꾼들이 중류에 속하고 다음에 하류는 그냥 인민들, 평상인민들이 되게 불쌍하게 살지요.”(사례13)

이와 같이 여전히 북한의 정치체제상 권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경제난과 시장활성화 과정에서 ‘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화폐개혁 이후 정권의 비사회주의의 검열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아침에 망하는 신흥상인도 존재하기도 하나, 여전히 ‘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정치우위의 사회인 북한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권력과 손잡은 새로운 부를 축적한 사람이 상류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과 부가 연계된 집단이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준 잡는 거는 권력보다도 부(돈)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급이 상류층이라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중류층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 말고 차를 가지고 한다던가 밀수도 크게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중류층을 다 이루죠. 그 다음 아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보다 더 낮은 층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나 군이 아니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하게 못사는 사람도 많죠.”(사례17)

여전히 정치우위 사회에서 고위간부들은 권력을 활용하여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상류층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류

층이라 할 때는 보위부에서도 급수가 높은 부장, 부부장, 정치부장 등이 상류층에 해당된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간부들도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직위도 유지하고 상류층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사람들에게는 장사를 통해 상류층의 삶의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우선 국가에서 상류층을 했던 간부들은 자기가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상층이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북한에서 장사해도 교화 갔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들어 국가가 장사를 승인하면서부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살펴주는 간부들은 국가가 권력으로 잘살게끔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비리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그게 흐름이 돼서 간부들도 고인다 해요. 북한에서는 간부자리를 따지고 애를 쓰고 고인단 말입니다. 간부들 다 잘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자기 직위를 이용할 줄 아는 간부들은 잘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이래서 경력 있어서 간부 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사례16)

또한 국가에서 그래도 투자해주는 기업소를 관장하는 당비서는 상류층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국가에서 투자해주면 그런 기업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상류층이에요. 당비서라든가 그 부분에 직접 내려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상류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도당에서 높다고 해도 이런 생산을 하는 기업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잘 먹지 못하고 살아요.”(사례22)

그런데 보안원, 보위부원도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안원이라고 다 잘사는 것도 아니고 못사는 보안원도 있고 정말 하루 밥 한끼

I

II

III

IV

V

먹기 힘들어하는 보안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민들에게 기생하여 사는데 중류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생하여 사는 사람들 중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안원도 있다고 한다.

“일반 보위 지도원 같은 경우는 상류층이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보안서도 그렇고요. 중간급으로 보면 감찰과, 예심과 등에서 좀 높은 중간급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살기 바쁜(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위부라든가 보안부 이런 데 사람들은 지금 북한은 살기 힘들니까 비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민들의 등을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류층이라고 봐요. 아무리 직권이 높아도 살기 힘든 사람은 상류층이라고 보지 않아요.”(사례23)

그리고 중류층은 주로 개인적으로 장사를 통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원, 보위부원과 결탁하여 조금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중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서 일을 안 해도 자기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부를 등에 업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면서도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류층이라고 보고.”(사례22)

그런데 하류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생활을 영위하지만 권력자 등과 연줄을 형성할 수 없어 그야말로 소규모로 하루살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하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도 없고 집안에 나라 주요직이 없어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사람. 말하자면 평백성이지요.”(사례22)

“그런데 하류층은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장마당에 국수라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그날 저녁에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서 먹는 그런 하류층 생활이죠.”(사례16)

(3) 계층분화의 요인: 인맥-연줄,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

생활 수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의식의 차이를 동반한다. 1995년 이
후 1997년까지 북한정권이 공식적으로 지칭한 고난의 행군시기까지는
위와 같은 부의 규모와 생활 수준에 따른 상류, 중류, 하류층이라는
3계층으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경유한
2000년 이후 계층분화의 양상이 상-중-하로 위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수준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을 통해 생존
하는 하루별이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식적인 직업노동이 아닌
주변노동이 팽창하고 각종 일당 및 능력제 노동이 성행할 뿐 아니라
인맥과 연줄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¹⁹¹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북한사회에 계층 분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경우, 권력 친
화력 정도, 해외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도, 시장 활동능력과 결
합력 정도, 노동능력 및 생산성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생활 수준별
계층분화가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2002~2003년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도입 이후 형성되다가, 2004~2005년에는 북한주민사회 내부에
생활 수준에 따른 경제적 계층으로 분화되었다.¹⁹²

생산적 정보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를 빠르게 확

¹⁹¹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규범/제도,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개인들이
사회 내 다양한 규범/제도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에 신뢰가 부가되면서
부와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적 현상을 개념화한 것이다.

¹⁹²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
보』 (2009), p. 165.

I
II
III
IV
V

장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으로 작용하는데, 대개 혈연과 가족·친구 및 동문·동향이나 이웃·특정 모임 구성원·당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북한 사회와 주민세계에 상류, 중류, 하류층으로의 분화 및 사회균열을 촉진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는 혈연적·문화적 네트워크와 그 관계의 유용성 또는 활용정도에 따라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사회적 자본’으로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가족관계, 안면 및 뇌물을 매개로 한 관료와의 관계, 장사나 개인적 수단을 통해 알게 된 관계망이다. 이외 과거 직장이나 인민반을 통해 알게 된 관계망이 있으나, 이는 이전에 비해 생존/생활 향상에 별 기여를 못하고 있다. 국가로부터의 공적 부조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북한사회에서 계층별 사회균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자본은 무엇보다 혈연관계이다.¹⁹³

이처럼 최상류층이 아니더라도 각종 연고로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주민들은, 하류층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녹화기,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등을 갖추고 개인가정교사를 고용하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논한 북한주민들의 생활 수준별 계층분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요소는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이다. 상류층의 잘사는 사람들은 1% 최상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안면관계나 가족관계 등 각종 연고뿐만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후견해주는 ‘뇌물을 매개로 한 비인간적 관계’가 존재한다.

¹⁹³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잘사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었고, 다음으로 중국이나 탈북자 가족을 둔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들 해외가족들의 도움으로 장사나 중소기업에 참여 생활 수준이 향상된 이들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p. 166.

따라서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한 축이기도 하며, 역으로 급격한 사회변동기 사회변화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목적 합리성을 가진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들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자본가 계급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계층을 대표한다.

현재 북한주민의 새로운 계층구분 및 계층위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는 혈연·학연·세대연 등에 의한 가족 및 친구관계, 돈벌이나 시장 활동을 통한 관계, 뇌물을 매개로 한 후견-피후견인데, 권력층인 간부 대 주민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현장연구를 통해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한 연구에 따르면, 간부들의 의식 및 행위 변화 등과 관련하여 간부들의 ‘충성공무’는 약화된 반면, 대신 국가/당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축재를 하는 부정부패의 ‘대안공무’가 보강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가치관이나 국가경제력이 견재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간부들 삶의 동기가 되고 그 결과 정책과 제도의 실행 및 운영도 순조로웠다.

그러나 당과 국가가 국내외적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부적응한 현재, 낡은 충성은 간부들의 의식과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여, 북한 간부층은 북한의 붕괴를 막는 국제적 노력과 배가된 내부의 중앙 통제로 인해, 공무집행의 대안적 동기를 탐색하여 그 출로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자유기고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안공무’라 개념화하면서, 과거의 ‘충성공무’ 저하를 보충하여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체제유지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¹⁹⁴

¹⁹⁴ 그러나 대안공무의 대부분 내용들은 국가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조항에 기초해 보면 부정부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가 체제불안의 재생산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의 통치력 수위는 비교적 복원 또는 유지되고 있으나, 질적 변화 과정을 거치며, 국가와 중간 간부 사이의 괴리가

I
II
III
IV
V

본 연구과정에서 면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는 최상류층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들은 각종 검열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위에서 국가에서 투자해주면 그런 기업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상류층이에요 …당비서라든가 그 부분에 직접 내려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도당이 제일 높다고 해도 도당에서도 이런 생산을 하는 기업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상층이고 또 보위부라든가 안전부 이런데 사람들은 지금 북한은 살기 힘들니까 비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민들의 등을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류층이라고 봐요. 아무리 직권이 높아도 살기 힘든 사람은 상류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중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서 일을 안해도 자기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부를 등에 업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면서도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류층이라고 보고 또 하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도 없고 집안에 가문에 이렇게 나라 주요직이 없을 때 뒷받침을 못 해줄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평백성이지요. 그런 사람.”(사례22)

검열-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볼 때, 상류층이라 할 때는 주로 보위부 간부들, 보위부에서도 부장, 부부장, 정치부장 정도가 상류층이다. 이들은 보위부 안에서도 제일 급수가 높은 부장, 정치부장, 부부장 지위를 가진 경우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보위 지도원 같은 경우는 중류층이고 일반 중류층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며, 이는 인민보안부

증대하여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8.12), p. 98.

도 그렇다고 한다. 보안서도 부장층 급수가 상류층이고 거기서 중간급으로 보면은 감찰과, 예심과 등이 중간에서 좀 높은 중간급이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등 그런데를 보면은 평민들보다 살기 바쁜 하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사례23)

상류층과 중류층의 소득양태를 보면 모두 비사회주의, 불법이라고 평가된다. 2010년을 기점으로 북한산 마약인 빙두(얼음)를 생산 및 매매해서 일확천금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일확천금을 한 것만큼 폭탄(시한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지만, 그 뒤에 큰 권력과의 연줄이 있다.

“중류층이라 하면 옛날부터 빙두도 안하고, 지금 북한으로 보면은 사람을 살게 안 해주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힘겹게라도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차급(차판 장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쌀도 몇 톤급씩 계산에서 전화로 실어 보내라고 하면 되는 이들도 있다. 북한에서도 이제 다 차주가 돈만 차고가면 다 승차해 주고 하차해 주고 하니까 목적지까지 오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때때로 검찰소 등에서 ‘차판장사 한다 차단 시켜라’는 방침을 내리면 중간층에서는 뇌물을 고여 해결한다.”(사례23)

하류층의 경우, 금방 금방 나오는 야채(남새)라던가 이런 거를 받아서, 농장 밭에 가서 농장에서 넘겨 받아가지고 장에 나가서 몇 푼 붙여서도 팔고, 밀천 없이 그때그때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최하류층들인데 북한사회에서도 이제는 모두 다 이들을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한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누워서 굶고 있는 이들도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상호검열이 일상화되어 옆집이라든가 인민반장이라던가, 담당 인민보안원이라던가 하는 이들이 그런 주민의 삶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마

I

II

III

IV

V

음이 좋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보안원은 강냉이라도 한 40kg 갖다 준 다던가 그런 실례도 있다. 그러나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참,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된다.(사례23)

구체적인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 본 연구과정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는 뇌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한 요소이기에, 오히려 남한에 와서 이상하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이 사회에 와서 뇌물 같은 거를 안 고이고, 그냥 공평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편해요. 이상해요 저도 이 생활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는 바로 뭐를 한 가지 하자고 해도 다 돈이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아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안소에 뭘 뺏겼잖아요. 밀수품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바로 무슨 별치 않은 일 가지고도 징역, 교화를 갈 수 있고, 별치 않은 일 가지고도 노동단련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갈 수 있으니까. 서민들은 되게 살기가 힘들지요.”(사례13)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한 광범위한 하류층 관료와의 부-권력 결합 현상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삶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는 다수 북한주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중하급관료와의 관계 친밀도로 나타난다. 이 관계는 사회 전반에 관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된 ‘후견-피후견 관계’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질적 이익을 매개로 한 직접적이며 비인간적인 관계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상화된 뇌물’과 ‘관계의 비신뢰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외화벌이 책임자들이나 검열·통제단위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소속원들과의 관계에서 이

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이 구술되고 있다.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관계대상의 직위가 높으며, 권력구조 내에서는 당과 검찰 간부들이 주 대상이 된다. 그 외 일상적 하류층권력 구조,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규찰대 등을 조직해 시장을 단속하기도 하는데, 이 성원들과도 액수는 적더라도 뇌물관계에 얽혀져 생활 수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¹⁹⁵

한편 관료들도 시장이나 생산단위와 연계된 간부들은 잘살고, 연계되지 않은 간부들은 못살며, 또한 비사회주의 검열이 강화되어도 강한 자들은 살아남고 약한 자들만 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나. 계층별 삶의 질 인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의 규모 및 권력과의 연계성 정도에 따라 북한주민의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이념은 여전히 사회주의와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이념과 현실세계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생활 수준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생활 수준에 차이가 나는 상류층·중류층·하류층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첫째,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사회에서 생활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생활 수준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삶’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의 차이가

¹⁹⁵-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p. 166.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먼저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문제는 이제는 그건 논할 때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거는 이게 사회주의사회냐 무슨 어쩌나 하는 걸 가지고 논하던 때는 이제는 한 15년 더 됐다고 봐야지요 그런 걸 논하지 않죠 …그때(고난의 행군)나 그런 생각을 했지 고난의 행군 금방 끝나서, 뭐 고난의 행군 총화 한다고 어쩌다 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답에 이제는 그런 생각을 누구 하라 해도 그런 생각안하지요. 왜? 국가수준 배급을 똑같이 배급을 주고 나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능력에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속 타는 소리는 볼 부은 소리는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사회주의사회냐 뭐 아니냐 불평할 때는 지났죠, 불평할 새가 없죠. 당장 입에 들어갈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나갔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생각은 많겠지 배 굶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속 타고 울면 울었지, 앉아서 울면 울었지 뭐 누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사례17)

이 증언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미 상당수 북한주민들이 배급이 불안정해지고, 시장경제 질서를 15년 이상 경험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사회이념이 해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이건, 능력이건 간에 가진 자들이 더 잘사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평등이념을 가지고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옛날엔 진짜 사회주의란 게 우린 좋다고 생각했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 우리 자랄 때까지 자네 잘산다 못산다 이런 거 모르고 살았죠. 다~ 고저 비슷한 수준 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고난

의 행군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빈부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사람들 인식이 ‘사회주의란 게 없다’, ‘고저 이 이게 무슨 사회주의야! 무슨 자본주의 나 고저 같지.’ 사람들 인식이 이래요. 사회주의란 인식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상태에서.”(사례16)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잘산다 못산다라는 불평등 의식이 크게 없던 배급제 시대 북한사회는 지나간 옛날이 된 것이다. 이미 북한사회 내에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와 함께 사회주의란 인식이 없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전환된다고 계층별 삶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확장되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북한에서 또 어떤 구호가 있는가. 고저 가는 곳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런. 그게 다 인민들이, 기만하는 그 글이라 생각한다. 가는 길이 험난한데 사람이 어떻게 웃음이 나오요. 근데 계속 그렇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런 구호가 있는데, 오늘에 죽으면 끝이지 내일을 어떻게 바래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을 기만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상태가 고지식해서 옛날에는 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인식이 좀 짝 달라졌어요. 곧이 듣지 않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계속 강성대국, 강성대국 이거 부르짖었는데, 믿지 않아요. 2012년엔 강성대국 문이 열린다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곧이듣는 사람 없고. 지나가면서 흥! 강성대국이 왔대서 문 열어보니 뭐 거기 안에 간부들만 찻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사례16)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우선, 헌신적 삶의 자세를 지탱해주는 국가의 국민 생활 보호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짝 달라’진 것이다.

I

II

III

IV

V

“생활차이가 나는 거 그걸 놓고 볼 적에 나라가 좀 허리를 펴려면 개방을 해야 되겠다 개방을 해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도 외국에 서로 넘나들면서 유통하면은 누구나 없이 좀 잘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불평등) 차이로서는 어차피 나라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라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라가 잘살면서 그런 차이점을 둔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잘살지 못한다는 그런 정황에 있으니까 그저 체제를 바꿔야 하겠다 …인민들이 다 어렵게 고초를 겪고 먹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현실을 놓고 볼 적에 나라에서 인민들의 생활구석구석까지 깊이 헤아려 가지고 대책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사례19)

이와 같이 북한정권이 문물을 개방해서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라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 인민 형편을 생각해 개방체제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정권에 의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 이후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국가한테 속았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도 결국은 국가에 대해 “믿지 말라”로 이제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됐다고 한다.(사례22) 특히 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년 동안 자생적 시장화를 통해 생존방식을 터득한 사람들 중, 특히 큰 권력은 없으나 장사를 통해 잘살게 된 사람들이 화폐개혁을 통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북한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신뢰 약화는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삶이 점점 팍팍해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생존하기 위한 삶의 모색은 다음 증언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너무 하다,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얼굴 쳐들고 뻘히 아는 이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

으로는 말할 수도 없죠. 왜 그렇게 하냐고. 속으로 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모. 정할 수 없는 사람은 배급을 안쥐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숙식을 해요. 그럼 그 직장 동료가 보기에 딱하니 까 자기 집에 데려가 한 끼 먹이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종종 할 수 없으면 시간상 문제죠. 그 사람은 죽던지, 숙박소로 가던지. 여기서 푹푹하고 배짱이 있는 놈은 두만강이라도 건널 생각을 하는데. 그 게가 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을 때 두만강을 뛰겠다 하는데. 정 육체도 너무 볼 것도 없고, 그쪽에도 옛날과 달리 국경을 넘기가 정말 안됩니다.”(사례23)

위와 같이 국가와 사회 전망에 대한 불신과 불안에도 탈북을 하기 어려운 것은 비사회주의 검열과 함께 국경경비가 더욱 강해진 측면과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죽음 불사의 의지뿐 아니라 육체적,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2011년 현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 권력을 쥐던가. 그러지 않으면 머리를, 잔 머리를 써서라도 법을 어겨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라도 밀수장사밖에 나쁜 짓을 할 게 없잖아요. 그걸 해서라도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 돈이 많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권력을 잡던가. 두 길 중 한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서 막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사례13)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권력과 통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 생활 수준상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따라 삶의 질 인식, 즉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생생한 인식실태를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만족이 없습니다. 상층류 사람들도 만족이 없고, 그 상층류 사람들도 내가 상류층에 산다는 느낌 가지지 못하고, 그보다도 더 잘살고 싶구,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사례16)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은 계층 내에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삶의 질 인식 차이는 통일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상류층 잘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통일도 전쟁도 일어나지 말아야 고조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고, 중류층 사람들은 그저 통일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류층 사람들처럼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 잘산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잘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민들은 다 하나같이 통일을 바라고 있어요.”(사례19)로 나타난다.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문제를 계층별 삶의 질과 연계해서 생각할 경우, 상류층은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이나 전쟁 등 외적인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중류층은 밥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때문에 통일문제 등 생활 외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하류층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남한이 잘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기에 통일을 바란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층별 삶의 만족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류층 사람이야 이제 자기 엄마, 자기 형제보다도 자기가 일식 자기 가마목이 문제겠죠… 자기 집 가마목부터.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고 형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자기부터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최고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류층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같은 건 아예 버려지로 보죠. 너희 괜히 산다. 이렇게 봐요. …아 재네는 괜히 살고 있네. 이렇게 봐요. 저렇게 살면 자기네들은 안 산다. 그 뜻인데 자기네 상류층들이 생각하는 게… 인간성도 없고 아예 그저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잘살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삶이란 목표라는 게 돈을 달려면 달러를 큰 궤다 막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보건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돈이라는 게 솔직히 자기 혼자만 그냥 갖고 있어서 그런 집들도 많은데. 자기는 굉장히 잘사는데 부모는 막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는 부모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요. 나쁜 놈이라고. 반드시 그건 죄를 받는다고. 저놈의 자식이 이제 죄를.””(사례23)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존과 돈이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존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위한 이기주의 양태가,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기저에 물질주의가 삶의 질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이 많은 상류층도 물질적 삶의 수준은 높지만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은 낮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의 삶의 질 인식은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야기되는데 사회적인 불안감은 전 계층에 널리 퍼져있다.

“달라요. 돈이 또 많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요… 상류층도 영 행복하게 살지는 못해요. 왜냐 하면요 장사꾼한테서 뇌물을 받아먹어도 뒤가 이제… 권력이 있어도 어떻게 걸리겠는지… 사회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는 못 살아요… 계속 검열이 오니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안전하게 산다는 사람은 없어요.”(사례22)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사회에 비사회주의의 검열이 심

화되면서 안전하게 산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와 같은 계층별 삶의 질 인식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삶의 인식에서 계층별 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은 중상류층에 의식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잘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있다 보니, 의식의 변화도 하류층 주민들보다는 중상류층 주민들 사이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최하류층과 중하류층 생활 수준의 주민들과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생활 및 의식변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3. 세대별 삶의 질: 배급과도기·식량난·시장 세대

가. 세대 구조

어느 사회나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유사한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세대 간 의식 및 문화 차이는 사회구조와 균열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기를 경험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의식차이는 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다. 북한정권 차원에서도 세대는 북한 정치엘리트 변동과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2011년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따라 대개 4세대로 구분하는데, 혁명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1950~60년대 전후복구와 천리마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3세대는 1970~80년대 김정일이 주도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1999년부터 본격화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시기 자라난

세대이다.

즉,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세대를 나누고 있다. 이들 중 북한의 집권엘리트 세력은 항일투쟁 혈통, 김일성가계에 대한 충성, 북한체제의 수립과 발전, 그리고 유지 업적 등을 인정받은 엘리트 가문의 자손들이 각 세대별 북한의 정치엘리트로 재생산되는 구조이다.¹⁹⁶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혁명1세대 즉, 항일빨치산 세대 엘리트들은 연령상 대부분 사망하였다. 혁명2세대 엘리트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유학 경험도 풍부하며 체계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습득한 세대로 3세대와 결합하면서 정치기반을 형성했고, 1970~80년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진출하면서 고위직 정치엘리트층으로 부상하며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3세대는 1970~80년대 국가무상으로 국내에서 주로 교육받은 엘리트층으로 김정일 주도 1970년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세력이 강화되어 현재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과장급, 각 도당위원회의 비서급, 내각의 상(장관)·국장급, 인민군의 상장·중장급에 포진해 있다. ‘고난의 행군 세대’라고 하는 4세대 엘리트 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을 나와 과학기술/정보화시대에 맞는 실력과 어학능력을 갖춘 이들이 상당하여, 실력과 실적, 실리 등 3실주의가 인사에 반영된 신세대 엘리트층으로, 이들은 항일빨치산의 손자/전·현직 정치국원의 아들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¹⁹⁷

196.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2009년 겨울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97. 이들은 향후 제7차 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중앙위원회에 진출해 지배 엘리트층으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트 층이라고 평가된다.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573~574.

I
II
III
IV
V

이러한 혁명의 1, 2, 3, 4세대 개념 구별은 북한정권에 의해 규정된 세대 구분 틀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삶의 역사와 의식변화 흐름에 기초하여 주요 사회적 경험과 역사의 공유라는 기준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세대별 구조를 경제활동인구를 크게 세범주로 나누어 첫째, 배급 안정과 배급 불안정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과도기 세대, 둘째, 식량난 세대, 셋째, 시장 세대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배급시대와 배급이 불안정한 시대를 모두 경험한 과도기 세대는 2011년 현재 기준 40대 초중반 이상의 북한주민들이다. 식량난 세대는 고난의 행군과 배급단절시기 중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던 세대로, 2011년 현재 기준 30~40대 초중반의 북한주민들이다. 다음으로 시장 세대는 시장화와 함께 자유와 변화 의식 및 행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세대로, 2011년 현재 기준 중학생~20대들이다.

나. 세대별 인식

배급과 배급 불안정을 모두 경험한 과도기 세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보수층으로 집단주의 의식과 정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세대이다. 경제난과 시장발전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도 한편으론 이해하지만,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과거 삶의 양식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 세대 역시 물질과 실리를 추구하는 신세대의 삶에 대한 이해 역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20~30대 시절을 보낸 이들은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급 등 국가 공적 부조 시스템의 수혜와 함께 그

수혜시스템의 붕괴도 경험한 이들도이다. 따라서 복잡한 심정과 체제절망을 보이고, 비사회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과 시대, 그리고 세대 변화 속에서 서서히 삶과 의식의 변화를 보이곤 한다. 그리고 이들 중 비사회주의의 검열 등에 걸리는 등 일정한 체제고난과 맞물려 삶과 미래의 고민을 한 경우는 삶의 양식을 바꾸거나, 북한체제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북한정권의 공식 세대구별에 따라 주민들을 나누어 보면 혁명의 1세대는 거의 사망했으며, 2세대는 할아버지 세대, 3세대는 부모님 세대, 4세대는 자식 세대인 고난의 행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3세대는 식량배급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며, 배급과 무상교육 등 국가의 공적 부조 혜택과 고난의 행군의 기아 경험을 동시에 한 세대이다.

배급과 배급 불안정을 둘 다 경험한 과도기 세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세대별 변화에 한 축은 안정적 배급시기를 경험하고 배급 불안정시기와 고난의 행군을 청년기에서 장년기 과정에서 경험한 이들도이다. 이들 세대로부터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식량난 세대, 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나 체제유지에 대한 의무 및 책임성이 이전 시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아가 형성되던 시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을 직·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였으며, 1989년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평양축전의 열기를 받은 세대로, 외국이나 남한에 대한 인식도 전 세대에 비해 확연히 구별되었다. 세대별 삶의 질 인식 차이와 관련해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때 대에는 국가에서 배급도 주고 하니가 먹고 사는 곤란이 크게는 먹고사는 곤란이 크게는 없었지요 이 밥을 먹는가 잡곡을 먹는가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세대에서 놓고 볼 적에는 95년도부터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렇게 겹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난에서 놓고 볼 때 잘 먹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이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 잘 먹자고 말하죠. 조국에 대한 애착보다 자기를 가정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는가 오직 이런 생각에 정치적인 생각보다도 경제적인 생각에 더 몰두하게 되요… 우리세대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이 더 크죠.”(사례19)

각 세대별 구체적 인식차이와 관련하여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대표적 증언에 따르면 남한으로의 정착을 결정이라는 사례에서 보듯이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현격히 낮아지고 있다.

“충성심이라 할 때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충성심이 정말 고지식하게 그대로 했죠. 비둘기 나갈 새라 그렇게 모 난리를 쳤는데 지금 우리 부모를 봐도 그때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 혹시 좀 이렇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 애를 봐도 그 친구들이랑 앉아서 말하면 애들이 결단성이 빨라요. 앞이 안 보인다. 모 살아 본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된다. 우리 딸 애가 빨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근데 지금 애들 보면은 우리 딸만 그런게 아니고 부모가 북한에 있는데 우리 딸 애 또래 되는 애들이 꽤나 남한으로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하는 각도가 우리하고 또 달라요.”(사례23)

요즘 북한의 젊은 애들은 목표가 과도기 세대처럼 고지식하게 가정에 매달리거나 자식 공부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이

상이 높아진 것이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물을 많이 먹었다.” 따라서 사회적 흐름에 대해 북한정권이 아무릴 막는다고 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증언자 세대인 40대 중반도 세상물정에 대한 눈이 많이 텃는데 눈이 텃다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비사회주의의 검열과 사회통제가 심해서 어느 정도 모색은 하지만, 그냥 바로 놔두면 한국 애들 못지 않게 따라 갈 것이라고 한다.(사례23)

전체적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는 충성심과 집단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반면, 아래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의 질 인식이 보다 커졌다. 무엇보다 다음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가족과 돈을 가장 중요시한다.

“우선 가족이 중요하지요. 가족이 있어야 안착돼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우선 좋은 가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친구도 필요 없고 애인도 필요 없어요. 우선 나한테 돈이 많으면 애인도 당연히 돈 많고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내가 골라가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인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나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망하겠으면 망하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라 지하자원을 막 캐가지고 나무랑 막 베어가 지고 그냥 바로 중국에 넘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애국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끼를 흠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 따위는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사례13)

마지막으로 특히 주목할 세대는 시장화와 함께 자유와 변화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시장 세대이다. 이들은 2011년 현재 기준 중학생~20대들로, 식량난 세대에 비해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연애를 해도 집에서 반대를 하면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일들이 회자되고, 마약을 해도 “그거 안하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도록 빠져든다

I

II

III

IV

V

는 것이다. 식량난 이전에는 가정과 학교가 학생들이 극단적 현상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그 안전망이 붕괴되었다.¹⁹⁸

따라서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집단생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중학생들의 의식이 상당히 극단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시장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분출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는 데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학생들은 북한 패션문화의 선두역할을 하고, 자신의 젊은 열기를 분출할 통로를 갈망한다고 한다.¹⁹⁹

정치에는 별관심이 없다는 현재 북한의 20대(시장 세대)의 의식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한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통해 북한 신세대의 의식 변화와 행위양식의 살펴보면, 첫째, 위장결혼을 해서 농촌에서 큰 시장이 있는 도시로 진출했다. 둘째, 시골장사→국수장사→고기식당 장사로 발전하면서, 돈이 돈을 낳고 권력있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수준이 올라갔다.²⁰⁰

셋째, 자본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피 말리는 경쟁 속에 도매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세상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했다. 넷째,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는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유행에 따라 옷을 만들기 위해 머리가 중요하다. 다섯째, 가만히 있는 ‘뚝뚝이’ 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생각하여 돌아다니다 보니 중국 갈 생각까지 했다.²⁰¹

198. 최진이, “유행어에 나타난 북한 사회의식상,”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8.12), pp. 23~29.

199. 위의 글, pp. 23~29.

200. 노귀남, “북한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8.12), p. 80.

이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활동을 통한 의식 수준 향상이 공간적 흐름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대도시→중국→한국은 이 북한이탈주민이 생애사적으로 직접 경험한 공간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가는 ‘의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치에는 관심없이 돈을 따라 가보니 자연스럽게 그 삶의 경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지향, 즉 ‘정치적’ 성격의 삶보다는 물질과 개인 중심의 사고에 기반하여 삶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탈북여성은 위장결혼을 하여 도시로 진출한 후 이혼을 통해 주민등록을 합법적으로 옮겼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거 조직생활에 충실하던 배급세대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던 식량난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 중 시장 세대라 명명한 신세대들은, 생활충화 등에 걸리지 않으려 자기검열을 하던 이전 세대가 정치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항상 의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그럴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신세대와 구세대의 삶의 질 인식 차이에 대해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과도기 세대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결국은 놓고 보면 지금 새 세대 아이들은 돈을 알아요. 돈을 아 니까 이해타산도 많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살아요. 그 다음 우리 어머니 시대는 공산주의 시대라고 봐야지요. 사회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힘든 고난의 시기이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고생을 썬게 하다 나니까 남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감도 많고 좀 악을 쓰며 살았거든요... 이악해요.

201. 위의 글, p. 80.

자기 목적을 위해서 쫓겨요. 그리고 지금 새 세대는 좀 부모한테 많이 의존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벌면서 새끼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행복해졌어요. 우리 때 보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에는요 국가 혜택으로 키웠으니까 어머니들은 편안하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부러움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국가 혜택을 좀 받으면서 좀 자유롭게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사회 모순에 이렇게 신경쓰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새 세대는 부모가 장사를 해서 살고 벌써 이 모순 저 모순 그러니까 부모가 권력이 있는 자식들은 편하게 성장하고 돈 있는 아이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와 같이 뛰어야 되고 그 다음 영 하류층 아이들은 제가 직접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나니까 지금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더 잘 먹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장사하는 것만큼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때는 맛있거나 맛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배급에만 의존했고 놓고 보면은 지금 연령기의 아이들은 정말 제일 불쌍해요.”(사례22)

북한주민을 세대별로 나누어 볼 때, 전반적으로 배급제와 국가 공적 부조가 이루어지던 세대에 국가 및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주의적 삶의 중요성 인식이 높다. 왕성한 경제활동인구인 30~40대 인구를 중심으로 볼 때,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와 아버지/어머니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은 과도기 세대이나 점차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인식이 커져가고, 자신의 자식 세대 또는 조카 세대들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삶의 질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위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젊은 세대일수록 돈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물질주의 인식이 팽배하다. 그리고 집단보다 개인, 국가보다 가족이 자신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 성별 삶의 질: 급변하는 여성과 무기력한 남성

가. 시장화와 성별 삶의 변화

북한의 시장발전과 함께 사회구조에서 삶의 변화가 가장 큰 이들은 여성들이다. 생존을 위한 아래로부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로 시장행위자로 활동하는 북한여성들의 삶과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여성의 목소리와 발언권 및 사회적 지위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한편 북한남성들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월급이나 배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력이 약해지면서 여성에 비해 사회적 행위측면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여성들의 의식은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반해, 북한남성들의 의식은 정체되어 있어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가 여성에 비해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구호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북한의 330가구 대상 조사결과 30% 내 여성만이 자신을 가정주부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약 70%는 장사 등을 하는 경제생활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생필품 무역을 하거나, 중국에 정착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의 시장에서는 길가에 앉아 물건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자들, 그리고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모두 여성들이라며, 이들이 북한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²⁰²

세계식량계획(WFP) 리처드 레이건 북한담당 국장은 2005년 현재

²⁰²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4/08/09/seg4>> (검색일: 2009. 10.5).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북한의 가정주부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원치 않는 수혜자들”이라고 말한다.²⁰³ 선군정치 하에도 북한 여성들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돈 냄새를 따라 진군하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 시그널’에 따라 유행과 미래를 쫓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직장에 나가도 남자들이 월급을 전혀 못 받다보니, 자연적으로 집안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상당수 가정에서 여성들이 벌여 온 돈으로 남자가 살게 되었고, 여성이 거의 가정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있는 남자, 책임비서, 조직비서, 이런 손가락에 드는 권력층을 빼고는 여자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든, 농촌이든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 높아졌고, 일상적으로 남자들은 속칭 ‘멍멍개’, ‘풍경화’, ‘낮전등’ 등으로 칭해지며,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개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경제적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이 장사를 잘 못하는 집은 잘 못살고, 여성들이 장사를 잘하는 집은 잘산다고 이야기되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의 권한이 다소 올라갔다고 평가된다.

북한여성들은 시장을 통해 자유거래의 경험과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고, 정치사회적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중국과의 거래 등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하면서 상당수 여성들의 의식세계 속에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성숙하게 되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여성중심으로 해결되고 시장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익히게 되며, 권력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²⁰³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4/07/nk_women> (검색일: 2009. 11.10).

여성이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남편이 집에서 놓고 술이나 먹는데 그래도 밥해다 바쳐야 하는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혁명적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군대로 보내거나 수령의 충성돌이를 만드는 게 여자가 할 일인가 등등의 젠더적 문제의식을 쌓게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성일수록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주체적 삶의 열정을 드러내게 된다.

의식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행위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북한여성들의 의식변화가 특히 부부관계나 남녀관계에서 행위변화로 발전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들의 불만과 횡포에 대해 재판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감행하거나 탈주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함경북도의 경우 사실상 별거나 이혼을 하는 부부는 전체 기혼세대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기피하고 탈북을 모색하며 북한남성이 아닌 새로운 사회의 남성을 찾아 떠나려 한다. 1980년대까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성들의 행위변화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성별 생활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여자가 많이 수고를 하죠. 많은 여자들이 남성에 비해 많이 수고를 하는데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 때 그 이후를 지나서부터는 남자들도 내조를 안하면 가정이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 오빠네 아파트에 가니까 아침시간에 남자들이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든 연탄을 날라다 주든 다 내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김치. 북한은 지하창고에 자기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문을 따고들어가서 김치를 갖고 오는 그런 수고라도 하죠. 어떤 생계형이라면 과자를 만드는 집이라면 그 남자들이 같이 일하고… 그런 집 아니면

20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호 (2006.11.8).

여자가 순수 시장에서 배낭만 훌쩍 매고가서 장사하는 집이라면 여자는 그냥 누워서 자고, 남자가 밥을 해주고 거의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사례40)

“에 키우는 것을 여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그래두 물 길어다주고 빨래도 삶고 이런걸 도와주고. 여자가 장사를 나가는 집은 당연히 남자가 내조를 더 열심히 하죠. 자기가 내조를 안하면 대접을 못받는다든 마음에서, 어떤 여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내가 돈 버는데 니가 나한테 내조를 안하면 돈 어떻게 쓰고 사니 하는 마음도 있고, 진짜로 정서적인 유대때문에 해주는 분도 있었죠.”(사례40)

또한 가부장제 시스템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 삶이라는 건 며느리 눈치보야 되며 살아야 되는 거고 며느리가 잘 벌어오면 잘사는 거고 아들이 똑똑해 잘하면 잘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좀 생활적으로 부담이 많은데, 여기처럼 중류층에 사는 여자들이 부담 더 많죠. 먹고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루 하루 쌀 사먹는라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층에서 먹고 크게 밥 먹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남편이 돈벌어오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그 직업이 있어야 여자가 그 그늘 밑에서 돈 벌 수 있죠. 그거 만들어주자면 여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여기서 처럼 언변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충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직장 잘나가도 직장자체가 못살지 않습니까? 나라자체가 못하는데 기관자체가 못 살죠. 그 기관에서 돈 필요한 계기들이 많죠. 그럴 때 처가 돈 잘 벌었으면 지원해준다던가 그러면 급이 급작스럽게 올라가죠.”(사례17)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부장 시스템의 주요 공간인 가정에서 부인이 가정경제생활을 책임질 경우, 시부모들이 며느리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과 사회적 삶의 위신도 여성의 경제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도 남자는 그저 형식적인 거죠. 직장을 안 다니면 사회적인 차별이 있으니까 가족을 유지하려면 직장에 다녀야죠. 직장을 가고 자기가 좀 좋은 직장이라던가 좀 벌이가 되는 직장이면 남자가 가정을 유지했는데, 남자가 벌이를. 돈이 되는 직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죠. 도당이라던가 시당의 행정원이라던가. 보안부, 보위부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하루 움직이면 저녁에 돈 가지고 오는 정도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범죄자들을 잡아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한테 또 뇌물 챙기고 합니다.”(사례41)

이렇듯 돈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남편의 경우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를 누리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남편들의 경우, 무기력한 생활실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며, 생존을 위한 현상적 변화라는 증언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남자가 자기 가정을 유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고 자기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벌어들이오는 남성들은, 아까 100% 중에 상류층이 10%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10%지만 저는 한 5% 된다고 해도, 그게 10% 미만이에요. 중상류층은 ‘남자하고 여자가 맞벌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런데 그게 대체로 남자가 직장에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여자들이 가정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남자가 돈을 타 써야 되고 애들도 써야하고. 그 가정을 여자가, 여자가 가장이 되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남자가 가장이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당연히 여자한테 좀 이렇게, 남자 혼자 살
기도 힘든 대다가 여자한테 돈까지 타 써야 하나까.”(사례41)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로 여성과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이 바뀐 것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에서는 북한의 국가배급체제가 재
개되거나 남성권력이 여성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연
스럽게 그 역할과 인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부장 시스템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성별 삶의 질 인식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성별 삶의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인
식차이”는 어떠한가? 남성과 여성별로 북한에서의 ‘만족스러운 삶’ 또
는 ‘행복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이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
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인식을 밝히고 있다.

“기본 만족스러운 삶은 남자들은 거기도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러
니까 이렇게 명절날에는 가족과 같이 놀러도 가고 공원 있잖아
요. 거기는 평양 시내도 돈만 있으면 살기 괜찮은 데예요. 뭐 유
희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경치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놀러
도 가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게 우선 기본 남자들은 대학을 졸
업하고 직권을 쥐어야만이 돈이 생기니까… 네. 권력이 있어야
자기 돈이 따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 돈 또
고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직권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대학 모집부장이다 그렇게 하면 애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나
도 대학 모집부장한테 찾아가 봤거든요. 돈을 얼마 투자하는가
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기도 하고, 나쁜 대학을 추천서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면 뽀폰트라고
하지요… 모든 게 직권이 기본이예요 거기는.”(사례38)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들의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보다 권력을 쥐는 것이다. 권력이 높고 이권이 있는 권력층에 속해야 뇌물도 따르고 권위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직업의 권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직업과 그와 관련된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여자들은 우선 첫째 아가씨라면 시집을 잘 가야 된다고, 우리 때는 시집을 가도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평양 시내로 한 발짝 나가려고 하고, 시골 주변에 있어봐야 농촌 사람 되고 아무래도 삶의 질이 시내보다는 못하니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시내에 내 보내려고 하는 거고. (시집을 잘 갔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뭐 대학 졸업을 했는가?, 부모가 괜찮은가?... 남편이 그렇게 하고 군대에 나갔다 왔는가? 집안에서 따지듯이 그건 비슷해요. 평양 시내도 비슷한데 지금 기본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돈이 지금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돈. 그래서 지금은 돈 교환도 옛날에는 보따리, 보따리 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돈 교환 하는 거예요... 혹시 여자가 (혼수) 능력이 없다 여자 집이 능력이 없다 하면 좀 작게 할 수도 있지요.”(사례38)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는 시집을 잘 가는 게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남성, 부모님의 출신성분과 재력이 있는 남성, 직업이 좋은 남성, 군대를 다녀온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해야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결혼의 중요 조건도 양가 모두 돈이라는 인식 또한 높아졌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좋은 직업, 권력이 있고 뇌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 여전히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열이 높아진 것이다.

계층별과 세대별 삶의 질 차이를 전제로 하여, 성별 삶의 질 인식에 고유성을 생각할 때는, 특히 미혼자의 경우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저는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남편하고 취향이 너무 달라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체제 때문에 맨날 불러 다니고 할 때, 저는 그거는 제껴 놓고, 그쪽 부분은 제껴 놓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부러웠어요.”(사례40)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스러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날 위해주고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사는 것이다. 한편 남성에게도 만족스러운 삶은 앞서 언급한 권력과 물질 외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이 때 2000년대 중요한 조건은 능력있는,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이다.

“저희 오빠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대학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돈이, 능력이 있는 여자. 돈을 잘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는 능력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 만족스런 삶이고, 그 다음이 인물이고, 정신력, 품성이 다음에 들어가는 품목이죠.”
(사례40)

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인 남성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능력있는 여자를 만나서 집안을 건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도 가정을 꾸리는 기본 조건은 첫째가 물질적 능력 즉, 돈이며, 다음으로 인물, 정신력, 품성 등이 차지하고 있다.

V. 결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



사실상 붕괴된 북한의 경제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태동한 삶에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이론을 일괄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다양한 방식을 터득하면서 북한 내 사회변화를 고찰할 때 삶의 질을 북한에 적용할 때 유의미한 점도 발견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욕구이론, 인간안보, 유로모듈의 주·객관적 지표 중 생존(존재) 욕구,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북한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 목표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 식의주, 교육과 건강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삶의 질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욕구이론의 생존욕구라는 측면과 북한당국의 삶에 대한 공식 담론을 비교하여 검토할 때 북한당국이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국가가 생존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북한주민들은 욕구이론에서 말하는 생존욕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지향목표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배급제가 붕괴되기 이전 식의주, 교육과 건강이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일반주민들의 삶의 질을 분석할 때 어느 정도 균질화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이 ‘비공식적 자력갱생’에 의해 생존을 모색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계층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장사라는 매개체를 통한 계층적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친척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삶의 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상류층의 경우 부식과 건강식에 더 큰 신경을 쓰지만 하류층의 경우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현격한 차이는 계층별 칼로리 섭취의 불균형으로 연결되면서 북한주민들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복소비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상류층의 경우 의생활에서 한국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도 일종의 계급 위장의 수단으로 의생활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주거생활의 경우에는 난방,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 시설에서 계층별 삶의 질의 편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 시설은 식수와 목욕 등 위생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이라는 지표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부족의 일상화가 텔레비전, 녹화기 등의 사용에 영향을 주면서 계층별로 북한주민의 대중문화 접근에 차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대중문화를 통한 여가생활에 계층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무료’ 중등일반교육과 무상치료제도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교육과 의료라는 지표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규정된 무료 교육과 무상치료제도를 국가가 경제난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교육과 의료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주민의 계층별 삶의 질의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의료(건강)이라는 객관적 지표는 매슬로우 욕구이론에서 볼 때 다음 욕구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주요한 자산이 되는 지표이다. 그런데

계층별로 이 두 가지 지표상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면서 욕구이론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주민의 미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지표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재정적 뒷받침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내 생활과 진로, 미래에 대한 설계에서 차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중하류층 북한주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는 문제이다. 생활 수준에 따라 의료 전달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진료소나 시·군병원의 체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계층별 식생활 수준의 차이는 계층별로 발병하는 병의 양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의 주된 기능은 진단과 수술 등의 역할에 국한되면서 의약품, 입원에 따른 비용, 수술에 따른 비용 등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사적 공여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하류층 주민들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장마당에서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싼 약을 사야 하는 하류층 주민들의 경우 비전문가로부터 약을 사먹어야 하므로 이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돈이 없는 하류층 주민들은 약조차 사먹기 힘들어 몸으로 견디려하고 있으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이후야 병원을 찾게 되어 생명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에서도 돈과 연줄이 작용하면서 하류층 주민들의 건강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들이 아플 때 아편과 빙두(마약의 일종)에 의존하면서 중독 등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난 이후 의료 질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절대적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져 암시장에 유통되거나 병원에서 돈을 받고 지급하는 현상이다.

주관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행복’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모으고 치부하는 것에 집착하는 편이다. 일반주민들은 행복을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행복을 인식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실태는 북한 내 정치·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욕구이론의 관계적 측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적 욕구라는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고찰할 때 집단주의 인식이 깨어져나가면서 개인주의적 삶의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다. 여전히 사회적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력과의 공생관계 형성, 인맥·연줄 형성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일반주민들은 통제와 감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후견해주는 ‘뇌물을 매개로 한 비인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사회에서 생존욕구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이론에서 설정하는 관계적 욕구가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맥·연줄과 ‘부와 권력 공생 네트워크’는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교육과 의료 등의 접근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역량의 형성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삶의 질과 관련한 북한 내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층별 분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대북지원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의 계층별 삶의 질 실상을 반영하여 개선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 내에서 계층의 분화에 따른 삶의 질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방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 당국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요 산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사전 수요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과 계층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계층별 불균형에 따른 하류층 북한주민의 접근기회 제약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북한주민의 접근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정치·사회체제 아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맥과 권력과의 공생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식주, 교육 및 건강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계층별로 크게 차등화



되고 있다. 대북지원이 제공되더라도 이러한 접근의 불균형으로 인해 실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과 지역에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지역의 개방과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지원 협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기회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간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 지원되는 의약품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하류층 주민들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의약품을 제공하더라도 중간에서 사취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사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장마당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을 제공할 경우 배분 시스템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인프라와 상하수도 등 위생환경의 개선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건강은 도로 및 환자 이송시스템의 개선, 상하수도 등 위생여건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긴급구호성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분야에서 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내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달리 북한당국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더라도 국제적 표준의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이 개발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개발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은 지역별, 계층별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추세에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유도와 대북 경제협력이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공식담론과 북한주민이 실제 지향하는 삶의 목표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바, 북한주민의 자아인식과 권리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원에서 비교의 관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차원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동시에 병행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 정보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인간안보, 인권적 관점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북한 내 통제와 감시가 객관적 실태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비공식적 자력갱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집단주의 인식이 약화되고 자율적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초보적이거나 저항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인권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대북인권정책과 삶의 질 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4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_____.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10.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김삼복. 『세대』. 평양: 문예출판사, 1985.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 명경사, 2002.

김영화·이애재·손지아·공정원 공저.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서울: 학현사, 2004.

김우상·조성권. 『세계화와 인간안보』. 서울: 집문당, 2005.

김창하. 『참된 삶의 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김치동. 『심리학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고려, 1999.

김태길.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데이비스·스케이스.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0.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3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5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6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화폐개혁 이후 1년: 북한주민인터뷰』. 서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0.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인혜·공계순. 『육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남출판사, 2004.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2005.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오경희. 『삶의 지표』.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9.

안셀름 그린. 이온화 율김. 『삶의 기술』. 서울: 분도출판사, 2009.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평양: 평양출판사, 2006.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0.
- 정옥분.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8.
- 정진성 외.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호, 2006.11.8.
-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385호, 2011.1.12.
-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419호, 2011.9.7.
- 최영학. 『우리의 집』.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의료실태』. 서울: 통일교육원, 2006.
- _____.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85.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 결과』. 1995.6.19.
- 타지박사·체노이. 박균열 등 옮김. 『인간안보』.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 Maslow, Abraham.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OECD 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서울: 통계청, 2009.

- Tadzbakhsh Shahrbanou and Chenoy Anuradha M.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2007.
- Alderfer, Clayton P.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2009.
-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Marginean, Ioan et al., eds. *Quality of Life in Romania*. Bucharest: Expert Publishing House, 2004.
-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4.
- _____.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 Rapley, Mark. *Quality of Life Research: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2008.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Geneva: WHO, December 1996.

2. 논문

- 강철국. “시대의 올림에 화답하는 주인공은…”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 2호. 1997.2.
- 김순철. “다시 찾은 모습.”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 김은희. “《박복》한 녀인의 이야기.” 『조선문학』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 _____.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일본《마이니찌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돛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4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노귀남. “북한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8.12.
- 류 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 1991.1.
- 류정옥. “금대봉마루.” 『조선문학』. 2005.4.
- 리경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기본내용과 그 확립의 근본요구.” 『철학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 리춘구. “내 고향의 처녀들.” 『조선영화 10호』. 1991.10.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2009.
- _____.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2009.

-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동북아미시사학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8.12.
- 윤현숙.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 서울: 을유문화사, 1993.
- 이일학. “북한의료 현황과 지원방향.” 한반도평화연구원. 『KPI리포트』. 제4호, 2010.1.
- 장선홍. “강반의 달밤.” 『조선문학』. 2003.10.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대북식량지원의 사회적 분배효과와 ‘순환적’ 농업생산구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12호, 2009.
-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최진이. “유행어에 나타난 북한 사회의식상.” 동북아미시사학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8.12.
- 최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주최 워크숍 발제문, 2010.
- 황나미. “2008 북한인구센서스를 통해본 북한보건의료 지표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169호, 2010.11.
- 황장엽. “주체사상의 역사적 지위와 특징.” 『근로자』. 1982.1.
- 허소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인구 변화추이.” 『북한 해양수산 리뷰』. 제13호, 2010.4.
- Delhey, Jan & Bohnke, Petra & Habich, Roland and Zapf, Wolfgang. “Quality of Life in a European-Perspective: The *EUROMODULE* As a New Instrument for

Comparative Welfare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8 (2002).

Galloway, Susan. “Section 1: A Literature Review.”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Measuring the Benefits of Culture and Sport: literature Review and Thinkpiece*.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January 2006.

Heineck, Guido. “Height and weight in Germany, evidence from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02.” *Economics and Human Biology*. Vol. 4, issue 3, December 2006.

Sirgy, Joseph. “A Quality of 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5, No. 3, July 1986.

The Fund for Peace. “The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5.

_____. “The 7th Annual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July/August 2011.

3. 기타

『중앙일보』.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개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0,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미민호	12,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합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박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근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한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법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	--------------------

-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